

격월간 · 중국을 주께로/발행처 · 중국어문선교회/서울 ·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전화:594-8038 · 533-5497/발행인 · 박성주/발행일:1993.9.30

격월간

1993.9/10

# 중국을 주께로

중국어문선교회

한중수교 1년과 중국선교  
중국 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지난 3년간의 방한 중국교포사역을 돌아보며  
중국 환경변화의 이모저모  
넓어진 중국 유학의 문  
무슨일이 있었나?

# 중국 이슬람 선교 세미나

중국 무슬렘을 주께로

## 이슬람선교의 문 중국!

중국에는 지금 위그르족, 회족 등 10개 민족에 약 2,300만 명의 무슬렘이 서부지역과 대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10억 세계 무슬렘인구 중에 2.3%에 불과한 것이지만 다른 회교권과는 달리 비교적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선교전략적 의미가 매우 큼니다.

우선 언어에 있어서 중국 무슬렘의 1/3 가량이 중국어로 선교가 가능하고 또 절반 가량이 우리와 같은 알타이어계열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정책면에 있어서도 다른 회교권보다 덜 적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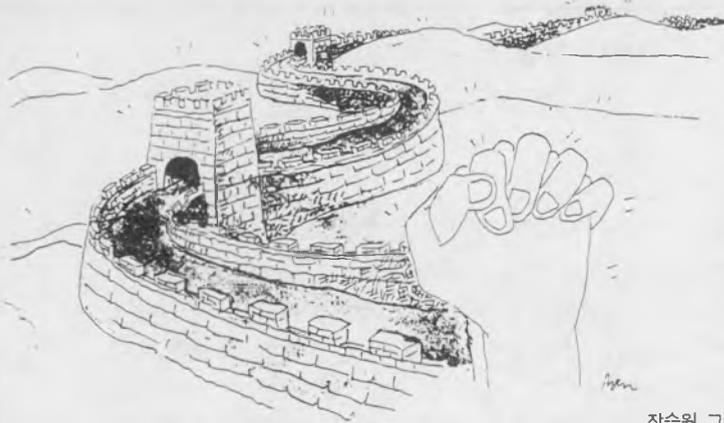
중국은 이처럼 이슬람선교의 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하여 21세기의 미완성과업에 도전할 동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 강사 : Leo Bruce 선교사 (AOI 홍콩지역대표)  
W. Wassermann 선교사 (AOI 유럽지역대표)
  - ▼ 날짜 : 서울 : 1993, 11, 8~9 (월, 화)  
부산 : 1993, 11, 12~13 (금, 토)
  - ▼ 시간 : 8일(월), 12일(금) : 오전 9시~오후 5시30분까지  
9일(화), 13일(토) :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 ▼ 회비 : 3만 원(점심식사 및 교재 제공)
  - ▼ 장소 : 서울 -- 한성중화교회 (정동 구 문화방송 맞은편)  
부산 -- 부산중화교회 (부산역 맞은편)
  - ▼ 문의 및 등록처 : 서울--중국어문선교회(TEL: 02-594-8038, 533-5497)  
부산--HOPE 부산지부 (TEL: 051-466-0199)
  - ▼ 등록방법 : 전화신청 후 당일 등록
- 

주최: 중국복음선교회, HOPE, 중국어문선교회



장승원 그림

격월간

중국을 주제로

1993.9/10 통권 24호



목자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중국영혼을 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다.  
"주수할 것은 많되 일군이 적구나!"

**발행인 칼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 박성주 / 2

**말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 홍문수 목사 / 4

**한·중수교 1년을 생각한다**

한·중수교 1년과 중국선교 • 유관지 목사 / 8

중국 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 노봉린 목사 / 11

지난 3년간의 방한 중국교포사역을 돌아보며 • 강성실 목사 / 16

중국 환경변화의 이모저모 • 홍기권 / 19

넓어진 중국 유학의 문 • 신현자 / 23

무슨일이 있었나? •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 27

**탐방, 스케치**

과천은과선교교회를 찾아서 / 32

"한·중 기독교와 문화" 세미나를 듣고 / 36

**세미나 • 연구**

중국선교의 이해 • 유소총 목사 / 40

각 지역별 선교전략 • 강성광 선교사 / 45

소수민족 개관 / 51

**인물 • 간증**

내가 본 중국복음사역 • 무명 / 57

중국기독교인물소전-정화보 / 65

아름다운 발자취 • 敬悅 / 69

**선교상식**

민속풍물이야기-濟南 부근의 전설 / 74

중국어로 찬양을 / 79

그림으로 배우는 선교중국어 / 80

중국선교 참고도서 / 82

중국여행 상식 / 84

**소식 • 기도**

중국선교훈련원 / 87

최근중국동향 / 90

중국을 위한 중보기도 / 96

알림 / 98

선교도서안내 / 99

# 자기보다 남을 남게 여기고

박성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그것을 견뎌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인다. 남에게 무시를 당하고 좋아할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 글을 쓰는 필자 자신도 내면 속에는 이러한 욕구가 숨어 있어 때때로 이를 자제하지 못함으로 해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력을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가정과 사회에서 행하는 많은 행동들에는 나름대로 그럴듯한 명분이 붙어 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따져보면 그러한 명분의 이면에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을 때가 많다. 특히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우리는 흔히 그 탓을 상대방에게 돌리기가 일쑤지만, 실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좌절되면서 비롯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오늘날 이 사회에 얽혀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에도 적지않은 부분은 이 욕구와 직접 간접으로 얽혀 있다. 부동산 투기로 이 나라의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는 이들은 재산의 축적을 통해 무엇을 추구하는가? 결국 돈의 위력을 빌어 누군가에게서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겠는가? 또 정치가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엄청난 돈을 써서라도 당선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 아까운 돈을 왜 이다지 뿌려대는가? 그것도 결국은 명예와 권세를 얻어 남에게서 인정받고자 하는 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비단 사회에서 뿐이겠는가. 심심찮게 들려오는, 교회 안에서 빛어지는 불미스러운 일들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욕구의 다양한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인정받고자 하는 데는 것처럼 열심히 우리가 정작 남을 인정하는 면에 있어서는 안타까우리만큼 인색한 것이 사실이다. 아니 남을 인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무시하는 행위를 태연하게 자행한다.

오늘의 사회는 어디를 가나 원망과 불평이 가득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는 작업을 열심히 해대고 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생결단도 마다않고 달려드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인정하는 데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 이 문제를 과연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공자는 논어에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라(子曰: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고 말하였다. 한 마디로 『나를 내세우기 보다는 남을 인정해 주는 데 주력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내가 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로 좌절하지 말 것, 둘째, 남에게 대해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귀한 것으로 인정해 줄 것을 말해주고 있다.

성경은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이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벧전 2:9).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셨다면 우리가 또다시 사람의 인정에 연연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성경은 또 대인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 7:12),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전 10:24).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빌 2:3)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우리는 이제 남을 인정하는 일에서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정도로 후해져야겠다. 이제부터라도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나의 이웃들을 후하게 인정해 주기로 하자. 지금까지 이웃에 대해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쉽사리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높이 인정해 주기로 하자. 아니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인정해 주자. 그들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가 나보다 더 나음을 인정하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이 열쇠를 쥐고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기필코 그곳에는 건강한 새바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홍 문 수

##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행16:6~10)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다 해도, 만일 천국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의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천국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최선의 복일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 천국에 이끌지 않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존재 목적, 즉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애 목적이요, 동시에 가장 복된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원리를 잊고 삽니다.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단편적인 ‘축복 지향적인 삶’이 최고인 줄 오해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최선의 삶은 ‘사명 지향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 선교를 위한 삶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생애를 통해 그 모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인생에는 일대 방향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전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생애가 되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으면 기뻐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빌 1:18~21).

그런데 적잖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마치 요나처럼 알면서도 회피하려고 합니다. 적당한 구실을 대면서…… 바울은 사도지만, 나는 평신도인데…… 저들은 목회자, 선교사이지만, 나는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 앞에서 목회자, 평신도, 선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만은 예외(Except me)라는 의식은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나 자신을 포함해서(Me too) 누구라도 온 세상을 책임질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벧전2:9).

또 어떤 분은 드러내 놓고 표현은 안 하지만, 사명보다는 세상 재미에 애착이 강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저런 핑계를 댑니다. 가족과 주변의 환경 등등……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중국소수민족 축제에 참가한 많은 군중들(귀주성 귀양에서)

오직 주님의 지상명령(마28:18~20, 행 1:8)을 위함입니다. 세속적인 행복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미 말했듯이 당장 천국 가야죠. 세상 재미보다 천국의 복락이 더 좋은 것은 확실하니까요. 이 세상 역사도 지상명령이 다 성취되면 종말을 고할 것입니다(마24:14). 주님이 승천하신 지 어언 2000여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지구상에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이 전체 2만4천 중 절반인 1만2천 종족이 남아 있다는 슬픈 사실! 물론 그 중에는 중국의 많은 종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계22:20) 하시던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에 대한 유일무이한 이유인 것 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적어도 남은 생애는 복음을 위한 삶, 선교를 위한 삶으로 재조정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기웃거리며 사명을 잊고 살던 세월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벧전 4:3). 그러면 이제 어떤 자세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한 마디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순박한 머슴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첫째로, 말씀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성령의 음성을 청종했습니다. 맨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될 때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행13:2~3). 그런데 제2차 선교여행 때, 그는 계속해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자꾸 막습니다.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마게도나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했습니다. 만일 이때 바울이 인간적인 외교집을 부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셨을 것이고, 바울은 그 대열에서 제외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생각과 경험을 버리고 순순히 순종합니다. 결국 그는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갔고, 거기서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나 유럽 선교의 장을 활짝 엽니다. 결국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가서 선교하는 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게, 엄격하게 따지면, 바울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충성스럽게 ‘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  
누구를 부르시는가 ?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했고 머슴처럼 섬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누구를 부르시는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 우리 한국 교회가 인간적인 열심만 갖고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범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은 전파되었지만, 이제는 좀 더 성숙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고, 가야 합니다.

둘째로, 죽어가는 영혼들의 탄식어린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는 도우라!” 그것은 애타는 간청이요 절규였습니다. 짐작컨대 그 모습이 그의 마음 속에 깊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못지 않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골육 형제들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원한다고 말할 정도로(롬 9:1-3) 구령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선교 회보나 심지어 TV에 나오는 사진 한 장이라도 예사롭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그 속의 낯선 사람들이 나와 무관한 것으로 간파하면 안됩니다. 우리를 응시하는 것 같고, “어서 와서 영생의 복음을 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탄식과 손짓을 듣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구의

구석 구석에서, 저 중국 대륙의 곳곳에서 우리를 향해 손짓하는 그 환상을! 그런 뜨거운 가슴이 우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보았던 선교영화 ‘어서와 주세요!’의 마지막 장면을 이따금 떠올리곤 합니다. 서양의 여자 번역 선교사가 미전도 부족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 언어를 익히고, 글을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 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소개하는 영화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부족의 한 노인이 그 여선교사를 향해 던진 한 마디! “왜 이제 오셨나요! 우리는 당신이 오기를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복음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 다. 우리는 그 간절한 호소를 들어야 하고, 그 애타는 손짓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보내야 하고, 가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지구 상에 존재하는 그날까지!

---

## 특집/한중수교 1년을 생각한다.

중국과 수교한 지 어언 1년.  
우리는 한중수교가 중국선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염려 반 기대 반으로 주시해 왔다.  
비록 짧은 1년이지만 변화된 중국의 모습과  
그간의 중국선교의 행적을 살펴보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중국선교의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 8 한중수교 1년과 중국선교/유관지
- 11 중국 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노봉린
- 16 지난 3년 간의 방한 중국교포사역을 돌아보며/강성실
- 19 중국 환경변화의 이모저모/홍기권
- 23 넓어진 중국 유학의 문/신현자
- 27 무슨일이 있었나?/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 한중수교 1년과 중국선교



유 관 지

지난 8월 24일, 한중 수교 1주년 기념일은, 한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별다른 기념 행사 없이, 다만 매스컴들이 한중 수교 1주년과 관계된 특집 기사나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으로 넘어갔다. 특집의 내용들은 대부분 한중 수교로 인한 경제 교류 확대나 임정 요인 유해 봉환 같은 성과로 꼽을 수 있고 반면 6.25에 대한 숙제나 우리의 저자세가 문제로 지적된다는 것들이었다.

한중 수교가 발표된 이후 중국 선교에 대한 세미나도 열렸고, 중국 선교 전문지들은 이 문제를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다. 그때 다뤄진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한중 수교로 인해 간접 선교의 기회는 확대될 것이다.

2)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많다.

- 국교 수립으로 인해 중국의 법률을 존중해야 할 형편이 되었는데 상대적인 이야기이기기는 하지만 중국의 법률은 종교에 대해 '제한적인 자유'(이것을 '어항 속의 자유'라고 하는 분도 있다)를

주고 있다.

-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교회들과 중국의 공인교회와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비공인교회가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 중국 당국자들의 방한이 늘어나면서 한국 교회의 중국 선교 활동의 실상이 그대로 노출되고 따라서 안전이 문제가 된다.

필자는 한중 수교 기념일에 1년 전의 이 예측들이 과연 적중되었나 조용히 검증하여 보았다. 독자 여러분도 한번 검토하여 보기 바란다. 대부분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공인교회와의 교류 확대로 인한 비공인교회의 소외 현상이 유난히 두드러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교회를 공인교회와 비공인교회로 이분(二分)할 수 있는냐고 이의를 제기할 분들이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1년 전의 기록들을 참고한다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중 수교 이후 중국 교회에서 기록에 남길 만한 일들은 대부분 조선족교회와 관계된 것들인데 연길교회 김성하(金成河) 목사님 소천(92.9.29), 북경

에 주재하고 있는 크리스천 한국인들의 “북경 한인 기독교인 모임” 조직, 서탑교회 헌당(93.7.3), 한국교회 초기 선교에 공이 큰 로스 선교사 기념비 위치 확인(93.7), 서탑교회 오애은(吳愛恩) 목사님이 동북3성의 조선족 교인이 6만 5천, 교회 58개, 처소 1,300개, 목사 7명, 교사(전도사)11명, 장로 9명, 동북신학원 재학생 23명, 금릉신학원 재학생 3명이라고 발표한 일(「天風」 93.7월호), 선교를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 개교(93.9.9) 등이다. 중국 교회 전체의 일로는 1992년 13개 신학교육기관 졸업생이 367명이라고 공표된 일이 기억된다.

그런데 중국 쪽이 아니고 러시아 쪽에서 최근에 북방선교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최근 하나 발생했다. 잘 알려진 대로 러시아 의회가 “외국인 선교사 적부 심사 제도”를 골자로 하여 외국인들의 선교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일이다(93.7.14). 이 법안은 러시아 정교회가 중심이 되어 발의한 것이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엘친이 서명을 하지 않아 실효가 되었는지 아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발효가 될 것이라든지, 아니 러시아에서는 법안이 공포되어도 지키는 등 마는 등 하나까 별로 염려할 것 없다든지, 현지 선교사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는 다르다. 첫째 지금까지 누렸던 선교의 자유가 사실은 1990년 10월 1일에 공포된 종교자유법에 기초를 두고 있으니까 만일 이 법안이 발효되면 마찬가지로 선교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이요, 둘째는 발효되든 안 되든 이같은 법안이 제출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특히 선교에 대한 깊은 훈련과 준비 없이 뛰어난 한국 선교사들이 저 모양으로 러시아 정교회를 자극하다가 가는 일이 터질 것이라는 예감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사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중국 선교에서도 이같은 일이 터지지 말라는 보장은 없고 이런 일이 터질 위험율은 매우 높다. 중국 선교에 종사하는 분들, 중국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러시아의 종교자유법 개정 사건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기관의 이야기라 말하기가 썩 썩스럽지만 한중 수교 이후 국내의 중국 선교 활동 가운데 바람직한 일 가운데 하나는 아세아방송의 중국 선교 방송과 조선족 상대 선교 방송이 많이 정리되고 활성화된 점이다. 이는 아세아방송이 제주송신소를 제주 본부로 승격시키면서 현지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편성, 제작하고 제주에서 송출할 때는 아무래도 격화소양(隔靴搔癢: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다는 뜻으로, 성에 차지 아니함)이었는데 제주에서 편성, 송출, 모니터, 반응 처리가 되면서는 새로운 면모를 갖게 되었다. 조선족 신자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방송신학강좌가 절실하게 필요해서 계획을 세워 놓고서는 예산 문제(약 2억 3천만 원 소요)와 우선 순위 문제로 실시되지 못하다가 제주의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맨주먹으로 시작되었는데 기대

**중국 선교에  
종사하는  
분들  
중국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러시아의  
종교자유법  
개정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성과를 얻고 있다. 이 일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 제주 성안교회(85년 전에 이기풍 목사님에 의해 설립된 제주 지역의 母교회: 당회장 정영택 목사님)에 대해 감사드린다.

방송사 내에 중국 선교 방송에 관심을 가진 실무자가 없이 고충이 많았고 중국선교 전문기관 모임에서는 이 문제가 기도 제목으로 등장하기도 했는데 제주에서 한경은(韓京恩) 양(연세대 사학과 졸)이 새로운 의욕과 자세로 이 일에 임하고 있는 것도 기쁜 일이다.

한 달에 수천 통(漢族), 수백 통(朝鮮族)씩 오는 편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읽고 처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중국의 개방이 날로 확대되고 한중수교가 이뤄지는 가운데 종교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부드러워진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바뀐 것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이다.

한중수교 1주년을 보내면서 미지근한 물 속의 개구리 이야기가 자꾸 생각난다. 개구리는 미지근한 물을 좋아한다고 한다. 그래서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 속에 넣으면 뛰어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서 물을 서서히 가열해도 개구리는 뛰어 나가지 않다가 끝내는 죽고 만다는 것이다.

한중 수교 속에 숨어 있는 선교활동의 부정적인 면을 생각하지 않고 한중수교를 '미지근한 물'로 여기고 즐기다가 중국 교회의 본 모습과 성격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다시 말해 뛰쳐 나오지 못하고 몰입(沒入)해 버리는 일은 없어야겠기에 이 이야기가 자꾸 생각나는 것이다.

---

유관지 목사/아세아방송이사, 제주본부장



광주에 있는 대마참교회(가정교회) 주일저녁예배 전경

## 중국 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노 봉 린

### 중국과 수교하다.

한국정부는 1992년 8월 이념적인 갈등으로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다. 한국의 중국과의 국교수립은 중국은 물론 한국 사회 전체에 걸쳐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모택동의 공산주의 혁명 성공 이래, 개인의 신앙과 사상, 경제와 정치를 공산당이 통제해온 중국이 부분적이나마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종교는 생장 성장하며 궁극적으로 소멸한다는 무신론을 숭배한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를 가혹하게 박해했으며, 1959년의 문화혁명 당시에는 거의 모든 교회를 파괴해버리고 목회자를 숙청했다. 모택동 사후 등소평은 개방정책하에 조건적인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면서 정부의 통제를 통해 삼자 애국 운동을 시작했으나 여전히 자유로운 복음전파와 해외선교사의 중국 내 사역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세계 복음화와 중국교회

중국의 인구는 14억으로서 55억이라는 세계 인구의 25.5%를 차지한다. 아시아 대륙의 인구가 30억이라 할 때 아시아 주민의 절반이 중국인이다. 중국의 복음화가 아시아의 복음화 더 나아가 세계의 복음화에 끼치는 의미는 결코 적은 것이라 할 수 없다. 올 4월 서울을 방문한 중국기독교협회장 텡 주교는 불교 신자가 1억, 이슬람교 신자가 3천만, 기독교인은 5백만~6백만이고 13곳의 신학교가 중국 대륙에 있다고 발표했다. 이 숫자는 중국에서 강하게 일고있는 가정교회 운동을 제외한 삼자교회에 등록된 교인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실상 선교 전문가들은 중국의 기독교인을 7천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회원은 480만이다.



중국 호북성 무한에 있는 중남신학원

**원칙적으로  
외국 선교사의  
전도를  
불법화하는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한국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주님앞에 결단  
할 때이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은 중  
국**

천안문 사태를 뒤로 하고 경제개방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은 경제 개방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앓고 있다. 공산당과 유물론은 더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못하며 지식층과 젊은층은 공산주의의 환영에서 벗어나 이것을 대신할 영적 대체안을 찾고 있다. 빈부의 격차, 도농간의 빈부차, 인권, 자유, 민주주의, 부정부패 등을 해결하는 정신적 기초가 요구되는 가운데 자치(自治), 자양(自養), 자전(自傳)을 원칙으로 하는 공산당 직영 삼자교회는 이러한 영적 갈급함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들어 완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중국 정부의 감시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가 중국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 순회 전도자가 체포되고 교회가 폐쇄되어도 정부 종교청에 등록하지 않은 가정교회가 급성장한다. 가정 교회의 급성장으로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바쁘

게 순회 설교를 하고 자체 개발된 프로그램에 따라 사역자들을 훈련시켜 파송하기도 하지만 추수할 곡식을 다 추수하기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 한국교회의 중국 복음화 전략

하나님의 은총으로 급성장한 한국교회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내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온 열방에 선포해야 할 사명을 이어받고 있다. 중국과 수교가 성립되면서 경제 교류 등의 상호 방문이 활발한 가운데 한국인들이 중국에 진출 정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세계 복음화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하면서도 원칙적으로 외국 선교사의 전도를 불법화하는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한국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할 때이다. 최근의 정치 경제 동향에 힘입어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 비자 대신 여행 비자를 가지고 체계적인 선교 전략 없이 중국에 입국하여 복음화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한국교회가 자기 성찰은 물론 중국 문화의 이해를 통한 중국의 한족 및 55개 소수민족의 복음화보다는 중국 동북부에 거주하는 약 2백만의 조선족을 편중적으로 무분별하게 공략하는 데 있다. 중국정부는 한국인의 이러한 활동을 서구 문화의 침투 내지 한국 정부의 배후조정으로 의심하면서 작년에는 중국내 한국인의 선교 활동 자체를 문화부에 공식 요청해 오기도 했다. 필자는 어떻게 한국교회가 우리의 생명이시며 인류의 구

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정 학적인 장벽과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 면서 중국에 전파하느냐 함께 중요한 조직적인 선교 정책상의 몇 가지 구비 조건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1. 한국의 개교회는 중국 복음화 비전을 구체적으로 심화시켜야 한다.

한국의 개교회들이 중국 선교에 관심 이 많다고 하지만 여전히 연변의 조선 족에 편중되어 있으며 중국 대륙에 걸 친 한족과 그 외 55개 소수 민족에 대 해서는 전혀 무지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며 그 비전에 있어 전무하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역사적으로 깊 은 관계를 맺어온 중국이지만 한국 교 회지도자들은 선교의 관점에서 재정립 한 중국인과 문화, 중국 복음화의 중요 성을 신도들에게 고취시켜 대대적인 평 신도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도 가운데 철저히 훈련된 직업선교사를 많이 파송 해야 한다. 특히 <선교한국>, <CCC>, <IVF> 등을 통해 대학생, 청년이 중국선 교에 관심을 갖도록 홍보하는 것이 전략적 으로 중요하다.

### 2. 중국 선교의 준비·훈련 과정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한다.

현재 한국에는 10개 미만의 중국 선 교회가 있다. 그 중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중국복음선교회”와 “중국어 문선교회”이다. 그러나 재정적 타격으 로 이들 단체들 역시 활동을 강화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어문선교회”도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석자가 적으며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는 선교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선교훈련 센터로 나와 선교에 관해 적극적으로 교육 훈련받는 교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야 한다. 한국의 개교회는 평신도들의 중국 선교 비전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중국어, 역사, 문화, 철학을 교육할 수 있는 중국선교 훈련프로그램을 적극 개 발하고 전개하는 데 재정은 물론 기도 로 지원해야 한다. “중국복음선교회”는 1994년부터 재경 중국인 한성교회에서 중국선교사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 정이며 아세아연합신학대 역시 중국선 교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 3. 한국인 중국 선교 헌신자 훈련 센터를 대만, 홍콩 등에 설치한다.

선교지의 언어는 선교지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듯, 선교지에서의 문화 훈 련 역시 가장 효과적이다. 한국의 중국 선교헌신자와 중국 청년이 함께 대만이나 홍콩에서 교육을 받는 것 또한 중국 선교전략상 중요하다. 필자는 지난 8월 말경 대만에 가서 대만 道生신학교 학 장인 진례 박사 외 두 분의 교수와 대 화를 나누었는데, 그 학장은 1995년부 터 외국인 중국선교헌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훈련소를 개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중국어, 문화, 역사를 집중적 으로 교육할 계획이며 한국의 신학교와 학점교환제도를 모색중이다. 중국의 문 호가 기독교에 열릴 때까지 대만 홍콩 에서의 선교훈련과정은 선교전략상 의 미가 크다. 중국 복음화를 중국 신학교 및 교회와의 긴밀한 협력 가운데 동반 자 입장에서 수행하는 협력의 장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홍콩에도

**선교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선교훈련  
센터로 나와  
선교에 관해  
적극적으로  
교육 훈련받는  
교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중국선교의 일환으로 중국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평신도 교회 지도자, 목회자들도 한국에서 단기 교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훈련하는 훈련센터로서 조나단 차오 목사가 이끄는 <중국 선교 신학교: Chinese Mission Seminary>가 있다. 아세아 연합 신학교는 1995년부터 대만의 <도생신학교>와 홍콩의 <중국 선교 신학교>에서 본교의 아세아학과 학생들이 1-2학기 동안 학점을 이수하는 학점교환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본인이 선교국장으로 협력하고 있는 <햇불선교센터>도 중국 복음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 작업에 큰 관심을 두고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4. 한국인이 대만이나 홍콩 등지에서 중국인과 함께 중국선교지 훈련을 받는 것과 함께 대만이나 홍콩의 중국인 교역자와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신학 및 전도, 교회성장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인들의 적극적인 신앙과 목회 등이 중국 교회의 중국 복음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아세아연합신학대에 중국인 학생들이 소수 입학하여 공부를 했으나 한국인들과의 문화적인 마찰과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귀국했다. 더 나아가 학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중국학생들의 가치관으로 한국보다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신학, 선교학 등을 공부하기를 선호한다. 한국교회는 중국 선교의 일환으로 중국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평신도 교회 지도자, 목회자들도 한국에서 단기 교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1991

년 충현교회에서 개최한 김치(KIMCHI: Korean Institute for Missions & Church growth International)세미나에 홍콩,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60여 명의 중국인 등의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10일 간 교회성장에 관한 단기훈련을 받은 것이 참으로 좋은 실례였다고 할 수 있다.

**5. 중국선교 연구센터를 세워야 한다.**

현대 선교는 정보와 지식에 의한 선교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다. 선교지 연구 자료 수집과 분석 종합에 의한 중국 선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연구소가 필요하다. 여기서 조직되고 구성된 중국 선교 전략이 한국 개교회의 중국 선교전략의 주요한 맥락이 되어 중국 선교를 위한 한국 개교회의 협력과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중국에 신학교를 세워도 교회별 교단별 신학교를 각기 세우는 것보다 교육 시설을 제대로 갖춘 규모있는 신학교를 건립하여 단, 중기는 물론 백년지대계의 중국 복음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아세아연합신학교의 선교대학원 내에 영암교회, 춘화, 수영로교회의 지원으로 <중국 선교 연구원>을 설립중이다.

## 결론

중국 복음화의 책임과 의무는 근본적으로 중국인 자신에게 있다. 한국 교회나 제3국이 아무리 선교사를 1만 명씩이나 인구 14억의 중국에 파송한다고 해도 중국교회가 복음에 불이 붙지 않



어디를 가기 위한 것일까?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국사람들

는 한, 한강에 주먹돌 던지는 것에 불과하다. 현재로서는 중국 복음화의 책임은 대만과 홍콩,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교 크리스천들에게 있다 하겠다. 일차적으로 중국 복음화의 전략상 이들은 너무도 중요하다. 중국 전역에서 해외로 흩어진 이들이 각자의 고향을 가장 잘 이해하며 언어 풍속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해외에 흩어져 있는 화교들 및 중국 내 기독교인들이 중국 복음화에 더 큰 불을 당길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뜨거운 복음화 열정을 화교교인들에게도 심어주기 위해 그들과의 유대관계를 시작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한국교회의

사명은 중국 기독교인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민족복음화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로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다. 더 넓게는 제3국의 중국 선교사들과도 동반자적 입장에 서서 중국에 관한 정보를 서로 나누고 협력하여 중국 내에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

노봉린 목사/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

## 지난 3년간의 방한 중국교포사역을 돌아보며

강 성 실

지난 3여 년 동안 방한 중국교포사역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새로운 전망을 갖게 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한·중 수교 1주년을 기념하면서 그동안의 사역을 돌아보며 이 사역의 전망과 중국선교에 기여한 바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동안 방한 중국 조선족 사역은 인천 여객 터미널과 서울역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 인천 여객 터미널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은 그곳을 출입국 하는 교포들에게 선물을 주며 복음을 전하는 일과 입국자 중 한국에 연고지가 없는 경우 단기간 숙식을 제공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서울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역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독립기념관을 관광하며 하나님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일 관광전도이다. 둘째는 월요일 전도집회로 매주 월요일 혹은 화요일 저녁시간에 식사를 대접하며 찬양과 예배 그리고 오락 및 신앙상담을 하는 것이다. 셋째는 전도수련회로서 명절이나 특정 기간에 4박 5일 정도 숙박하며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넷째로는 신앙공동 생활의 집 운영인데 교포들이 함께 생활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누며 체계적으로 신앙을 양육하는 일 등이다. 그러나 이 사역들 중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주 화요일 저녁 전도집회와 중국 교포를 위한 공동생활의 집 운영뿐이다. 이 사역들도 현재 정부의 노동정책을 미루어 볼 때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 같지가 않다. 예를 들면 정부의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중국 교포 입국허가의 제한 조치로 입국자들의 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교포들이 일정하게 모이던 만남의 장소도 없어짐으로써 교포들을 과거처럼 쉽게 만나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것은 합법적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전도하는 것이다. 이들은 약 1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부족한 노동력 - 특히 3D(danger, dirty, difficult) 업종의 중소기업체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1년 간의 계약으로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올해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합법적으로 들어와 일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약 9,000여 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 중국인들이 5,000여 명 정도가 된다. 현재 중국의 경제상황과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을 감안할 때, 적어도 몇 년 정도는 계속 이 수준 이상의 인력 유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주로 서울 근교 (2,000여 명)와 인천 공단지역 (2,500여 명)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 중 1/3 정도는 조선족이고, 2/3는 중국인이다. 이들을 위한 사역이 몇몇 교회에서 소규모로 진행되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참석 인원이 적고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역자가 없어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는 형편이다. 앞으로 이 사역은 기업체와 협조만 잘 이루어지면 안정적으로 중국인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지난 3여 년 동안의 방한 중국교포사역을 돌아보면서 이 사역이 한국의

대 중국선교에 끼쳤던 몇 가지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들이 중국 선교에 대한 활발한 관심과 헌신을 불러일으켰으며, 중국 선교단체들이 중국선교를 위한 방향제시와 선교전략을 수립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또한 중국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과 중국 선교 후보생들에게 자신들의 비전과 헌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했다.

둘째, 중국 내에 있는 200만 조선족의 존재와 선교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을 깨닫게 해 주었다. 이들의 중국에서의 선교적 역할은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기대되는데, 먼저는 중국선교이다. 이 조선족들은 대부분 동북 3성지역 -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중국 내에 조선족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은 거의 없을 정도이다. 예를 들면 내몽고 울란호터에는 500여 명 규모의 高中학교가 있고, 수도 후와호터에는 200여 호, 그리고 신장 위그루 지역 내에도 수백 명의 조선족이 살고 있다. 이들 대부분

**합법적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을  
전도하는  
것이다.**



방한 중국교포들을 초청해 말씀을 전한 뒤,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다

**중국  
선교단체들이  
중국선교를  
위한  
방향제시와  
선교전략을  
수립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분은 중국어와 조선어를 잘 구사할 수 있으며 안정된 생활 기반도 갖추고 있다. 이들은 중국을 알리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도움과 접촉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분야는 북한 선교이다. 우리는 중국 길림성 연변지역의 왕래를 통해서 그동안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북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우리의 선교적 준비를 점검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연변지역 조선족을 통해 북한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과 효과적인 방법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한·중수교의 중간 역할과 촉진제의 역할을 해왔다. 양국 모두가 수십 년 역사의 단절을 뛰어넘어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고 단기간에 중국 전체 지역에 대한 전망을 갖게 된 것도 이들의 공헌이 컸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로 우리는 이 사역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 선교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선교의 열정은 누구보다도 높지만 올바른 지식을 좇은 열심이 아니었기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우리들의 성숙치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넷째로, 한국에 와서 교회를 통해 자신의 생애 가운데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진실된 사랑을 경험한 중국 교포들, 한국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새롭게 한 중국의 기존 신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경험한 이들 중국 교포들로 인해 교회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견해들이 바

뀌기 시작했으며, 많은 예배처소가 개척되었다. 또 그동안 위축되었던 처소 교회들이 큰 활기를 띠게 되었다. 본인은 몇 번의 중국 현지 방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주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정리하면서 주님께 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중국 선교에 대한 우리의 비전과 헌신을 새롭게 했으면 한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회심과 그 여인의 증거로 인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자기에게 나아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녀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도다.” 세상과 선교지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야와 제자들의 시야에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었다. 주님은 희어져 추수할 때가 다 되었으나 일꾼이 없어 수확하지 못하고 있는 밭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동일하게 그 밭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녀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며 늑장을 부렸다.

우리는 과연 중국이라는 추수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중국을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녀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를 여건이 덜 성숙한 밭으로 보고 있는가?

## 중국 환경변화의 이모저모

홍기권

### 인구의 도시화 현상

대형사회의 대두로 인구 도시화현상은 생활거주의 도시화 과정이 진행되는 한편 여러 지역에서 각기 다른 정도이긴 하나, 산업화와 정보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조직의 도입으로 인구가 밀접한 도시가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농촌인구는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60년대 농촌과 도시의 인구가 각각 75% 대 25%이었던 것이 80년대 말에는 완전히 반전현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인구밀도가 높아(북경:약 1천만/상해:1천2백만, 최근 통계) 어디로 가든지 초만상 상태를 이루어 거대한 정보화 대상사회가 형성된다.(인구 100만 이상 도시수:23개시/총인구 6,030만, 87년 통계).

중국은 앞으로 2000년까지 1억 명의 농촌잉여노동력(15세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경에서 실시된 『농촌지구의 발전과 인구의 이동에 관한 국제학술 토론회』에서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앞으로 농촌노동력은 매년 1천만 명씩 증가하여 금세기 말에는 5억 명에 이를것인데, 이중에서 도저히 흡수할 수 없는 노동력이 1억 명에 이를 것이라 한다. 현재 아무데도 흡수할 수 없는 농촌잉여노동력이 2천만 명이니까 이것이 10년 동

안에 5배가 되는 셈이다. 이들 『경제난민』이 중국으로부터 쏟아져 나올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 주변국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대략 12억의 인구가운데 2천년까지 40% 이상이 도시생활을 하게 된다고 볼 때(현재는 대략 농촌인구비율이 80% 임), 우리 한번 서울과 연관지어 보자! 어느 보고에서는 현재 중국의 인구출생율은 1천명당 19.68명이고 사망율은 6.70명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자연증가율은 12.98명이며 1세대당 가족수는 3.88명, 남녀 구성비는 106.27명 대 100명의 불균형성을 보이고 있으며, 농업과 非농업 인구비는 79대 21로 아직도 농촌 노동력에 기반이 강하다 할 수 있다. 농촌과 도시는 호적에서부터 불평등한 데 농촌태생의 경우 「농촌호적」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도시의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고 직장에서 부식품수당 및 물가수당을 받는다. 또한 의료보장의 혜택, 일자리를 잃을 경우 실업수당, 퇴직연금 등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도시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여기에 따르는 도시인구 만원사레, 공해, 교통난 등 발생하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중국의 도시, 농촌민민의 생활수준 개황

항 목	단위	1986년	80년 대비 증감비율(%)	비 고
1. 평균수입(표본조사) 농민1인당(평균순수입) 직원, 노동자 임금 1인당 평균지출 가능 생활비	元	424 1,329 828	222.0 174.4 188.6	소매점, 음식점, 서 비스업의 수 1만인당 점포수 :104(504.9%) 1만인당 종업원 수 :246.6(261.0%)
2. 1인당평균지출액(전국평균) (중식량) (中 일용소매소비재)		452 (255.9) (108.0)	199.1 119.7 267.3	US\$: 人民币汇率 : 3.7221(87년) 5.710(93년)
3. 1인당평균주택점유 면적(도시) (농촌)	坪數	2.645 5.058	160.0 162.8	黑市去來
4. 교통수단 100인당 자전거 보유당	臺	24.3	250.5	10.0-11.0(93.8월)
5. 예금액(1인당 평균)	元	211.7	522.7	9.0-9.50(93.9월)
6. 문화수준 100인당 T.V보유 라디오 녹음기	臺	8.7 24.0 4.9	966.7 198.3 980.0	
7. 교육 1만인당 대학생	名	17.8	153.4	
8. 취업(1인당 부양가족: 도시)		1.8	101.7	

시험적 변화(중국적 특징을 가진 사회주의 변화의 기본 내용들/ 사회주의 경제의 주요 결함의 수정할 의도들/중국적 사회주의 체제 도입의 내용들)

- ①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분리시키고
- ② 가격기능을 활용하고
- ③ 경쟁적 유통제도를 도입하고
- ④ 능률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 ⑤ 소비를 촉진해서 생산을 자극하고
- ⑥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젊은 세대를 훈련시켜야 한다.

그 후 중국사회의 변화는 이러한 기본 방침에 따라 계속 추진되어 발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직 사회

주의 초급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 ①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에 따라 국영기업도 회사화하고
- ② 중앙부서의 간섭없이 기업상호간에 다각적인 경제거래 활동을 하도록 하고
- ③ 자본주의 시장체제를 도입하여 자금, 노동, 기술, 정보, 부동산도 상품화 하며
- ④ 화폐금융 정책과 시장기능을 이용한 간접관리를 통하여 경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 ⑤ 국유제의 기초 위에 소유제도를 다각화하며
- ⑥ 노동한 만큼 보수를 받도록 하고 채권이나 주식에 의한 '비노동 소득'도

인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은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단지 시장사회주의 체제에로의 더 빠른 변화를 저해하는 이유는 기본 정책을 집행할 중간관리층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작으나마 월급으로 기본적 의식주가 보장되어 왔고 거기에 통제체제하에서는 일반서민이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특혜와 특권이 있었다. 경영책임제의 경제체제하에서는 손익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하니 많이 생각하고 잘못될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와 갈등의 입장에서 중국 내의 우리 교포들의 입장은 소수민족 중에서, 비교적 잘 산다고는 하나, 華中지방이나, 華南지방의 漢族에 비하면 어려운 점이 많다. 우리와의 만남이 동족애의 마음은 있지만 중국에 남아 생활을 해야 하고, 또 옆에 漢族이 있으면 신경을 써야 하는 이중적인 처지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들 중국에 있는 동포들은 우리 각계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술 관계서적, 컴퓨터, 기재와 기술, 자금지원, 기술연수 등) 또 우리와의 합작투자도 원하고 있는 듯 싶다. 이러한 선상에서 하나님은 상호 보완적 역할을 원하신다(그들을 미리 그곳의 문화 속에서 가꿔오신 예비하심으로 교량적 역할의 기능등을 보며). 이렇게 우리와는 가깝고도 먼 나라, 혹은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의 정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심을 느끼게 한다.

### 중국의 투자환경

79년대의 개방정책 실시와 함께 中外 합작기업제정을 효시로 외자도입체제를

갖추고 외국의 선진기술 및 자본 도입을 적극 추진중인데, 제반 제약상 일부 것만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외자도입의 기본정책: 自力更新을 원칙으로 외자도입은 보조수단으로 이용

② 에너지개발, 사회간접자본확충, 기간산업육성, 기술개발에 우선순위를 둠.

③ 경제특구 및 연안대의개방도시의 설치, 경제특구, 외자 및 선진기술 도입으로 수출산업육성과 시장 경제원리 적용, 珠海, 廈門 등 4개 도시 / 연안대의개방도시, 외자 및 선진기술 도입으로 2차 산업 육성, 大連, 靑島 등 14개 해안도시

④ 지방 정부의 자주권 확대: 상품교역 및 외자도입 관련 중앙정부 승인 권한을 점차 축소, 지방省, 市, 독자 추진 독려

⑤ 투자 우대조치: 우대정도는 투자지역, 투자방식, 투자분야 등에 따라 상이. 투자 기간이 10년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은 이익 발생년도부터 2년 간 소득세 면제, 이후 3년 간은 50% 감면됨 등.

### 외국투자기업의 공통적인 문제점

① 경영상의 문제점: 국영기업과 비교하여 전력, 노임, 원자재 구입비 등은 싸지만, 경영원가 전체로 보면, 반드시 싸지는 않다.

원인은 관리비 (노임 총액의 20%를 외화로 招商局에 납부해야 하는 규정, 전력 부족으로 1주일 중 예고 없이 주 2-3회 정전되는 등 컴퓨터관련업의 경우 고장 등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높은 Operating Cost / 낮은 기술수준 및 未成熟度 / 노동자들의 생산성 제고에 대한

무관심 / 조업원 고용, 적정인원 고용, 무능 종업원의 해고, 공산당 간섭 배제 등의 자유권이 없다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음).

② 관련법령의 잦은 변경 및 개정 / 果實送金의 어려움.

③ 장기휴가제 허용.

④ 기타 관료주의 (다시 수속하는 데 번거로움) 및 기타 興件不足 (주거환경 미비와 자녀교육 등 부정적 요소의 산재).

### 합자회사설립시 유의할 몇가지 체크사항

① 합작파트너의 신중한 선택.

② 밀져봐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성공하면 다행 (일본, 구라파 선진국의 경우), 따라서, 장기적 안목/ 선교적 차원의 시각에서 투자 (회생은 어려움 : 정책의 동요가 심함: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음).

③ 투자기금 건적은 여유있게 (工期延長, 金利負擔, 電力債 구입, Infra(전기, 가스 등), 임금외의 주택, 연금, 복지비용, 찬조금 등 감안).

④ 관계자와의 자리마련: 宴會 등에서 (개별적 접촉).

⑤ 가능하면 撞案權 (개인평가부 : 근무성적/태도의 이력작성권 : 신상 고가표에 해당, 사회주의에서는 반드시 소속직장에서 연속적으로 作成記錄되는 文券 임.)을 장악 : 노동자의 당안을 쥐고 있는자가 실력자 임.

끝으로 저의 어렸을 때의 경험을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60세가 다 된 장로님께서 부인과 아들

내외는 물론 손자들까지, 모든 식구가 전도를 하기위해 저희 마을로 이사를 오셨다. 90호 정도 되는 마을이었는데 그는 선교의 한 방법으로 매일 아침 새벽예배를 마친 후에 마을 구석구석을 청소하셨다. 주민들의 집앞에서 그들에게 접근하여 인사하면서 온 마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개똥, 소똥, 쓰레기, 잡초 등을 깨끗히 청소하였다. “\* \* 댁 계십니까?” 집집마다 인사를 나누면서 청소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셨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손수 냇가에 나가 돌들을 주워오고, 종탑을 달며 젊은 여전도사들과 함께 일하셨다.

그분을 모델삼아 우리가 중국에 가지 저분해 보이는 곳을 빗자루로 쓸어가면서 그들에게 접근한다면 어떨까?

이 작은 글이 중국선교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의 소리로 들리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중국선교에 참고가 될만한 문헌들을 소개한다.

중공교육학 (도서출판 主流)

현대 중국의 종교 (路出版)

아시아인의 心性과 神學 (분도출판사)

아시아 이야기 신학 (분도출판사)

중공의 기독교정책(한국방송선교센터)

그리스도교와 동양인의 세계(한국신학연구소)

아시아의 상황과 신학(대한기독교출판사)

기타: 중앙일보사에서 발간된 중국 관련채자 및 중앙경제신문 등

흥기권/중국어문선교회 회원, 서울신탁은행 과장

# 넓어진 중국 유학의 문

신 현 자



운남성 곤명에 있는 운남대학

중국은 수교국이기는 하지만, 한·중 수교 1주년을 넘긴 지금도 사전에 외무부의 여행허가를 받고, 중국 비자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는 특정국가의 하나이다.

서해 바람이 이는 것과 함께, 유학에 대한 관심도 크게 일고 있는데 일반 여행과는 달리 유학이나 연수에는 수속에 따르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또한 절차상에 까다로움도 있어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시간, 경비상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허가되는 중국유학은 4년제 대학 졸업자에 한정되어 있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중국에 유학하는 경우는 방문이나 상용으로써 출국을 해 연수하는, 일종의 편법을 쓰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렇게 출국에 있어 억제와 하고 있는데도, 유학생 중에는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식, 또 유학만 가면 중국어 하려는 저절로 해결되겠지 하는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출발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 같다. 중국으로 유학을 가더라도 노력을 안한다면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유학의 구분은

- 1) 장·단기 어학연수
- 2) 본과생(本科生)
- 3) 석사연구생
- 4) 박사연구생

과정으로 나뉘며, 중국은 9월 학기가 신학기로서 어학연수 과정을 제외하고는 매년 9월 입학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각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 1. 語言生(어학 연수과정)

단기과정은 2주부터 가능하며 장기 유학일 경우엔 보통 9월 개강, 3월 개강의 2개 학기로 나뉘어 입학하며 부득이한 경우 학교에 따라 중간 입학도 가능하다.

중국 유학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과정으로, 이 과정부터 또는 이 과정을 거쳐야 다른 과정에 입학할 수 있으며, 단기로는 2주부터, 장기 1-2년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자격은 고졸 이상자로서 연령은 보통 45歲로 제한은 있으나, 아주 엄격한 편은 아니어서 60~70歲 고령이 아니면 거의 가능하다.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뉘어 있어서 자기 실력에 알맞는 반을 배정받아 공부하며 중국어 기초가 전혀 없는 사람도 입학할 수 있다. 또 연수기간에 따라 학교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을 받는다. 북경·상해·천진·심양·연길·하얼빈 등 중국 전역에 걸쳐 열려 있으며, 흔히들 북경 명문대만 고집하는데,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과정은 거의 비슷하고, 기본적으로 모두 표준어를 사용한 수업이다. 학위과정이 아닌 어학 연수과정은 학교 지명도보다는 다른 제반 여건, 즉 학교의 관심도, 학비, 기숙사비, 유학생수(보통 한 반의 인원은 15명 내외이나, 유학생이 적은 학교일 경우 2~3명이 한 반일 수도 있어 훨씬 유리) 등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고 본다.

보통 1년 학비 1,200\$~2,200\$, 1년 기숙사비 720\$~1,500\$(2인1실 기준), 1년 식비 600\$ 정도(그때 그때 개인 지출이며, 학교 식당 이용시 충분함).

## 2. 本科生

이 과정은 4년제 대학 과정이다.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보통 어학 연수를 마친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다. 이 과정도 내용은 거의 비슷하나, 대학 정규과정이므로 중국어가 되어 있어야 입학할 수 있다. H.S.K라 일컫는 漢語水平考試(중국어수준평가시험)를 치러

해당 학교의 요구하는 점수 이상을 얻어야 한다. 보통 H.S.K 6급(中學水平C級)이면 무난히 입학할 수 있다. 한어수평고시란, 중국 소수민족 출신이 漢族 대학에 진학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종의 영어 토플에 해당하는 중국어 평가시험인데, 외국인도 이 시험으로 평가를 받는다.

매년 중국 내에서 3~4차례 실시되는데, 응시하면 합격 불합격이 아닌 자신의 평가 점수가 나오고 이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기준을 얻은 것으로서 전국적으로 통용, 인정된다. 매년 6월 15일, 1월 15일, 7월 20일경(임시로 실시되는 해가 있음), 10월 15일에 실시된다.

1학년 신입생 입학이 일반적으로, 북경언어학원(北京語言學院)은 유일하게 H.S.K 점수가 높으면 2학년 또는 3학년으로도 편입학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어 수준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북경 대외경제무역대학 경우, 중국어 외에 英語 시험을 거쳐야 입학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이 과정에서부터는 학교 유명도를 고려해 봄직한데 소위 중국의 명문 중점대학은 北京大學, 清華大學, 復旦大學(上海), 南開大學(天津), 北京人民大學, 南京大學, 武漢大學, 中山大學, 吉林大學, 北京語言學院, 北京外國語學院 등등이고 사범대학 중에는 北京師範大學, 華東大學(上海) 등이 유명하다.

여기에서 중국의 學院은 단과대학을 말하고, 大學은 우리 나라 종합대학으로 이해하면 된다.

유학이 가능한 대학과 학과는 각 대학마다 기준 및 외국유학생 모집학과가 달라 미리 확인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중국어 문학, 현대한어, 중국사, 중국 철학, 경제학, 무역학 등에 관련된 학과의 미술, 음악 등 예술대학과 중의대학(中醫大學)에 유학이 가능하다. 입학 신청은 미리미리 해야 하는데, 실제 필요한 수속기간보다는 각 학교마다의 정원과 또 유학생 숙소의 절대부족 때문이다. 대체로 2~3월까지는 신청해야 입학할 원하는 학교에 차질이 없을 줄 안다('93년 올해 경우 4~5월에 신청했다가 숙소나 그 밖의 관계상 입학이 안 된 경우가 많았다).

### 3. 碩士研究生

이 과정은 3년으로 되어 있고,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만 35歲 이하의 대학졸업자로서 석사생 입학 시험을 거쳐 입학할 수 있다. 원하는 학교에 전공코자 하는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지 미리 알아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어 수준은 필히 H.S.K 中級 이상을 요하며 중국어 외에 시험은 전공 3과목을 치른다. 각 대학의 研究生院이나 外事處에 문의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10월부터 입학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해 1월이나 2월(올해에는 1월 9일에 전국적으로 시험이 있었다)에 시험에 응시하고, 통과하면 9월 입학이 가능하다. 우리와 진행 시기가 달라 자칫하면 시기를 놓치기 쉽다. 예를 들어 어학연수 1년을 마치고 바로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이라면, 어학 연수가 끝나는 7월에서야 수속을 시작한다면 이미 늦어 1년을 더 기다려야 입학할 수 있다. 말하자면 입학하고자 하는 시기보다 거의 1년을 앞당겨 알아보고 수속을 시작해야 한

다. 입학도 중요하나, 입학 후에 수업을 제대로 하려면 중국어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학비는 보통 1년 2,000\$ ~ 3,000\$ 정도. 보통진수생(普通進修生) 과정도 개설되어 있는데 이는 학위가 없는 연구 과정으로 1~2년 과정이며 학비도 약간 싸고 입학하기도 비교적 쉽다.

### 4. 博士研究生

3年 석사과정 졸업자로서 석사학위 소지자라야 한다. 박사생 입학 시험을 거쳐야 입학하며 학비도 다른 과정보다 비싸다. 고급진수생(高級進修生) 과정도 개설되어 있다.

이상의 유학유형 중에서 자신에 맞는 과정을 선택한 후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입학 신청을 해야 한다.

- A) 최종 학력 증명서 영문 1통
- B) 성적 증명서 영문 1통
- C) 추천서 2통 (보통 부교수 이상, 또는 저명인사 추천서 2통)

D) 각 대학의 입학 신청서(양식) 1통 위 서류를 갖춰 원하는 학교에 입학 신청을 하면 지원대학에서는 심사 후 적격자라 판단되면 입학허가서와 外國來華留學人員申請表 (보통 Jw 202表 라 하는데 국가 교육위원회 승인의 붉은 도장이 찍혀 있음)를 발송한다(대학에 따라 신청시 報名費(신청비)를 미리 송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입학허가서와 Jw 202表를 받으면 비로소 국내 수속을 시작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90일 이내 연수일 경우, 연수 출발일로부터 30일 이전에, 91일

**국내에서  
90일 이내  
연수일 경우,  
연수  
출발일로부터  
30일 이전에,  
91일 이상인  
경우는  
60일 이전에  
해당부서에  
서류 접수를  
필해야 한다.**

이상인 경우는 60일 이전에 해당부서에 서류 접수를 필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서류준비 기간 및 정리 기간까지 합한다면 약 3~4개월의 수속기간이 소요된다.

끝으로 유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물가가 차이가 나고, 생활 형태에 따라 개인적인 차가 상당히 클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어학 연수과정일 경우 보통 1년에 400~500만 원 정도면 학비, 기숙사비, 식비 이외에 유학생생활에 따른 생활비 및 용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검소한 유학생생활이라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 본다. 또 구미·대만 등지의 유학은 아르바이트로 유학경비에 보탬 수 있으나 중국은 인건비가 너무 싸고 적당한 아르바이트가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막연히 중국유학은 아주 쌀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다시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

신현자/중국여행사 담당자



사천시 성도에 있는 사천대학

## 무슨일이 있었나?

- 92년 8월 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초청으로 중국기독교협회 부회장, 총무 등 9명의 대표단이 한국교회를 방문했다. (8월 16일까지)
- 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이 정식으로 수교를 하였다.
- 92년 8월 26일 「신화사」 통신 보도, 중국의 도시인구 증가율이 4.35%에 달했고,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도시인구가 전국인구의 35.7%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 92년 8월 28일 북한, 중국인 입국 제한.
- 92년 9월 3일 연변조선족 자치주 40돌 경축대회 개막.
- 92년 9월 4일 중국 연길시에 「한국사무북무국」 설치.
- 92년 9월 4일 중국정협종교사무위원들은 이틀 동안의 전체토론회를 끝내면서 극좌 관원들이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92년 9월 12일 駐韓中國 대사로 張庭廷(56)씨 내한.
- 92년 9월 24일 북경대학, 중국인민대학, 사범대학의 학생대표들은 일본주중대사관에 공개장을 보내 일황에게 대중국 침략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하였으나 공안국에 의해 저지당했다.
- 92년 9월 24일 명동 대만 대사관 반환.
- 92년 9월 26일 한·중간의 금융분야 최혜국대우협정 체결.
- 92년 9월 27일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이 중국 북경을 방문했다.
- 92년 9월 29일 중국 연길교회서 시무하던 김성하 목사가 소천.
- 92년 9월 30일 중국은 한국과 4개 항목의 경제, 과학, 기술방면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 92년 10월 5일 중국공산당 전체회의 (13기 9중전회)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10일 폐막)
- 92년 10월 12일 중국 제14차 전국대표대회가 정식으로 개막되었다. 강택민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 발언하였다.

- 92년 10월 13일 미국 대통령 클린턴은 「중국학생보호법」에서 7만 명의 중국 유학생이 미국에서 영구 거주하도록 허가하였다.
- 92년 10월 13일 중국 인사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공동으로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사람에게 포스트 닥터 과정을 하도록 장려하겠다”고 통지했다.
- 92년 10월 23일 강택민의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보고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발걸음을 가속화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대승리를 쟁취하자」를 인민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 92년 10월 23일 아키히토 日王이 중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 92년 12월 6일 「신화사」통신 보도, 개혁개방으로 북경대학이 문을 활짝 열어 외국 유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몇년 간 약 60개 국가의 600여 명의 장기 유학생과 500여 명의 단기 유학생이 와서 공부하고 있다.
- 92년 12월 11일 중국민주축진회 7차 전국대표대회가 개막하였다. 90년대는 사회주의 건설이 관건인 시기이고 민주축진회는 중국공산당 영도하에 현대화 건설사업에 적극 투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 92년 12월 18일 중국과 소련은 연합성명을 발표하여, 서로 우호국가로 여기고, 쌍방은 상대방의 군사 정치동맹에 적대하거나 간섭하지 않기로 하였다.
- 92년 12월 21일 한국인 이관숙 목사에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최고 영예 훈장인 「孺子牛」 금황소(70파운드) 훈장을 수여하였다. 이관숙 목사는 지난 4년 간 11 개성을 순회하면서 9백16명의 중국지체장애자들에게 의수족과 보조기를 무상제작, 공급하였다.
- 93년 1월 16일 미국의 聯社 소식, 미국의 「自由之家」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보고에 의하면, 언론자유, 행동자유, 정치권리의 자유 등 각 방면에서 중국이 가장 열악한 국가였다고 한다.
- 93년 2월 6일 문화부는 각 종교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중국 등 특정국가에 대해 선교활동과 여행에 따른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 93년 2월 7일 「신화사」통신, 「中國教育報」에 따르면, 92년 대륙에 유학 온 학생수는 13,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40돌(92.9.3)을 맞이해 경축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

- 93년 2월 9일 「신화사」통신, 중국의 92년 수출입 총액은 1,656.3억 U.S\$로 세계무역 순위 11위라고 한다.
- 93년 2월 11일 한국기독교협의회 최희섭 회장과 권호경 총무는 중국기독교협회(CCC)를 방문하였다. (18일까지)
- 93년 2월 17일 중국은 天安門 민주화 시위(89년)을 주도한 王丹 등 3명을 석방했다.
- 93년 2월 18일 국가 통계국 뉴스에 의하면 92년 중국인구 자연 성장율은 1.16%로 요 몇해 중 가장 낮은 한 해였다고 한다. 또 92년 개인소득은 인민폐 2천 원이라고 한다.
- 93년 3월 1일 王文東 중국대외경제 무역부 副部長이 사천성, 호북성, 상해시 등 양자강 유역 지방의 대표 사절단 40여 명을 이끌고 방한.
- 93년 3월 2일 중국관보 <경제일보>는 대륙에 2억 명 이상의 실업자가 있음을 인정했다.
- 93년 3월 14일 제18회 전국 정치협정 일차 회의가 중국 북경에서 개막되었다.
- 93년 3월 15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북경의 人民大會堂에서 개막되었다.
- 93년 3월 28일 제8기 전인대 제1차 회의는 5차 대회를 열었다. 회의는 투표를 통하여 강택민을 국가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했다.
- 93년 3월 29일 제8기 전인대 1차회의는 6차대회를 열어 이붕을 국무원 총리로 선출하였다.
- 93년 4월 10일 중국기독교협회 회장이며, 중국인민위원회 상임위원과 인민정치자문협의회 부위원장인 丁光訓 주교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초청으로 방한. (17일까지)
- 93년 4월 12일 정광훈 주교는 “중국교회와 동북아의 평화”라는 강연에서 중국기독교인은 5백만 ~6백만 명, 교회 7천여 개소(가정교회:2만여 개소), 목사 천여 명, 신학교는 13군데가 있으며 한 해 2백 명 예비 목사를 배출하고, 현재 8백 명 정도가 신학생이라고. 또 불교 약 1억, 이슬람교 2천만~3천만 명, 천주교 3백~4백만 명이 된다고 말했다.
- 93년 4월 15일 정광훈 주교에게 연세대에서 명예철학박사를 수여

하였다.

- 93년 4월 26일 중국, 대만이 44년 만에 첫 공식 협상을 하였다.
- 93년 4월 28일 미국 <워싱턴 통신> 보도에 의하면,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몇 명의 중국인이 북한의 국경 수비대 초소병들에 의해 사살되었다고 한다.
- 93년 5월 3일 티베트 고원지대에 최근 1백년래 최악의 눈보라가 덮쳐 주민들이 피해가 많았다.
- 93년 5월 21일 중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새로 마련한 국가별 평가 체계로 산정한 결과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강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 93년 5월 24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무역 최혜국(MFN) 지위를 1년 간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다.
- 93년 5월 24일 티베트 수도 라사에서 중국의 통치 및 물가양등에 항의하는 티베트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 93년 5월 26일 錢其琛 중국외교부장이 방한.
- 93년 6월 5일 중국 소수민족 출신 간부가 228만여 명에 달한다. 이들 간부들은 각급의 영도 위치에서 각 민족 자치구의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의 핵심 역량이 되어왔다.
- 93년 6월 6일 한국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전기운 한국 방문. 92년 8월 국교 수립 후 중국 전인대와 한국 국회의 고위 층간에 이루어진 첫번째 공식 접촉이다.
- 93년 6월 8일 중국대륙의 중심부를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淮河의 이북에는 심각한 가뭄이, 淮河 이남에서 홍수가 두 달째 계속돼 대륙전역 17개 성에서 피해가 속출됐다.
- 93년 6월 11일 중국 사천성에서 1만5천 명 이상이 가담한 대규모 농민 폭동이 발생했다.
- 93년 6월 30일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는 한국교회가 중국 내 2백만 조선족을 위해 동북기독교 신학원을 새로 건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 93년 7월 3일 중국 요녕성 심양시에 위치한 심양 서탑교회(오애은 목사 시무)는 헌당식을 가졌다. 한국교회의 지원으로 6층 규모의 새 예배당으로 신축.
- 93년 7월 19일 전국신학대학협의회 (KAATS, 회장: 구덕관 교수) 대





농촌의 젊은이들이 직업을 찾아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

표단은 중국기독교협회(CCC)를 방문, 한중신학교육의 협력과 교류방향을 협의했다. (28일까지)

- 93년 7월 22일 기독교대한감리교회에서 중국교회 요청에 의해 첫 공식 선교사로 김종구 전도사를 파송했다.
- 93년 8월 5일 중국남부 경제특구인 심천에서 인쇄폭발사고가 발생. 1백 명이 숨지고 최소한 2백여 명이 부상했다고 전한다.
- 93년 8월 9일 인민일보사 사장 겸 편집장 邵華澤을 단장으로 하는 인민일보 대표단이 김영삼 대통령을 예방했다.
- 93년 9월 3일 중국 요녕성 심양시에 위치한 동북신학원 대표단이 한국 여러 교회와 합동신학교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 93년 9월 6일 중국 남경에서 열린 제1차 한·중 교회협의회에서 양국교회는 “선교협 정문”에 조인하였다. (한국측 대표로는 교회협 회장 최희섭, 총무 권호경, 국제위원장 강병훈 목사와 중국측 대표로는 중국기독교협회 회장 정광훈 주교, 부회장 심이번 주교, 한문조 박사 등이 조인했다.)
- 93년 9월 9일 중국 길림성 연길시 복산가에 자리잡은 연변조선족 기술전문대학(학장: 김진경)이 개교. 이 학교는 한국의 기독교, 학계, 기업 등이 조선족 2세 교육을 위해 설립한 것이다.
- 93년 9월 24일 2000년 올림픽 유치전에서 두 표 차이로 중국 북경이 호주 시드니에게 패배했다.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제공>

## 과천은 파선교 회를 찾아서



우리의 이번 방문교회는 은파선교교회.

좀 특이한 이름을 지닌 이 교회는 세계선교의 가치를 높이 들고, “교회재정의 60% 이상을 선교비로 사용한다. 모든 성도는 선교사로 되어 가든지 보내든지 한다. 교회

내 모든 부서는 선교조직으로 자립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봉사직은 자발적이며 희생,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안디옥교회처럼 선교의 모델 교회가 된다.” 등을 표어를 삼고 선교에 온 교회가 총력전을 기울인다는 아름다운 소문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선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중국선교에 他山之石으로 삼을 그 무엇을 찾아보기로 했다.

과천. 전원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아파트 도시, 인구 7만의 이 도시의 한결에 자리잡은 은파선교교회. 아담한 교회 건물 곁에 마치 야전군막사와 같은 느낌을 주는 가건물이 교회 사무실. 우리는 먼저 그곳 전도사로부터 이 교회의 전반적인 약사를 들을 수 있었다. 약속시간이 좀 지나, 시원시원하고 소탈한 모습의 김광덕 목사를 대면한 우리는 그의 강권에 못이겨 이 교회 지하 교육실로 내려가 점심을 신세지게 되었다. 마침 그날이 여전도회의 모임이 있었던 날이라는데, 밥, 김치국, 김치, 야채밀가루 부침 한 접시……, 아무튼 무척

겸소한 식단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가 식사를 한 그곳 교육관은 더더욱 인상적이었는데, 각국의 개략적인 소개와 선교적 필요를 담은 하나 하나의 액자가 온통 벽면을 빙 둘러 진을 치고 있었다. 그곳에 있으면 선교의 문외한이라도 어쩔 수 없어서라도 한 번쯤은 선교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를 마친 우리는 곧바로 김 목사를 뒤따라 그 야전막사(?)의 뒷층으로 가파른 간이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야 했는데, 과연 선교 일선의 야전군 사령탑으로는 걸맞는다는 느낌에 절로 웃음이 나왔다(정신 놓고 올라가면 이마가 부딪히기가 십상이다.)

앉자마자 김 목사는 이런 인터뷰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 말로 서두를 대신하였다. 목회경력도 짧고 이름있는 교회도 아닌데다, 자신이 하는 일이 선교에 다리를 놓아주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이런 일로 본의 아니게 선교 협력에 금이 가는 일이 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그는 현재 여러 교회가 협력하여 왕성한 선교활동을 펴는 바울선교회의 부회장이며 필리핀에서 진행중인 초교파적 선교센터 건립에 큰 몫을 하

고 있기도 하다).

방문자가 중국선교에 관여된 타인지, 김 목사는 우선 중국선교 얘기로 말꼬리를 돌렸다. 세계 선교 속에서 중국선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중국선교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벌여놓은 일이 많아서”라는 말로 대신하였다. 중국에 선교여행차 가고 싶어도 “감동을 받을까봐” 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의 농담 아닌 농담 속에서 그의 철저한 프로 정신이 번득였다. 그러나 이 교회는 이미 중국선교에 발을 들여 놓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교회 각속 조직마다 “보내는 선교사”化 되어 있어 그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제일 과제로 삼고 있다는데, 중국은 그 첫번째 속의 몫이라고 했다.

우선 김 목사의 세계선교 입문 동기가 궁금했다. 애초에 농어촌선교에 관심이 있었던 그가, 그것과 함께 세계선교에 부르심을 느끼게 된 것은 8년 전의 동남아 선교여행 때. 대만에 가서 한중선교연합예배를 드리다가 세계선교를 위해 젊음도, 자녀도, 재물도 바치자는 찬송가 255장에 큰 감동을 받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의 말을 빌리

**교회 각속 조직마다  
“보내는 선교사”化 되어  
있어 그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제일 과제로  
삼고 있다.**



파천은파선교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광덕 목사

자면, “여러 가지 시행 착오를 거듭하며 세계선교를 배워 가는 중”이라고 했다.

그래서 먼저 시작된 일이 각 속회의 선교지별 편성과 기도운동.

세계 선교에 눈이 열리니 교회성장이 시작되었다는 김 목사의 말은 선교를 하는 교회마다의 공통된 특징이었고 보면, 확실히 선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선교하면 하나님의 인심(?)이 후해지신다” 라는 표현이 어떨는지?

은파선교교회가 본격적이고도 구체적인 선교를 펼쳐가기 시작한 것은 지난 90년. 김 목사는 90년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으러 가는 길인 4월, 세계 선교로 이름 높은 캐나다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가 시무하는 회중교회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회중교회

처럼 선교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그 교회를 비를 맞으며 7바퀴를 돌며 두 시간에 걸쳐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게 된다.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감리교회, 한국의 종합청사가 있는 파천의 은파교회 김 목사가 이 아침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금메달을 한국에 가져가려 합니다. 중앙동의 은파교회를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곧이어 한국에 돌아와 그는 창세기 6장을 설교하며 자신과 자신의 가정은 서기 2000년까지 노아의 가정처럼 살겠노라 공개적으로 다짐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부터 은파교회는 귀거리, 코거리식 선교가 아닌 온전히 선교를 위한 교회로 시작할 것을 선언하면서, 91년도부터 교회재정의 60%를 선교에 투입하기로 하고 교회 이름을 아예 은파교회에서 은파선교교회로, 교회 속회명도 아예 중국속, 필리핀속, 방글라데시속 하는 식으로 개칭해 버린다. 이런 몇 달에 걸친 일련의 준비작업이 끝나고 91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김 목사가 선교에 있어 주안점을 두는 것은 협력선교. 선교에 눈을 뜨고 보니, 교회 단독의 선교사 파송은 선교사

선발에서부터 교육과 재교육, 안식년 노후보장 사역비 조달 등 무리한 점이 많음을 깨닫고, 주로 선교단체를 도우면서 협력선교의 길을 모색해가고 있다고 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필리핀에서 진행중인 초교파적 선교사역을 위한 선교센터 건립을 들었다. 이 일에는 한국의료선교사와 바울선교회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 달에 들어가는 돈만도 엄청나 이 일로 걱정이 많다고 하는 김 목사. 선교 때문에 걱정하니 감사한 일이 아니냐고 너털웃음을 웃어 보였다. 자기 교회의 지붕이 새도 응급처방으로 때우고 있다는데 이런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의 의문이 앞섰다. 이에는 가히 선교에 미쳤다고 할 만큼, 김 목사와 전교인의 희생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우선 김 목사를 비롯한 전교역자가 보너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김 목사 자신의 사례비는 아예 1/3을 스스로 깎아 내렸다. 교회 행정에도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교역자도 쉬는 날 없이 완전 풀가동이다. 교회 재정의 10분의 1을 차지했던 차량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 일체의 차량을 처분했다.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등 각 부서를 일

체의 보조없이 자립체제로 운영되고 그들 스스로 선교비를 감당하고 있다. 아예 에어컨도 틀지 않고 수도 전기 절약, 음식 절약, …… 등등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여기쯤에서 우리는 약간 걱정이 되어 교인들이 잘 따라와 주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서 김 목사는 온 교인이 선교하는 교회의 교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지도자가 선교의 순수한 열정으로 진실과 사랑으로 이끌어 간다면 어떤 교인이라도 그를 믿어줄 것이라고 답을 했다.

선교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개인의 공명심이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일을 한다면 그 어느 교인이 자기를 따라주겠느냐는 말씀이 자신있는 고백처럼 들렸다. 마지막으로 김 목사는 선교에 있어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였다.

그 하나는 선교하는 이들이 항상 지녀야 할 마음인,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 가지셨던 그 민망한 마음, 창자가 찢리는 듯한 아픈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는 선교에 있어 “경영 선교”가 필요함을 역설하

었는데, “동반 선교”라는 세계적 선교 경향과는 동떨어져 개교회, 개교과, 개선교단체 위주의 독립선교로 나가는 한국교회 선교행태를 걱정하였다. 언어와 문화가 맞지 않는 선교지에서 각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마음과 힘을 합해 협력선교의 길을 건도록 간곡한 말로 부탁하였다.

우리는 값진 선교의 교훈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야말로 먹든지 마시든지 오로지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에 헌신하는 김 목사와 은파선교교회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모두 선교의 후방이 아닌 선교의 일선에서 있는 자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중 기독교와 문화” 세미나를 듣고

석은혜

1993년 9월 9일(목) 오후 7시에서 9시 30분까지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주최로 “한·중 기독교와 문화” 세미나가 있었다.

먼저 중국사회과학원 종교연구소의 唐逸(Tang Yi) 교수의 “중국의 기독교와 문화”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한양대 임계순 교수(중국사)의 질의가 있었다. 이어서 서울대 손봉호 교수의 “한국 기독교와 문화”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의 질의와 나눔의 시간이 있었다.

여기서는 唐逸 교수가 발표했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날 唐逸 교수의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삼자교회는 나라에 대한 충실함과 신실함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서구의 영향과 외부세계에 대한 모든 시도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남경의 협화신학교와 북경 연경신학교 등에서 출간되는 모든 학습자료는 자연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교회가 순종을 요구하는 정부에 대해 현실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순종은 카톨릭과 개신교 모두에게 애국심이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 애국

심은 신앙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정치적 행동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신학자들은 교회의 이러한 애국적 입장에 대해 사회구원적 개념을 도입, 신앙강령의 한 형태로 그들의 입장을 정당화할 필요를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학 본래의 근본 개념을 뒤바꿀 필요까지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국가에 대한 애국심 강조는 신앙 본래의 면모와는 다른 것으로 국가에 대한 사랑, 세속적 권위를 지닌 정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해 복음의 빛에 의한 세상구원이라는 입장을 교회가 갖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시각은 단편적 고찰일 뿐이다. 중국은 사회변혁의 고통스러운 와중에 있는 나라이다. 일반적으로 서구적 시각만 가지고 중국 고유의 전통과 가치관을 무시한 채 중국의 문제를 판단한다면 이것은 오류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교회는 기독교를 더이상 외국선교사나 외국의 영향을 받는 기관에 의해 종속되는 종교로 간주하지 않는다. 중국

교회는 오직 중국적인 교회일 뿐이며, 이것이 최근에 중국교회가 이룩한 성공이라고 그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다른 위험성을 내포하기도 한다. 정치적 애국심만으로 기독교를 볼 경우 중국기독교가 동양종교의 하나로 변질되어 부드럽고 무기력해져서 결국 성경에 근거한 정통신앙 전통을 잃어버릴 위험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중국 기독교가 중국문화에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마테오 리치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서구의 신학자들은 마치 불교가 그러했던 것과 같이 중국기독교가 사회, 문화적으로 중국식 종교가 되길 바라는 희망을 품어왔다. 이러한 문화동화는 중국인의 기본적 가치관에 대한 적용과 연관되어 있다.

그럼 무엇이 중국인의 기본적 가치관인가? 이는 전통적 사고방식 즉 유가의 仁이나, 禮 그리고 도가의 道와 같은 기본관념들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들은 중국인 대다수의 생활태도와 정신적 습관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격적인 부르심이라기 보다는 무언가 알 수 없고 정의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가나 도가에서는 자연에 대한 원리들을 믿으며 이러한 자연관이 인간의 정신적 의식을 이룬다고 믿는다. 즉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방향과 자기 방어라는 것들이 자연과 인간 그리고 개개의 사물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속적 정신과 자주적인 인간관, 자연관이 중국인의 가

치 형성에 근거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중국인의 종교성향과 사회상황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중국에서의 기독교 발전 방향은 대략 다음 세 가지로 상징할 수 있다.

첫째, 기독교 신앙이 궁극적으로 중국을 복음화하고 중국 문화를 기독교 문화화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 대만의 경우를 보면 수십 년 동안의 자유로운 선교와 막대한 물질투자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신자는 겨우 2%에 불과하다. 대륙의 경우에도 이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기독교가 불교의 경우에서와 같이 결국 중국문화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이다. 성경과 말씀들은 남아 있으나 원래 의미는 변형되어 예수를 통한 구원이라는 개념이 무언가 부정적이고 인간적인 개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라기보다는 기실 새로운 또 하나의 종교가 탄생하는 셈이다.

셋째, 서구적 성격을 지닌 채 기독교가 그대로 정착되는 것이다. 즉 기독교 본래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중국문화의 큰 흐름과는 크게 상충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이 唐逸교수의 중국의 기독교 현 상황에 대한 개인적 분석이며 장래에 대한 전망이다.

그는 끝으로 또 남경신학교에서 출간한 삼자교회측의 한 자료를 제시했다. 1991년 9월 남경신학 리뷰지에 수닝(인명)이 실은 기독교와 중국문화의 관계에 관한 기사였다.

필자는 중국문화와 기독교의 통합에 대해 “주님께서 중국문화를 섭리하셔서

유가사상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문화가 예수를 받아들여 담는 하나의 그릇이 되어 더이상 인간적인 현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추구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일 교수는 이것은 명백한 근본론자의 관점이며 과거 유교의 성인들이 중국문화사상을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문화와 문명이 기독교로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는 견지에서 나온 관점으로서 평가했다.

또한 같은 잡지의 남경 삼자교회의 한 지도자가 쓴 글에서는 신학적 재정립을 위한 현 중국교회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첫째, 기독교 신앙강령의 수정과 중국 내 신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성경적 요인들과의 투쟁.

둘째, 기독교적 역사관의 중국과 실제 역사에 관한 설교.

셋째, 과거의 종파에 관한 신학적 해명.

넷째, 신령한 덕과 도덕적 의무에 관한 설교.

다섯째, 크리스천의 양심에서 우리나라 오는 사회적 책임의식의 교육.

위의 내용 중 특히 기독교 신앙강령의 수정과 기독교적 역사관의 중국에 대한 설교라는 주제는 수닝 씨에 의해 언급된 것과 같은 테마이다.

이에 대해 당일 교수는 기독교적 역사관과 신앙강령의 수정은 결국 기독교 문화가 공자, 노자 등의 사상을 하나의 도구로 삼아 그리스도 복음을 중국문화에 유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그는 기존의 중국인들이 그러한 설교

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신봉해온 전통 유가나 도가 사상으로부터 멀어질 것인지 여부는 대만의 현상황에서 파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대만과 홍콩이 과거 수십 년 동안의 자유로운 선교에도 불구하고 복음화되지 못했다면 대륙에서도 외국적 모습을 지닌 기독교 신앙으로 복음화되어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요컨대, 당일 교수가 발표한 전체적인 내용은 중국에서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점을 애기했다.

이런 그의 결론을 들으면서 한편 맥이 빠지는 듯한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나름대로 정리가 되었다. 강사의 신분이랄까 위치가 종교학을 전공한 신학교의 신학자 출신인데다가 중국사회 과학원이라는 준국가기관의 교수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의 그러한 결론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다 그가 자라온 정치, 사회적 풍토도 무형의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결론의 근거로서 제시한 대만이나 홍콩의 예와 현 중국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거나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나는 느꼈다.

그 첫번째가 중국의 개혁 개방에 따른 급격한 변화가 몰고 오는 사상적 변화와 복음 수용 기회의 확대이다.

중국은 49년 공산화 이후 78, 79년의 개방 때까지 근 30년 간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그때까지의 전통문화와 사상의 단절을 철저히 경험하며 살아왔다. 이 점은 홍콩과 대만이 거치지 못한 경험이다. 이런 중국에서 개방 이래 신앙처럼

굳어진 공산사상에 대한 회의가 젊은층  
으로부터 확산되고 있으며 그 이탈이 가  
속화되고 있다.

또한 해외 유학이나 해외 취업 등을  
통해 복음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만약 전세계가 이 귀중한 틈새에 복음을  
최선을 다해 중국에 전할 수만 있다면  
복음으로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  
는다. 만약 이 기회를 가벼이 넘기고 미  
룬다면 당일 교수가 지적한 대로 중국은  
대만과 홍콩의 선례를 따를 위험도 물론  
있을 것이다. 나는 당일 교수의 변하지  
않을 중국문화의 전제를 믿기 보다는 오  
히려 기회를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둘째로는 성령의 역사라는 신앙적 관  
점이다. 풍랑 이는 바다만을 보는 자는  
결코 물 위로 걸어갈 수 없다. 공산화  
이전 70만이던 신도가 현재 6천만으로  
추산되는 숫자로 붙어났다는 것은 무엇  
을 의미하는가? 현실적인 눈으로 본다면  
혹독한 탄압하의 교회는 이미 죽었어야  
했다. 비록 당일 교수가 중국의 많은 교  
인들을 중국인들이 흔히 갖는 기복신앙  
적 수단으로서의 종교를 갖는 것쯤으로  
그 의미를 축소시켰지만 그것은 결코 올  
바른 평가는 아니라고 본다.

최근 물질만능의 풍조가 중국에 급속  
히 스며들면서 그런 rice christian들이  
점차 생겨나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나 우  
리는 기존의 대다수 신자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기독교 신앙을 선택한 사람  
들인 것을 그들의 간증과 여러 증거를  
통해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므로 이날의 당일 교수의 강연은  
우리가 왜 중국에 복음을 그것도 시급히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중국교회 안에서)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강한 도전을 주었  
다고 생각한다.

여리고 성과 같이 버티고 있는 저 철  
옹성 문화와 사상의 중국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대로 충실히 순종해 최선을  
다해 중국에 복음을 전한다면, 성령께서  
그날에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중  
국의, 모든 하나님 위에 높아진 문화의  
벽을 깨버리시고 복음으로 중국을 새롭  
게 하시리라고 굳게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국을 위해 끊임없  
이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  
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 중국선교의 이해

유소중

우리가 중국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일을 수행할 것인가?

먼저 말씀을 통해 조명해 보면서 저 개인의 의견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요한복음 10장16절의 말씀을 펼쳐 보자.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 하신 말씀이다.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 쫓겨난 심령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실 때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일을 위에서처럼 동물적 비유를 들어 목자가 양을 인도해 낸다든지, 어부가 고기를 낚는다든지, 혹은 식물적 비유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 반석들로 광물적인 용어로써 비유하기도 한다.

아무튼 위에서 말씀하신 “이 우리에게 들지아니한 다른 양들”은 누구인가? 이는 지역과 종족 또한 시공을 초월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지금 한국 안에도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양들이 있다. 그리고 저 중국 안에도 그러한 수많은 양들이 있다. “중국을 주께로”라는 표현은 바로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수

많은 중국인들을 향한 강한 호소력이 있는 표현이라고 느껴진다. 지금 중국은 잘 알다시피 개방의 물결 속에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되어 가고 있는 전환기에서 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중국의 경제부흥과 발전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계획하고 온갖 지혜를 동원해 돈벌기 위한 전략을 짜느라 여념들이 없다.

이처럼 그들은 없어질 세상의 재물을 얻기에도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중국의 저 엄청난 양들을 얻기 위해 것처럼 혈안이 되어 있는가.

이 중국 안의 잃어진 양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한 목자에게 있게 하는 사명은, 그 이하도 이상도 없는 주님의 최대명령으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대사명이다(마28:18~20). 이때 우리에게 만약 저 영혼들을 향한 구령의 열심이 없다면, 선교사역은 몹시 피곤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눈으로 보이는 대가도 보상도 없지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될 줄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그 상급에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먼저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은 어떠한 나라 인가?

잘 아시다시피 960만km<sup>2</sup>의 광대한 땅에, 이리 때가 들끓는 살육의 광야 속에 주인의 보호와 위로를 안타깝게 기다리는 양들이 헤메고 있는 곳이 중국이다.

그곳에도 주님의 양 우리 곧 교회가 있다. 교회 역사적으로 살펴 볼 때 1949년 공산정권이 들어서, 온통 교회가 소멸되다시피 했지만 오늘날 그양의 숫자가 감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 일로에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자 없으신” 그 손에 일곱 별을 쥐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흑심한 꾀박과 환란 속에서도 중국의 교회와 그 지도자들을 보호하셨다는 이야기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비록 보이는 “우리”들은 철거될 수 있으나 보이지 않는 “영적 우리”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공산정권을 비롯한 그 어떤 것에도 좌지우지 되지 아니한다. 많은 사람이 말하길 “공산정권의 중국이 더 개방되야 선교할텐데……”라는 선교의 선입관을 지니고 있다.

그 다음으로 중국은 56개의 종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일반적으로 漢, 滿, 蒙, 回, 壯族으로 그 분포세력이 큰 종족을 들지만 그 가운데 漢족이 무려



여러 선교단체가 협력하여 방한중국교포들을 초청해서 점심을 대접하고, 복음을 전하였다.

14억 중국 인구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한족의 우리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갈 것이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에 있어 그것이 인구 200만의 조선족에 치중되고 있어 한족을 향한 선교는 좀처럼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아무튼 우리가 선교를 말할 때 선교학자들은 다음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자국 동문화권 선교이다. 자기 나라의 동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한국에도 아직 수많은 무교회 지역이 있다. 이들에게 선교함을 일컫는다.

둘째, 이국 동문화권 선교이다.

미국의 교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것이 곧 이국 동문화권 선교이다. 물론 저 자신도 이

런 선교를 하고 있는 셈이다.

셋째, 이국 이문화권 선교이다. 만약 한국인이 한족에게 선교한다면 바로 이국 이문화권 선교를 하는 셈이다. 이 이국 이문화권 선교는 무척 어려운 선교이다. 가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말할 수 없는 설움과 눈물이 뒤따른다. 이는 체험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선교사란 반드시 이국에 가서 살아야만 꼭 선교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 선교국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탕자의 비유를 잘 안다. 탕자는 언제부터 탕자였는가? 그가 집을 떠날 때 곧 탕자가 되었는가? 또 탕자는 언제부터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는

가. 그가 집에 도착해 아버지의 영접을 받는 순간부터 다시 아들이 되었는가? 아니다. 그가 그런 결과에 이르기 전 이미 탕자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을 가질 때 부터이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아직 중국에 가지 않았어도 아직 주님의 우리에게 있지 않은 저 중국의 영혼들을 향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이 선교사역에 어떤 형태로든 협력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들이야말로 바로 선교사들이다.

만약 선교사가 비록 중국에 간다 하더라도 이런 마음이 없다면 어찌 그들을 선교사라 부를 수 있겠는가. 다음으로 우리가 중국 선교를 수행해 갈 때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분별력이다. 나는 가끔 한국인들로부터 “당신은 중국인으로서 왜 중국에 가서 선교하지 않는가? 한국인들은 말은 통하지 않아도 믿습니다 하고 가지 않는가”하는 어찌면 그럴듯한 질문을 받은 한 다. 그럴 때면 나는 말쑥을 펼친다. 그리고 기도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한국에서 중국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단체들과 협력해서 터전을 잡는 일을 기뻐하심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빌딩 올라가는 것보다 중요함을 느낀다. 다시 말하면 중국선교를 할 때, 우리가 어디 서 있는가를 결정할 때 인간적인 논리에 기초를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

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선교는 백인들이 주도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선교학자들은 복음의 최대 수요국인 중국인과 복음의 최대 저력국인 한국인이 만나야 세계선교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것으로 교만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 주시는 선교사역의 변천일 뿐이다. 또한 많이 주신자에게 많이 요구 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에 기인한다. 많이 받았다고 자족할 것이 아니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제 많은 한국인 사역자가 일어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부르짖고 헌신하는 역사와 그들이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사역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문제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두 가지만 물으신다. “네가 원하는가 원하는가?”

그 일이 크거나 작거나 문제가 아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또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사명을 받아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곧 낙심과 좌절로 돌아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한다. 말 한마디로 선교의 씨를 키울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불타는 선교열에 찬 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중국선교는 참으로 어려운 길이다.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가 도전해 나가야 하고 부단히 애써야 한다.

한 작은 예를 들고 싶다. 내가 한 삼십 년 한국어를 배웠지만 나는 지금도 틈틈이 한국어공부를 계속한다. 또 여러 중국 단체에서 오는 간행물들을 오는 대로 즉시 정독은 못해도 통독은 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루게 되고 후에는 그 귀중한 메시지들이 쓰레기통에 가기 십상이다.

끝으로 내가 한국교회의 중국 선교를 보고 느낀 점과 이에 따른 충언을 드리고 싶다. 먼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한국교회의 중국선교가 적신표 상태에 들어와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비유컨대 지리조건을 모르는 곳에서 과속운전을 하고 있다고 나 할까. 중국이란 나라를 다 이해하기도 전에 선교를 급히 서두르다 보면 언젠가는 그 과속운전의 대가를 반드시 치루게 되리라는 점을 되새겼으면 한다. 그러므로 중국선교에 앞서 중국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무형문화가 중국인의 사유를 지배한다. 여기에 한국인들이 뜨거운 국을 들면서 “아, 시원하다.”를 표현할 때 외국인이 그것을 사전에서 찾아내기 힘든 것처럼 말이다.



돈을 벌기 위해 직업을 찾아 도시로 올라온 중국 젊은이들. 그러나 할 일을 찾지 못하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기에 오늘 선교국에서 선교할 때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신학적 대립문제라기 보다는 그 문화적 충돌문제이다. 그들이 기독교 신앙이 싫어서가 아니라 선교사들이 내세우는 기독교 문화가 그들의 문화와 도무지 융화되지 않기에 기독교 신앙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선교현장의 체험을 거친 분들의 실제적 체험과 검증을 거친 선교서적들을 충분히 접해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 스킨러 경험담을 들어 보자.

“순수한 이성이 없고 순수한 지성이 없는 것 같이 순수한 문화가 없으므로, 우리의 특정 문화만을 주장하는 것은 선교역사 현장에 큰 무리다.”

다시 말해 우리 것만이 옳고 순수하며, 우리가 그 신앙을 대표한다는 식의 의미에서 한국교

회의 중국선교가 위험수위에 이르지 않았나 염려된다. 이런 과속선교에 대한 진단이 빠를수록 선교생명엔 연장된다고 믿는다. 그것은 또한 선교현장에서의 과속선교를 발견하고 그 속도를 늦추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지리, 환경, 문화의 이해와 파악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중국선교 현장에서 문화적 충돌의 골만 깊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어문선교회의 정기 세미나나 선교 간행물, 훈련원 등의 사역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언어훈련 문제이다. 일전에 내가 간여되어 있는 중국선교연구원에서 훈련원생을 받아들여 많은 경비와 인력을 투입하며 훈련시키면서 마음아프게 느낀 점이 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

이, 쉽게 말해서 뼈를 깎는 고통 없이, 어떤 대가의 지불없이 결과를 쉽게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어를 몇 개월 해야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급하다. 언어는 절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14억의 94%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그들이 100%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마한 수고를 해야 할 것인가?

선교는 분명히 훈련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3만 2천의 군대를 사용치 않으시고 300명의 정병을 택하신다.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 한 사람을 택하셔서 중국내륙 선교의 큰 일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비록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또한 우리의 선교사역의 평가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분명해야 한다. 누가 먼저 가느냐가 선교의 평가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대로 이를 위해 훈련하고, 보다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힘을 기르고 준비하여 순종함이 필요하다. 중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모리슨이 7년 만에 한 명의 중국인 회심자를 얻은 것을 기억하라.

끝으로 선교 사역자들에게 몇 가지 부탁드림으로 끝맺을까 한



마땅한 소일거리를 찾지 못한 노인들이 카드놀이를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중국 어딜가나 흔히 볼 수 있다)

다.

첫째, 전문화의 시대를 맞아, 여러분이 가진 전문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것이다. 사울이 바울된 이후 그는 자기가 갖고 닦은 모든 지식을 온전히 주님께 바쳤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들은 풍월대로 선교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 중국 선교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육체적인 건강관리에 **힘쓰라**는 것이다. 건강한 몸은 사역의 기초이다. 무리하거나 혹사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기를 **힘쓰라**.

셋째, 영력 기르기 **힘쓰기**를 권한다. 저 중국은 악령이 우글거리는 땅이다. 남의 심령을 꿰뚫고 주님이 주신 지체로 분별하며 때로는 말씀의 능력으로 저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영력을 얻어야 이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넷째,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협력하기**를 권한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한 선교라는 공동 목표를 추구해 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교회, 우리 선교단체만의 정보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유익이 그 무엇이든 다른 지체들에게 기쁨으로 나눌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선교에 내 자리 네 자리가 따로 있

겠는가? 베드로의 배가 깊은 그 물을 끌어올릴 때 힘이 부족해 그 옆에 고기잡는 다른 동역자를 불러 함께 어획의 풍성함을 나누고 주님께 영광 돌렸던 사실을 기억 하자.

오늘 우리는 황금어장의 대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말씀을 통해 앞서의 여러 지적사항을 직시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유소중/영동포 중화교회 목사

(이 글은 지난 8월 30일 중국어문선교회 정기 세미나의 강연을 정리한 것입니다.)

# 각 지역별 선교전략

강성광

나는 전에 중국 선교를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어떤 지역으로 가야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연했다. 그러나 선교지에 나와서 중국을 연구하면서 지역적 구분과 함께 나 자신의 선교 지역을 정할 수 있었다.

왜 이런 지역 구분과 전략이 필요한가 하면 중국은 땅이 워낙 넓고 그 지역마다 문화, 언어, 경제적 차이, 종교 등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중국을 보고 각 지역에 맞는 사역 전략이 있어야만 한다. 현 중국 행정단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등 30개로 크게 4 구분을 해 보았다.

## 1. 동북 지역

북경시, 천진시, 허북성, 산서성, 내몽고,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으로 전체 면적은 186만km<sup>2</sup>이고, 전체인구는 약 2억 2천 2백만 명 정도 된다. 이 지역은 북경, 천진 등 대도시가 있고, 조선족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 본 곳이고, 또한 한국 사역자들의 관심의 초점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다. 또한 한국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언어도 북쪽의 내몽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북경어가 표준어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더욱이 조선족들이 전지역에 흩어져 살아 북경 표준어나 한국말이 잘 통해 언어 부담이 적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적응하고 활동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이 지역의 적절한 선교 전략은 우선 인적 교류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한국 유학생이나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선교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미 가 있는 유학생들이나 기업인들이 선교의 부담을 가지고 그들의 학업과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역의 기회를 찾아 현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돕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다. 또 나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좀 더 구체적인 준비와 선교 전략을 세워 나간다면 그 지역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상당히 많은 한국 사역자들이 언어가 준비되지 않아 조선족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통하여 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조선족 지역은

조선족 사역을 목표로 해야지 한족 사역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하며, 지나친 기대라고 생각한다. 물론 북경이나 일부 도시 지역에서 특별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족과 조선족이 서로 배타적이고 대부분의 조선족 사람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민족 문화를 초월하여 다른 민족을 상대로 효과적인 사역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사실 200만이 넘는 조선족 자체 사역만 해도 상당히 많고 중요하다. 그리고 조선족을 대상으로 사역한다 해도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배워야만 쉽게 접근하고 깊이 있는 사역이 가능하다.

가장 복음화가 안된 내몽고 지역 선교는 몽골 사역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인이 가장 배우기 쉬운 외국어가 몽골어라 하는데 몽골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중국에 들어와 전체 몽골 인구의 두 배 가까이 되는 500만에 이르는 중국 안의 몽고족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도시 중심의 학생 사역 등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특히 북경 같은 지역은 많은 학생이 들어가 있지만 중국에서 가장 감시와 통제가 심한 지역이다.

**2. 서북 지역**(내몽고 일부분, 신장 위구르자치구, 청해성, 감숙성, 영하회족자치구)

면적은 약 340만 km<sup>2</sup>이고, 인구 8,650만으로 가장 넓은 지역에 가장 적은 인구가 살고 있다. 이 지역은 전체인구



중국은 개혁, 개방과 함께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  
(운남성 수출품 박람회장 앞에 몰려있는 사람들)

의 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회교 및 불교를 믿고 있고 20개 이상의 소수민족이 흩어져 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미전도 부족으로 남아 있다. 이들 중 15여 개에 이르는 소수민족이 우랄 알타이어계 군으로 한국 사람이 가장 접하기 좋은 부족들이다.

사실 이 지역은 세계에 남아 있는 미전도 부족 가운데 가장 접근하기 어렵고, 또한 전하기도 어려운 위그르족이 760만 가까이 된다. 이들은 거의 다 회교를 믿고 있으며 성경 번역은 50년대에 되었지만 오래된 구문이라 새로운 번역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 전지역에 흩어져 있는 900만이 넘는 회족(아랍계 민족) 인구 가운데 반에 가까운 400만 이상의 회족이 영하 회족 자치구에 살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최소한 300만 이상의 회교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대부분 목축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청해성의 450만 인구가 있는데,

그들 중 상당수가 서장족이라 라마 불교를 신봉한다. 그들은 극히 빈곤함에도 수입이 생기면 술을 마시고 라마 절에다 바친다고 한다. 특히 지난 3월말 경 엄청난 한파와 폭설로 수백만의 소와 양이 폐죽음을 당하고 초원이 훼손당하여 복구가 되려면 최소한 3년이 걸려야 한다고 한다.

이 서북지역의 선교 전략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많은 소수민족의 어군이 우리말과 비슷하므로 한국인 사역자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하여 그 소수 민족을 복음화해야 한다. 그들에게 직접 접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도시에 나와 공부하는 소수민족 학생을 전도하여 제자 훈련을 시켜 보내는 방법이 사실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다른 방법으로는 감숙성과 섬서성의 헌신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훈련시켜 보내는 것이다 사실 이 지역 선교의 대부분을 그들이 하고 있다. 감숙성은 신장 지역과 청해성을 맞대고 있으므로 지역적으로 접근하기 가장 쉬운 지역이다. 감숙성은 중국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 중에 한 곳이지만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복음을 위해 살고 있다. 그 지역의 한 전도자는 본래 도시 사람인데 산골의 가난한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몇 년 동안 토굴에 살면서 사역을 한다고 한다.

또한 섬서성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켜 선교사로 보내는 일이다. 서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근래들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 부흥이 일

어나고 있다. 근래에 서안 지역의 한 시골 현의 젊은 청년들이 가정교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현지 공안원이 들이닥쳐 체포되고, 그 중 청년 자매 2명과 형제 3명이 체포되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정도로 되었고, 그중 22세 된 한 형제가 너무 맞아 순교했다고 한다. 이 지역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 당할 길 원하는 그리스도인을 도와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 선교를 감당하도록 돕고 격려하는 것이 그 지역의 가장 효과적인 선교 전략일 것이다.

### 3. 화동 지역(산둥성, 하남성, 안휘성, 강소성, 절강성, 강서성, 복건성, 상해시 호북성)

면적 111만 km<sup>2</sup>, 4억 6천5백만의 인구에 제일 작은 면적에 제일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중국에서 가장 큰 양자강과 황하를 끼고 있어 비옥한 토지와 좋은 환경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긴 해안선을 따라 일찍 개방이 되었고, 기독교 복음도 1800년대 중반에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 처음 이 지역 연안에서 전해졌다. 그래서 절강성과 강소성은 중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다.

내륙 지역에 속하는 하남성은 중국에서 가정교회가 가장 많고 활발한 지역이다. 이 지역의 기독교인은 중국 전체의 80% 가까이 된다. 이 지역에서는 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볼 수 있는 많은 양의 지도자용 훈련 서적이나 참고서적의 전달사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성경 공부 훈련 및 효과적인 제자 훈련 및 기본적인 신학 훈련을 시켜 계속적으로 복음이 확산되도록 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지역은 기독교인이 제일 많을 뿐 아니라 이단도 제일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다. 여전히 농촌 가정교회가 주를 이루는데 최근 개방화되면서 급격히 도시화되는 현상 가운데 도시 사역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젊은 대학생이나 지식인 기독교인들을 훈련시켜 이런 모순을 극복하고 사역의 극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산동성에 수백 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상해 지역도 상당히 많은 기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좀 더 준비되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직업인으로 들어가 조 선족이나 한국인 사역을 초월하여 중국인 사회에 깊이 접근하여 그들을 도와 사역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화동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나아가서 중국 서북 지역이나 서남 지역으로 훈련된 자들을 재파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이 지역의 가정교회 지도자 그룹이 연합이 되어 젊은 형제 자매들을 훈련시켜 중국 전지역에 상당히 많은 수를 파송하고 있다.

#### 4. 서남 지역(서장자치구, 사천성, 운남성, 귀주성, 호남성, 광둥성, 광서자치구, 해남도)

마지막으로 서남 및 화남지역이다. 이 지역의 면적은 296,4만  $\text{km}^2$ 이고, 인구는 약 3억 9천2백만 정도 된다. 이

지역은 면적도 두번째로 넓고 인구도 두번째로 많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광둥성과 해남도를 제외하고는 최근 들어 급속히 개방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원과 인구가 상당히 많아 상당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지만 대부분 내륙 지역의 농촌이 아직 아주 가난한 편이다. 특히 이 지역은 세계의 지붕이라고 일컫는 티벳의 서장족을 비롯하여 40여 개의 소수민족이 밀집하여 살고 있다. 그 중 운남성은 23개의 소수 민족이 살고 있으며,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수가 많은 장족은 광서장족자치구에 1천6백만 명이 있다.

이 지역의 기독교인은 서장 지역과 광서자치구를 제외하고는 전지역에 적은 숫자이지만 흩어져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운남이나 귀주의 일부 소수민족은 과거 선교사들의 헌신된 사역을 결과로 상당히 많은 수가 기독교인이다.

이 지역의 적절한 선교 전략은 호남, 귀주, 사천, 운남성에서 도시에 있는 지식인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돕고 훈련시켜 그들이 계속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는 재생산 체계를 만들어 그 지역 자체 복음화를 이루도록 하고, 더 나아가 농촌 지역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도록 해야겠다.

좀 더 구체적인 접근 방법은 이 지역 대부분의 지역이 기후나 음식면에 한국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므로 학생 신분이나 기타 적은 투자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장기적으로 그 도심 지역에 머무르면서 언어 훈련을



신이 되어 나타난 모택동(운전기사들은 모택동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고 그의 사진을 차안에 걸고 다닌다).

하며 사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것은 그 지역이 북경 지역과 상당히 떨어진 서남 지역 이면서도 운남, 귀주, 사천, 호남, 광서 북부 지역의 언어가 북방어 계열에 속하기 때문에 북경의 표준에 준하는 언어를 배울 수 있어 학생들의 진출이 바람직 하다.

또한 광동성, 심천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한국 기업이 들어가 있으므로 그들과 연합하여 훈련된 전문 직업인으로 들어가서 서남 여러 성에서 온 노동자 및 지식인들에게 전도하고 제자화하여 전략적으로 돕는다면 그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다.

특별히 이 지역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되고 어려운 지역은 서장자치구와 광서자치구이다. 서장은 평균 해발 5,000m 이상의 고산 지역에다가 대부분 유목 민족이고, 인구 밀도도 중국에서

가장 적은 450만 명이 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라마교를 신봉하고 그들 문화와 생활 풍습 등 모든 면에서 라마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서장지역을 포함하여 여러 지역에 흩어진 서장족이 5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 기독교인은 500명도 안 된다고 한다. 그 큰 서장자치구에 단 한 곳의 작은 예배당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운남, 사천, 감숙성에 살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이들을 잘 훈련시켜 서장 지역으로 보내 그들 족속에게 복음 전하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은 광서자치구이다. 이 지역은 장족 소수 민족이 1,600만 명이 되고 전체 인구는 4,200만 정도되는데, 기독교 인구는 5만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지역은 광동성과 접하고 있으며 해안을 끼고 있지만 오랫동안 월남과 전쟁을 했고 자치구의 보수성 때문에 일찍이 개방되지 못했다. 그러나 근래들어 빠르게 개방과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해남도과 광동성을 끼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투자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광서의 북해시가 앞으로 운남, 사천, 귀주, 호남성의 유일한 수출입 항구로 개발이 되면서 중국에서 가장 투자 열기가 있는 지역이기도 한다.

이 지역 사람들은 비교적 순수하여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집중적인 사역이 필요한 지역이다.



중국은 교통 질서가 문란하다(도로에 버스, 자전거, 우마차가 함께 다니고 있다).

## 5. 맺는 말

한 작은 지역이나 부족 집단의 선교 전략을 세운다 하더라도 많은 연구와 여러 방법의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거대한 중국 대륙, 56개 민족의 12억 이상의 중국인들을 위한 선교 연구 및 전략이 거의 부재(한국인 사역자들에게)한 것을 감안하며 간단한 구분과 극히 개략적이고 원칙적인 방법과 필요들을 고찰해 보았다.

선교사 이전에 우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듯이 우리도 중국에서 구체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중국 전체를 품는 마음과 안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개방되거나 변할 것을 생각하며 선교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현상황 가운데 어떻게 장기적으로 중국인들을 돕고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국 당국은 외국 선교사를 허용하지 않고 적대 세력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같이 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내가 중국인과 중국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앞에서 많이 언급했듯이 사업인으로, 또는 학생으로 기타 합법적인 신분으로 거주하면서 중국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방법과 재능으로 중국인을 섬기며 주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준비하며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

감성광/중국어문선교회 파송선교사

# 소수민족 개관

## 1. 소수민족 인구

'소수민족'이란 중국 한족 이외의 인구 숫자가 적은 민족의 총칭이다. 현재 중국의 소수민족은 모두 55개가 있다. 인구는 약 8,500만으로서 전국 총 인구의 8% (1987년 조사결과)를 차지한다. 각 소수민족의 인구수는 다소 일정치 않으며 큰 차이를 나타낸다.

중국 55개의 소수민족 중에서

\* 인구가 천만 이상이 되는 민족으로는 : 장족(壯族)

\* 인구가 천만 이하, 백만 이상인 민족은 : 몽고족(蒙古族), 회족(回族), 장족(藏族), 위구르족(維吾爾族), 묘족(苗族), 이족(彝族), 포의족(布依族), 조선족(朝鮮族), 만족(滿族), 동족(侗族), 요족(瑤族), 백족(白族), 토가족(土家族), 하니족(哈尼族)으로 14개의 민족이 있다.

\* 인구가 백만 이하, 십만 이상인 민족으로는 : 허사크족(哈薩克族), 타이족(傣族), 리족(黎族), 이수족(傈僳族), 와족(佯族), 쉰족(畬族), 고산족(高山族), 라후족(拉祜族), 수족(水族), 등상족(東鄉族), 나



와족 아가씨

시족(納西族), 끼르기즈족(柯爾克孜族), 토족(土族), 강족(羌族), 의 14개 민족이다.

\* 인구가 십만 이하, 만 이상으로는 징포족(景頗族), 따위얼족(達斡爾族), 무로족(仫佬族), 포랑족(布朗族), 샬랍족(撒拉族), 모남족(毛南族), 거로족(仡佬族), 석백족(錫伯族), 아창족(阿昌族), 푸미족(普米族), 따지크족(塔吉克族), 누족(怒族), 우즈베크족(烏孜別克族), 어원커족(鄂溫克族), 떠앙족(德昂族), 유고족(裕固族), 징족(京族), 지늬족(基諾族)으로 18개의 민족 있다.

\* 인구가 만 이하의 민족으로는 보안족(保安族), 따따르족

(塔塔爾族), 두룽족(獨龍族), 오르손족(鄂倫春族), 먼빠족(門巴族), 뤼빠족(珞巴族), 로씨야족(俄羅斯族), 허저족(赫哲族)의 8개 민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1982년 인구조사 통계)

## 2. 중국 소수민족인구의 분포 특징

1) 분포지역이 광활하다.

전인구의 8%만을 차지하는 소수민족은 전국 현급 행정구역의 모든 곳에 분포되어 살고 있으며, 대다수의 현에는 두 개 이상의 민족이 있다.

2) 분포가 지극히 고르지 못하다.

서북과 중남지방의 소수민족인구는 각기 전국 소수민족인구의 30.1%와 29.4%를 차지하며 화동지방의 소수민족인구는 1.9%밖에 되지 않는다. 소수민족인구는 주로 요녕성, 길림성, 내몽고, 신장, 영하(寧夏), 광서(廣西), 서장(西藏), 운남(雲南), 청해(青海), 사천(四川), 귀주(貴州), 간수(甘肅), 호남(湖南), 호북(湖北), 하북(河北), 해남(海南) 등 성과 자치구에 분포되어 있다.



지부족(소수민족촌에서 그들 고유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3) 대부분 혼합거주하며 소수가 집단거주하고 있다.

중국 각 민족은 수천년의 끊임없는 상호간의 접촉을 통하여 각 민족이 섞여서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형태를 이루기도 하였다. 어떤 소수민족은 집중적으로 한개 지역, 혹은 몇개 지역에 살거나 또는 기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

4) 민족 지역의 인구밀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1982년 인구조사 통계에 의하면 자치지방의 인구는 12,007.1만 명(그 중 소수민족의 인구가 5,007.5만 명)으로서 전국 인구 총수의 11.9%를 차지하는데, 이는 평균 매 평방 km에 20인으로서 전국 평균 밀도 105인의 5/1에 해당하

는 것이다. 더군다나 각 민족간의 인구 밀도차이는 매우 크다. 광서장족(廣西壯族) 자치구가 1982년,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민족 지역으로 전국 인구 평균 밀도의 54.9%를 초과하였다. 그러나 인구밀도가 제일 낮은 서장 자치구는 전국 평균 밀도보다 98.5%가 낮다. 광서장족 자치구의 밀도는 서장 자치구의 98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소수민족 지역의 자연 자원

1) 중국의 소수민족 지역은 토지가 넓으며 지극히 풍부한 자연 물질자원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중요한 물질 기초를 제공하였다.

2) 수력자원 방면에서는 민

족 자치 지방의 수력매장 총량이 3,547kw로 전국 총량의 52.5%를 차지한다(1988). 유명한 하류(河流), 예컨대 장강(양자강), 황하, 흑룡강, 타림본하(塔里本河) 란창강(瀾滄江) 등은 모두 소수민족지역에서부터 발원하거나 통과한다.

또한 많은 유명한 호수, 예컨대 청해호(青海湖), 라포박(羅布泊), 후룬배르호(呼倫貝爾湖), 양취융호(羊卓雍湖), 나무호(納木湖), 이해호(洱海湖) 등은 모두 소수민족지역에 있다.

3) 소수 민족지역에는 농업 발전에 적합한 기름진 땅이 있는데, 농경지화 된 토지 면적으로는 2.53억 묘(토지 면적의 단위. 1묘는 6,000평방尺 즉 6,667 a에 해당함) (1988)가 있으며 아직까지 4억의 황무지

가 개발을 기다리고 있다. 각기 벼, 밀, 쌀보리, 콩, 목화, 식물유, 기름야자, 사탕수수, 담배, 고무 등 많은 농작물을 생산하고 있다.

내몽고는 중국에서 중요한 감채(사탕무) 생산지 중의 하나이다. 신강은 중국에서 긴 棉絲 주산지이며, 광서는 사탕수수 생산지 중의 하나이다. 운남 소수민족 지역은 전국에서 담배, 차의 생산으로 유명하다. 영하의 저명한 특산물로는 구기자, 감초 등을 들 수 있다. 소수민족지역에서는 또한 각종 유명한 과일, 약재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자원도 매우 풍부하다. 예컨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팬더, 희귀한 아시아 코끼리, 꽃사슴, 동북호랑이, 공작새, 원숭이, 긴 팔원숭이 등 진기한 동물들이 모두 소수민족지역에 살고 있

는 것이다.

4) 소수민족지역의 초장 면적은 약 45억 묘(그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31억 묘)로서 전국 초장 면적의 94%를 차지하는데, 소, 양, 면양, 야크, 말, 낙타 등의 짐승을 생산한다.

중국 삼림의 대부분은 소수민족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모두 7억 묘가 넘는데, 이는 전국 삼림 총 면적의 41.6%를 차지하며 목재 가용량으로는 52억<sup>3</sup>로서 전국 저축량의 약 51.1%를 차지한다. 소수민족지역의 광산자원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 종류도 많으며 품질 또한 높다. 현재 이미 탐사된 철광석의 매장량은 56억 톤을 넘을 뿐만 아니라 석탄의 매장량은 2,540.86억 톤, 석유 지질매장량은 8.37억 톤에 달한다. 비금속 광산자원도 매우 풍부

하다. 영하의 석고(石膏), 내몽고의 천연소다, 철명반과 인광석, 서장의 봉사(硼砂)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전국에서 모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 소수민족지역에는 또한 많은 관광, 명승지가 있어서 여행업 발전에 좋은 조건을 제공해 주었다. 예를 들면 서장의 주목량마봉(珠穆朗瑪峰), 운남의 서산용문(西山龍門), 진지(滇池), 석림(石林), 귀주의 황과수폭포(黃果樹瀑布), 해남성의 녹회두(鹿回頭) 천애해각(天涯海角), 끝없는 내몽고의 대초원, 광서의 계림(桂林), 양삭산수(陽朔山水) 등을 들 수 있다.

#### 4.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전 소수민족 지역사회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전, 중국 소수민족지역의 사회경제 구조는 매우 복잡하였다. 각 민족의 사회발전은 지극히 고르지 못하나, 대체로 4가지의 사회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봉건지주경제, 봉건농노제, 노예제와 원시공동사회의 잔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 구조가 봉건지주경제로 된 민족은 장(壯), 회(回), 위그루(維吾爾), 조선(朝鮮), 만(滿), 포의(布依), 백(白), 토가(土家), 동(侗), 묘(苗) 등의 30여 개 민족과 몽고족(蒙古族), 이족(彝族),



위그르족 아이들

리족(黎族)의 대부분과 장족(藏族)의 일부분으로 약 3,000만의 인구가 있다.

봉건농노제로 된 민족은 장족(藏族), 타이족(傣族), 하니족(哈尼族) 등 약 400만의 인구가 있으며, 내몽고의 일부지역은 아직까지도 봉건 목노(牧奴)제도가 남아 있다.

노예제는 주로 사천성과 운남성의 크고 작은 량산(涼山)이족(彝族)지역에 있으며, 인구는 약 100만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전 원시 공산제의 잔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소수민족으로는 운남성 변강지역의 두룽족(獨龍族), 누족(怒族), 리수족(傈僳族), 징파족(景頗族), 와족(佯族), 부랑족(布朗族), 지뉘족(基諾族), 내몽고지역의 오르손족(鄂倫春族), 어원커족(鄂溫克族) 및 흑룡강 지역의 허저족(赫哲族) 등이 있다. 그리고 또한 해남성(海南省)의 리족(黎族)의 일부분과 대만에 일부분의 고산족(高山族)이 살고 있는데, 인구가 약 60만이다.

## 5. 소수 민족지역의 국민 경제 발전

신중국의 성립 후, 특히 당의 11기 3중全會 이후 소수민족지역의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자력갱생, 난관극복으

로 역량을 발휘한 결과 경제가 신속하게 발전하였으며 인민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개선이 되기도 하였다.

1979년부터 1989년까지 민족자치 지방 전민 소유제 단위의 기본 건설투자 총액은 954.2억 원에 달한다. 이는 1950년부터 1978년까지의 28년 간의 총투자 580.20억 원보다 374억 원이 더 증가된 것이다. 1989년 전국 민족 자치지방의 공농업 총 생산액은 2,034.1억 원(당시 가격으로 계산)으로서 1949년의 36.6억 원보다 21배가 증가되었다.

1981년부터 1988년까지 매년 평균 9.7%증가함으로써 민족자치 지방의 '15'부터 '55' 계획 시기인 28년 간(1953-1980年) 매년 평균 0.6% 증가의 발전을 초래하였다. 1989년 전국민족 자치지역의 사회상품 총 판매액은 752,98억 원으로서 1981년부터 1989년까지 매년 평균 15.7% 증가되었다. 이는 '15'부터 '55' 계획의 28년 간 매년 평균 9.1% 증가폭을 초과한 것이다.

1989년 자치지역 농촌 사회의 총생산액은 1,104,7억 원으로, 제1산업은 75.2%를 제2.3 산업은 24.8%를 차지하였다. 그 중 농촌공업의 총생산액은 153억 원으로 농촌 사회 총생산액의 13.9% 차지하는데, 농촌 제2.3 산업의 발전은 도시

와 농촌의 차별이 축소되고 농촌발전이 시작된 것이다. 1989년 자치지방의 생축은 연말 총수가 21,948,7만 필로서 1949년의 4,108만 필 보다 434% 증가를 보이고 있다. 1989년 민족자치지역 철도의 길이는 12,900km로서 1949년의 3,511km보다 267%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도로의 길이는 30만km로서 1949년의 1.14만km보다 25.4배가 늘어났다.

신중국 성립 이전의 소수민족 지역에는 근본적으로 현대 공업이 없었으나, 지금은 이미 5만7천 개의 공업기업이 있다. 개혁개방을 실시하기 전, 소수민족지역이 필요로 하는 소맥분의 반만을 해결할 수 있었다. 개혁개방으로 청부생산이 실시된 이후, 1989년 말까지 대다수의 소수민족은 기본적으로 배고픔을 해결하게 되었다.

1989년 전국민족 자치지역의 645개 현급 단위 중에 이미 81개 현급 단위의 농민 각 사람의 평균 수입은 700원 이상으로서 전국의 평균수준을 넘어섰다. 1989년 민족자치지역의 농. 목업지역 주민의 평균수입은 517원이었다. 민족 지역 인민의 생활 수준의 명확한 향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은 2.1만km의 육지 변경선이 있다. 그곳에는 대부분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들은 옆 나라와 변경무역

하기에 그 조건이 매우 좋다. 현재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내몽고, 신강, 운남성, 광서성, 서장 등의 성은 이미 옆나라와 각기 다른 규모의 변경무역을 시작했다.

1988년 중국에서는 소련, 몽고, 파키스탄 등 옆나라와의 변경무역을 신속히 발전하였다. 금년의 무역은 6.5억\$에 달함으로써 1987년보다 1.37배 증가하였으며, 현재 무역으로부터 공사도급, 노동력 수출, 합자, 방면 등의 합작으로 확대되었다.

## 6. 소수민족 지역의 사회발전

중국 공산당의 11기 3中全会 이후의 10년은 개혁개방의 10년으로, 이 개혁개방은 민족지역의 낡은 체제를 깨뜨린 것이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민족지역의 실제상황으로부터 출발하여 민족지역 특징에 적합한 방침과 정책을 만듦으로써 민족지역 사회발전을 가속화하였다.

민족지역의 문화, 교육, 과학, 위생 및 체육 등 사업에 전에 없었던 새로운 국면을 띄게 되었다. 민족 교육방면에 있어 국가에서는 민족 교육경비를 증가시켰으며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민족학원을 회복하고 새로이 2개의 민족학원을 건립하였다. 지금



운남성의 한 가무단이 백족 의상을 입고 백족의 춤과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전국에는 12개의 민족학원이 있다. 새로이 많은 기숙사 제도의 민족소학교와 중학교를 세우고 또 소수민족의 대학과 전문대학의 응시생들에 대해서는 우수생들을 무시험으로 선발하고 적당히 봐주는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1989년 전국 高等學院(종합대학과 단과대학) 소수민족생들이 131,599인으로서 전국 고등학원 총 학생수의 7%를 차지하였으나 1950년에는 1,285인밖에 없었다.

전국 고등학원 학생수의 총수는 0.9%밖에 미치지 못했다. 1989년의 전국 고등학원 소수민족의 학생 총수는 1950년의 102배이고, 전국 보통 중학교 소수민족 학생은 283.5만 명으로서 1951년 4만 명의 70배이며, 전국 소학교 소수민족 학생들은 1,052만 명으로서 1951년 94.3만명의 11.2배이다.

민족 문자의 신문, 잡지와 도서, 민족 고서의 정리, 번역과 출판, 민족 언어의 방송,

영화, T.V 등의 방면은 모두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다. 1989년 전국에서 출판된 소수민족 문자도서는 3,260종으로서 1949년 179종의 18.5배이며, 총 인쇄수는 3,853만 권으로서, 1949년 167.8권의 23배이다. 또한 전국 소수민족 문자 잡지는 1989년 153중에 달함으로써 1949년 4종의 38배이며 인쇄 총수는 1,280만 권으로서 1949년의 108배이고 1989년 출판한 소수민족의 문자도서는 이미 20여 종류에 달했다.

민족문화예술 방면에서는 각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에서 문예단체를 널리 설립하였다. 다민족의 도시에서는 민족 가무단을 건립하였으며, 5개 자치구와 1개 자치주에서는 예술학원을 건립하여 소수민족 예술인재를 양육하는 기지로 삼았다. 내지에 있는 예술학원에서는 중국 전통 민족반을 개설하였다. 국가에서도 전국적 규모의 소수민족문예합동공연회, 민족음악, 무도, 희곡공연과

민족문화 평가 활동을 하였다. 이 모든 것은 소수민족의 문화 예술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켰다.

신중국의 성립 후 전국 각종 예술학원에서는 소수민족 예술 인원을 총 만여 명이나 양육하였다. 그 중 장족의 가수 「차이단주어마(才旦卓瑪)」, 위그르의 가수 「디리바이얼(迪里拜爾)」, 백족 무도가 「양리핑(楊麗萍)」 등은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름을 날렸다.

1985년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작가협회 등 10개 문학예술 협회의 소수민족의 인원은 1,873명이며, 그 중 작가협회 인원은 233명으로서 전국 작가협회 총수의 9.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수민족의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례를 넘어선 것이다.

최근 몇년의 전국 민족문화 평가 가운데 이미 47개 민족의 263명의 작가가 작품상을 받았다. 일부 인구가 매우 적은 민족도 그들의 작가를 갖게 됨으로써 소수민족 작가의 무리를 형성하였다. 소수민족 문화 유산을 전져내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또한 민족고서정리출판기구를 건립하였다. 『거싸얼(格薩爾), 쟡거얼(江格爾), 마나스(瑪納斯), 아스마(阿詩瑪)』 등의 민족 역사시가 정리되고 출판되고 있으며, 이 외의 민족 대중 문화시설도 늘어났는

데 통계에 따르면 1986년 소수민족 지역 영화극장이 1,191개로서 1979년보다 1.61배 증가되고, 문화관은 8,090개로서 1979년보다 2.14배증가, 도서관은 533개로서 1981년보다 62% 증가되었다.

민족 전통체육도 계승과 발전을 가져와 1953년, 1982년, 1986년에 제1.2.3차 전국소수족 전통체육대회를 거행하기도 하였다. 선수와 경기항목이 매기에 증가되고 일부 민족전통체육 항목은 전국 체육대회에 참가되기도 하였다. 민족 전통체육의 발전에 따라 근대체육은 민족지역에서 날마다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점점 많은 소수민족 체육선수들이 국내외 상을 받게 되었다.

1989년 전국민족 자치지역의 위생사업기구는 31,081개로 1949년 361개의 86배이다. 1989년 병원 침상의 수는 34.8만개로서 1949년 3,310개의 105배이고 기술인원은 47.8만 명으로 49년 3,531명의 135배이다.

## 7. 지역 경계상에 붙어사는 동일민족

중국은 역사가 오래되고 땅도 넓다. 육지 변경선이 2.1만 km가 되고 조선, 소련, 몽고, 베트남 등 12개 국가와도 연결되어 있다. 약 30여 개의 민족이 경계 밖 동일민족과 붙어살

고 있다. 그들은 조선족, 허저족, 어원커족, 몽고, 회족, 위그르족, 까자크족, 우즈베크족, 키르기즈족, 떠자크족, 따따르족, 로씨아족, 장족, 먼빠족, 튀빠족, 거로족, 수족, 쩡족, 타이족, 부이족, 묘족, 요족, 이족, 하니족, 라후족, 징퍼족, 아칭족, 누족, 두룽족, 외족, 떠양족, 부랑족, 징족 등의 민족이다.

이 민족들은 서로 인접한 지역 내에 살기 때문에 지역 경계 양측에 사는 많은 동일민족의 왕래가 밀접할 뿐더러 왕래가 빈번하며 친척방문, 결혼, 장사, 종교행사, 명절모임은 물론이고, 심지어 국경을 넘어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형성한 것은 3가지의 원인을 들 수 있는데, 그 첫째로는 원래는 중국 국경 내에서 거주하였으나 최근 500년 동안 특히 아편전쟁 후 인근 국가로 사람들이 나간 것을 들 수 있으며, 둘째로 국외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민족들이 중국 인화된 것과, 셋째로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동일한 땅 위에 살면서 같은 조상을 가진 서로 다른 민족을 형성, 혹은 동일민족으로서 같지 않은 지파로 나뉘어졌다는 점이다.

(『中國民族指南』 중에서)

번역/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 내가 본 중국 복음사역

어떤 목사님의 경험담

편집자주: 신학원 교수 한 분이 여러 해 동안 쉬지 않고, 중국복음 사역에 종사하고 있는데, 아래 내용은 그가 몇년 동안 이 사역에서 일하면서 얻게 된 경험과 느낌을 함께 나누고 또 대륙선교 사역에 종사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문:** 먼저 당신의 사명감과 그 사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 제 생각에 저의 사역은 사명감에서부터 얘기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나의 사명은 중국선교에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미국에서부터 극동으로 인도하셔서 대륙복음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 것은 그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굳게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을 다 채워 주셨고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열한 살에 대륙에서 나오기 이전에 중국 여러 지방을 돌아 다닐 수 있었기에 각 성의 방언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 내가 오늘 날 일을 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륙선교에 종사한 이 몇년 간 나의 건강상태가 날로 좋아지고 있어 막 시작할 무렵에 갖고 있던 질병도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고 이 밖에 내가 농학을 전공했기에 쉽게 대륙 농촌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일찍부터 이미 나를 대륙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 시키신 것 같다. 미국에서 극동으로 돌아온 여러 해 동안 나는 주로 중국선교에 종사했다. 신학원에서 가르치는 것 이외에 매년 대륙에 가서 선교할 기회가 있었기에, 몇년 동안 대륙에 여러 차례 가서 지도자 훈련에 참가하거나 혹은 각 지방에 다니면서 가정교회의 동역자 및 인도자들과 유대관계를 맺었다. 또 한편으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가르침과 사명을 깨닫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가정교회의 진정한 수요를 파악하여 우리의 지도자 양육사역이 더욱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였다. 사실 내가 신학원에서 하는 일 역시 대륙사역에 사명을 가진 일꾼들을 훈련시켜 앞으로 대륙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으로, 만약 그 일꾼들이 없다면 내가 해야 할 일 역시 없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대륙에 있지 않는 시간에도 나는 대륙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 중국 대륙의 종교정책이 복음사역의 발전 및 대륙선교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답:** 중국 대륙의 개혁개방 시기의 종교정책은 과거의 개방과 비교할 때 개혁정책에 여전히 일정한 제한이 있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 좀 색다른 감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감정들은 2,3년이 지나면 점차 좋아지리라 믿는다.**

다. 개방 정책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단계는 79년 개방 초기에서 89년 천안문 사건까지로, 10년 전의 중국은 매우 개방된 것 같았지만 그때의 중국은 아직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잘 몰라 마치 문은 열렸지만 앞으로 나가는 흥내만 났다고 할 수 있다. 89년의 민권운동은 중국이 스스로 위험을 깨닫고 의식 형태에 대해 보다 더 그러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지만,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해 개방의 길로 계속해 나갈 수가 없었다. 89년, 90년, 91년이 지나고 덩소평이 남쪽을 순회한 이후 중국은 더욱 개방되어 마치 조자양 시대와 흡사한데, 아마 그때보다 더 개방됐다고 볼 수 있다. 내가 여러 차례 대륙에 가서 농촌 신도나 지식층과 대화를 하는 것을 근거해보면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정부의 의식형태나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에 대한 통제가 이미 느슨해졌음이 드러났다. 이번에 내가 중국대륙에서 돌아 왔는데 한두 명의 지식분자와 얘길 나누었지만 그들의 소속내에선 근본적으로 의식형태가 느슨해져 있었다. 대륙의 이런 변화를 볼 때 나는 지금의 개방정책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리라고 생각지 않으며, 몇년 후 늙은 지도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더욱 큰 개방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다.

어렵잖아, 내가 대륙에서 1년에 거의 1천 번 정도 가정교회를 양육하고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것을 정부가 모를리 있겠는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어찌 할 수 없기에 더이상 과도하게 문제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런 상황은 매우 큰 전환으로 현재 대륙사역의 대부분이 반 공개적이다.

몇천 명의 가정교회 집회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며, 거의가 공개적이라 할 수 있다. 정부와 공안국 모두 그들이 모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단지 이러한 가정교회가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다만 두려워할 뿐이다.

우리들이 만약 기술적으로 그들과 연결하여 그 안에 땅을 조금 사서 병원을 세워 운영하거나 자선사업 등을 운영하는 식으로 하여 사회의 관심을 끌고 더 나아가 교회건립에 까지 관여할 수 있게 된다면 길이 없는 것도 결코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술적으로 지혜롭게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연히 중국의 지도층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같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동구라파와 소련을 본보기로 삼고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와 천주교가 확실히 소련과 동구라파의 공산정권이 붕괴하는 데 和平演變(화평연변) 요소의 하나로 간접적인 작용을 미쳤기 때문이다. 문혁 이후 많은 절들이 개방되었다. 정부는 향이나 초 기타 불교, 도교의 물건들을 팔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자유로이 살 수 없도록 했고, 많은 양의 성경을 복사하는 것조차 금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 좀 색다른 감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감정들은 2, 3년이 지나면 점차 좋아지리라 믿는다.

대륙 신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 정책이 그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사람

에 따라 다르다. 여러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종교핍박에 대해 각자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한평생 고난을 받고 감옥살이를 한 지도자 중 일부는 지금까지도 매우 두려워하고 있는데, 핍박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 하는 듯 싶다. 하지만 오히려 핍박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무리들도 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가정교회를 이해하려면 더욱 많은 가정교회를 방문하여 전반적인 이해를 얻어야만 한다. 그러할 때 가정교회가 결코 소멸될 수 없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복음의 사자들 농촌 신도들이든 그들은 이미 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륙정책이 우리같은 대륙복음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논한다면, 우리는 결코 대륙정부로부터 우리더러 자유로이 성경을 들여와도 된다는 혹은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등의 허락을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중국 선교사역을 시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현재의 정부 차원에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청조 말년에 당시의 중국 정부는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했으나, 일반 군중들은 오히려 기독교를 받아들이질 않았고 오히려 洋教를 원치않는다고 배척했다. 하지만 이 역시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오는 것을 저지할 수 없었다. 오늘날의 상황은 그때와 상반되어, 정부는 우리가 중국에서 선교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백성들의 마음의 문은 오히려 열려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들이 가지 않겠는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이미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음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로마서 13장에선 우리들에게 땅 위에 권세 있는 자들에게 굴복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정의롭게 사람을 통치했기 때문인 것이다.

하물며 오늘날 우리들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일할 수 있는 일정한 곳이 있는 바에 지혜롭게 일을 해 나가야지 융통성없이 대처해서는 안된다. 마침 나는 최근에 북경의 한 삼자교회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설교자가 외국인이었는데, 그가 두 대의 녹음 시설을 그 교회에 기증하자 그 교회에서 그에게 설교해 주길 청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가정교회 역시 매우 많은 시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영적 서적을 인쇄할 수 있는 설비나, Tape 녹음작업의 발전을 위한 시설 등등이다. 만약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운다면 사실 대륙 내의 많은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또 우리들은 반드시 그 일을 해야만 한다. 만약에 대륙 정부가 우리가 자유로이 들어가 선교할 수 있도록 허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갈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이미 늦어버리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잘 구상해야만 한다.

**문:** 오늘날의 대륙 복음 사역은 여전히 농촌 위주인가? 도시 내의 사역은 어떠한가?

**만약에 대륙 정부가 우리가 자유로이 선교할 수 있도록 들어가길 허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갈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이미 늦어버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 더욱 개방될 상황에서 더욱 활발한 도시사역,  
특히 대학 내의 선교사역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답:** 오늘날 대륙의 복음 사역은 여전히 농촌 위주이나 물론 도시사역도 전개중이다. 내가 여러 해 동안 농촌에서 사역하면서 느낀 점은 농촌이 비교적 개방적이고 또 비교적 느슨한 것 같았다. 중공은 과거에 농촌에 대해선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농촌 사람들 스스로가 그들의 삶을 젊어져 왔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농촌에서의 복음 사역은 사실상 도시보다 쉽다. 또다른 한편으로 요 몇년 간 내가 발견한 것은 신앙이 농촌 사람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면 좀처럼 쉽게 빼낼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농민들은 견고한 신념을 갖고서 오직 주님만 믿고 쉽게 동요되질 않았다. 중국은 과거부터 몇천 년 간 어떤 전통과 민간신앙이 쉬지 않고 전해내려 왔는데, 개인의 믿음과 중국 농민의 믿음에 대한 이러한 견고함은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농촌 신도들이 받은 고난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다. 난 농촌에 이미 여러 번 들어가 봤지만 매번 갈 때마다 여전히 큰 감동을 받는다. 그들은 비록 집이 부러지고 사람이 죽고 설 땅을 잃어버려 돌아갈 집마저 없는 그런 어려움에 부딪쳐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들의 담대함은 나를 언제나 감동시켰다. 매번 그들의 열심에 비해 우리들이 내보일 것은 적음을 느끼게 되기에 난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대륙복음 사역에 많이 참가하여 교회와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게 하라고 격려한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볼 때, 도시의 복음 사역도 반드시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더욱 개방될 상황에서 더욱 활발한 도시사역, 특히 대학 내의 선교사역을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요즘 대학이 매우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학생들이 제일 통제하기 어려운 상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대학생이 가장 통제하기 어려우나, 그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면 대학 캠퍼스나 그 모임이 중요한 선교의 추수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 당신 생각에 해외 신도들이 중국교회에 대한 인식이 깊다고 봅니까?

**답:** 제 생각에 국외 신도들의 대륙교회에 대한 이해는 그다지 깊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여러 잡지에서 중국교회 내에 이단파들이 매우 많다고 제시했는데 사실상 이단이 중국교회 내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로 따지자면 그것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내가 여러 차례 중국내 교회와 접촉해 보면서 느낀 것은 그 속에서 이단으로 칠 수 있는 것은 매우 적었다고 본다. 대부분의 가정교회는 신앙이 순수한 복음파로서 간혹 성경의 해석상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외부에서 묘사한 것처럼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어제 어떤 사람이 피살됐다는 것을 보았고 오늘 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자 하지만 5,6백만

**중국내의 많은 굶주린 전도인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깊이 있는  
성경 연구와 영적 성장을 위한 메시지인 것이다.**

홍콩 인구나 비교할 때 결코 그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홍콩의 곳곳에서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어떤 하나의 일이 신문에 보도 됐을 때는 지나치게 강조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이단문제는 결코 심각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 하면 그들은 밀폐된 사회 속에서 중국의 지반주의(地盤主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최근 1여 년 동안 지나면서 나는 그들 지도자들 간에 점차 빈번한 교류를 갖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한마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이 밖에 해외에서 중국 내에 성경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많은 이들이 느끼기에 삼자회에서 그렇게 많은 성경을 인쇄했으니 당연히 기본적으로 넉넉할 것이라고 여기는데 사실은 매우 부족한 상태로, 중국 내 교회의 성경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다. 한번은 나와 한 외국인이 金陵신학원에 갔다. 그가 愛德기금회 대표에게 매년 몇 권의 성경을 제작해 내느냐고 묻자, 그 기금회 대표는 일백만 권이라 대답했다. 하지만 다른 형제는 내게 그가 성경을 도매하는 한 자매를 알고 있는데 매년 겨우 10여만 권밖에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외부에 선전하는 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다. 이 밖에 신도가 성경을 사려면 언제나 돈을 먼저 지불해야 하는데 지불 후, 1년 이상이 경과해도 성경을 보급받을 수 있는지

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을 보아, 성경이 아직 중국에선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평균 6명이 1권의 성경을 갖고 있다고 하니 언제쯤에야 그 수요를 다 채워 줄 수 있겠는가? 부연한다면 교회가 매년 최소한 10%의 성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욱더 막연하기만 하다. 외부교회가 어떻게 해야 대륙에서 필요로 하는 성경을 제공해 줄 수 있겠는가의 과제는 우리들이 아직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문:** 국외의 신도들이 대륙교회를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당신 개인 의견은?

**답:** 외부교회의 대륙교회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교회를 어디서 부터 손을 써서 도와주어야 할지 모를 정도인데, 일부 해외 목사님과 우리들이 함께 대륙에 가서 훈련시킬 때 보면 그들은 대에배 한두 시간 설교한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하지만 중국내의 많은 굶주린 전도인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깊이 있는 성경 연구와 영적 성장을 위한 메시지인 것이다. 또 어떤 신도들은 대륙 내의 생활이 매우 가난하다고 여기고 돈을 송금해 준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송금한 이 무계획한 돈은 아마도 그들의 일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못할 것이다. 특히 돈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는 농촌 신도들에겐 더욱 그렇 것이다. 내 말의 의미

**현단계에서 그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전도인을 양육하여 교회를  
일으키는 일을 하게 하게 하는 것이다.**

는 중국선교에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중국선교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들은 영적인 서적을 필요로 하고 있고, 더욱더 많은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더욱 많은 전도인들이 들어와 양육해 주길 기다리고 있으며, 또 농촌에는 의료기관과 교육기관이 세워지길 기다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많은 재정적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돈을 보내는 것은 계획성을 필요로 하며,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아무런 계획없이 보내는 것이라면 아무리 소액의 돈이라 할지라도 보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도와 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탐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혹은 불평등하게 분배됨으로 인해 동역자간에 마찰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외부교회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하자면 내 생각에 현단계에서 그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전도인을 양육하여 그렇게 훈련되어진 전도인들이 교회에서 담임하면서 교회를 일으키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최근 몇 차례 중국 내 교회를 접촉해 보고, 나는 대륙진체에 일꾼들을 훈련시키는 상황이 매우 발전적임을 발견했다. 우리들이 만약 충분히 가르칠 자격이 있는 자를 제공하여 대륙에서 3~5천 명의 전도인을 훈련시킬 수 있다면 이는 가정교회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요즘 가정교회는 주로 직업을 별

도로 갖고 있는 봉사자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들은 개방 이후 아마도 개 개인의 경제적 기초 마련을 위해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일에 소홀하게 한다. 그러므로 10년 내에 더욱 많은 헌신적인 전문 전도인을 훈련해야 한다. 우리들은 인적, 물적 자원이 있다. 교재를 제공해 주고 가정교회를 세운 전도인이 가서 일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다만 '주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십니다'라고만 전하고 비교적 깊이 있게 설명해 줄 수 없는 실정을 면하도록 해야 한다. 요즘 "병이 나왔다. 귀신이 도망갔다." 라는 얘기가 유행어가 됐는데 그들에게 '왜 예수를 믿습니까?'라고 물으면 "나도 모른다"라고 대답한다.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아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전세계의 교회가 이방면에 대해 사명감을 가진다면, 중국각지에서 일꾼을 훈련시키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대에는 마땅히 더욱더 많은 전문 전도인을 배출해 내야만 하는데, 외부에서 훈련시키는 것을 담당해 준다면 전문 전도인을 더욱더 많이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문:** 중국복음사역에 사명감을 가진 형제자매가 어떻게 중국선교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까?

**답:** 중국복음사역에 사명이 있다는 분들이 직접 비행기 표를 사서 한 교회를 찾아 가거나 혹은 한 교인을 만나거나 해서 그들과 접촉하여 약간의 돈을 건네주고 매우 기뻐한 나머지,

**교회의 사명감에 그런 선교단체의  
도움과 지도가 합쳐진다면 진정한 대륙복음사역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돌아와 대륙에서 복음사역을 했노라, 선교를 했노라 보고하는데, 그래서서 안된다. 왜냐 하면 당신이 했던 것은 아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마도 당신의 그 비행기표 값이나 현금을 어떤 중국선교기관을 통해 처리하게 했다면 그 효과는 아마 더욱 빛났을 것이다. 나는 당연히 형제자매들이 대륙교회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 이해하길 권장한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사진 몇 장 찍고 와서는 중국교회의 상황을 다 이해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이다. 또 교회 내의 두세 사람이 중국에 다녀와서는 우리교회도 대륙복음 사역에 종사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대륙복음 사역은 긴 시간의 투자이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안디옥교회가 외방선교 기지를 세우려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복음 사절단, 초기선교단, 혹은 전도대 비슷한 것을 조직하고 그런 다음 비로소 각지방에 다니며 교회를 세운 것이지 안디옥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각지방에 다니며 일을 한 것은 아니었다. 지금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에 가서 사역해야 하기에 우리 선교는 더욱더 선교단체를 거치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없고 진정으로 중국복음 사역에 종사하는 단체를 거쳐야만 계획성 있게 당신의 사명, 당신의 경제적보조 등이 중국복음 사역 위에 잘 사용되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해야만 인력과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우리는 아직 교회의 선교조직과 손잡아야 한다. 교회의 사명감에 그런 단체의 도움과 지도가 합쳐진다면 진정한

대륙복음 사역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문:** 개인 안전문제에 대한 견해는?

**답:** 개인 안전문제에 관한 것은, 특별한 사명감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입장에서 보면 고려할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심해서 진행시킨다면 안전방면은 문제가 있을 수 없다. 나의 개인소견을 제시한다면, 편지나 전화로 내부사람과 연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왜냐 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 사람에게 미행당하거나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년 간 나는 거의 하나의 원칙을 고수했는데, 그것은 매번 반드시 직접 입으로 내부사람과 연락했고 그 후엔 전화도 전보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것이 비교적 안전했다. 그리고 대륙에 들어가면 일반교통을 이용했고 또 그 밖에 최대한 여관에 머물지 않고 보통 가정에 초대받았는데, 비록 생활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안전했다. 그리고 복장도 특별히 조심했는데 최대한 현지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않도록 입었다.

**문:** 몇년간 대륙선교에 종사하면서 특별히 느낀점은?

**답:** 대륙선교 사업에 종사하는 요 몇년간 내가 느낀점은, 우리는 거의 반세기 동안 대륙선교에 투자할 기회가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중국대륙이야

**중국의 문이 아직 크게 열리지 않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이때가 바로 가장 적절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말로 세계최대의 복음 탈곡장이 될 것이다. 내 생각에 우리 교회들은 중국 교회, 해외 화교교회 혹은 서방교회가 모두 다 한마음으로 대륙선교에 투자해야만 한다. 이런 방식은 과거 50년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르다. 중국선교의 지도자들은 주도적으로 세계에 사명있는 교회와 관계를 갖고, 장차 대륙사역이 가야 할 방향을 토의하기를 희망한다. 만약 지금 이런 문제들에 관해 연구하기 시작한다면 진정 행동으로 옮기는데는 아마도 몇년 후에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더이상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더 기다린다고도 잘 되가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그때엔 사람들의 마음이 돈에 점령당해 버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중국의 문이 아직 크게 열리지 않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지금 대륙은 완전히 개방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때가 바로 가장 적절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중국선교사들이 꺾박에 시달려 중국 국도를 떠날 당시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들은 그토록 중국의 문이 다시 열리길 바랬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는 쉽게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깊이 느낀다.

나는 오늘날의 기독교청년들이 중국선교사역에 도전해 보기를 원한다. 형제 자매들은 각각 다른 방식과 측면, 다

른 통로를 통해 시작할 수 있다. 문서 사역이나 전문요원으로 또는 가르치는 것이나 상업적인 측면 등 다원화된 방식으로 대륙선교 사업에 종사할 수 있다 사실상 중국선교 사역이 결코 전도하는 일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또한 각 신학원에서 선교를 중시하길 희망한다. 특히 화교 신학원에서는 더욱 중국선교를 중시해야 하는데, 어떠한 목표만 있으면 어떤 신학원이든 모두 발전해 나갈 것이다. 난이 몇년 간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질 때에 신학원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졸업생의 1/3 이나 1/2을 훈련시켜 장차 중국을 위한 대륙선교의 전도인으로 삼아도 지나친 일은 아닐 것이다. 왜냐 하면 앞으로 10년 혹은 15년 후 중국은 아마도 더욱 많은 선교사를 방출해 낼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아마 수천만의 선교사들을 외부로 파견해 선교할 것인데, 그때에 화교 세계의 문이 열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모른다. 대륙의 가정교회, 그들은 고난 중에서 성장한 교회이므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가 받는 어려움을 겁내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의 화교 신학원은 반드시 중국 대륙 선교사역을 중시해야 한다.

(『中國與教會-96期』 중에서)

번역/ 서말봉(중국어문선교회 회원)



## 정화보

(1885~1953)

안휘성 무호현

정화보 주교는 중국 성공회 주교원의 주석에 위임된 최초 중국 국적의 주교 (the first Chinese presiding bishop of Anglian church in China)였다 (회독이라고도 한다). 정화보 주교가 이런 특별한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그가 일생 동안을 중국 성공회 사역에 헌신하면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특별히 반교의 소동(1926) 때와 항일전쟁(1937~1943) 기간에 그는 성공회 화북교회를 인도하면서, 외세에 도전하며 역경에 처한 교우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잘 처리하였다. 화북교구에서의 뛰어난 업적으로 정화보 주교의

이름이 널리 퍼졌고, 성공회 계통에 있어서는 안영경 목사와 황길향 목사에 이어 국내외로 이름을 날린 또 하나의 성직자였다.

정화보 주교는 청말 광서 11년(1885) 1월 7일 생으로, 본적은 안휘성 무호이다. 14살 때에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미국 성공회무호교회의 노 목사 (Rev. Francis E. Lund)가 그를 받아들여 그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제공해 주기도 하였지만 또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진리를 그에게 전했다. 이로 말미암아 정화보는 광서 27년(1901)에 무호 성공회 소속의 성야곱당(St. James Church)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 후에 그의 신앙은 더욱 독실해졌다.

광서 28년(1902), 아직 무호의 성야곱중학(St. James High School)을 다닐 때 신앙이 견고하여지자 성공회 한구 교구의 주교로 있던 에디슨 회독(Bishop James Addison Ingle)의 주례하에 견진례(堅振禮)를 받았다. 그 때 나이는 16살이었다.

청소년 시기의 정화보는 당시 기독교의 활동에 대단히 관심을 가졌는데, 일찍이 20여 명의 학우들과 공동으로 발기하여 「성피터회(St. Peter's Society)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그들 모두는 이후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 성공회 회독으로 임명된 첫번째 중국인 주교

위해 훈련을 받아들이기로 함께 서약했다.

무호의 성야곱중학을 졸업한 후에 바로 양자강 중류에 있는 무한으로 가서, 성공회가 무창에 설립한 문화서원(Boone Divinity College)에서 공부했다.

광서 34년(1908)에 과정을 마친 후 다시 문화신학원(Boone Divinity School)에서 공부하고 선통 1년(1909)에 졸업하였다. 졸업한 후에 그는 한구 성공회의 주교가 머무르는 중앙회당인 성바울로당(St. Paul's Cathedral)에서 로건 주교(Bishop Logan Roots)의 안수의식을 받고 會吏(deacon ;부제, 집사)가 되었다. 그 후에 고향인 무호로 돌아와서 모교인 성야곱중학의 교장이 되었고 동시에 성야곱당의 목사보의 직책을 맡아 5년 동안 일했다. 민국 1년(1912) 청나라 황실이 몰러가고 민국이 시작되자 정화보에게는 중화민국정부에서 직책을 맡을 기회가 있었으나, 그는 단호히 거부하였다. 당시 그는 성공회 성직자의 직분을 받아들여 평생 교회 사역에 헌신할 것을 준비하고 교회 목사가 되었다. 그래서 같은 해(1912)에 교구 주교였던 헌팅턴(Bishop Huntington)으로부터 성직자 임명을 받았다. 이것은 헌팅턴 주교 자신에게도 주교를 맡은 이래 처음 주재한 임명식이었다.

민국 3년(1914) 정화보는 무호 부근의 남릉 교구의 목사(Rector)로 임명되었다. 남릉에는 성공회에서 건립한 진광당이 있었는데 목회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정화보를 보내어 목회하도록 했으며, 그렇게 2년 정도 지냈다. 민국 5년(1916) 정화보는 성공회 전도부의 총간사로 임명되었으나, 여전히 남릉 교구의 목사직을 겸하고 있었다. 당시 전도부 총간사의 주요 임무는 각지를 여행하면서 기금을 조달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섬서, 서안 지구의 복음선교사역을 개척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화보는 직책도 겸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역도 막중했기 때문에 몇 갑절의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5년 동안이나 이 두 직책을 겸하여 수행하였다.

민국 10년(1921) 그는 마침내 남릉 지방 교구 목사의 직책을 사직하고 오로지 성공회 전도부 총간사의 직책만을 맡아서 힘써 사역을 전개시키고 섬서, 서안 지방의 복음 선교 사역에 전력을 다하였다. 그 지역의 선교사역은 수년 간 성공회가 전념하고 있었기에, 민국이 성립하기 전까지 성공회는 전국에 모두 11개의 교구가 설립되었다. 강소교구, 향오교구, 절강교구, 화북교구, 화서교구, 호북호남성교구, 산둥교구, 복건교구, 상계교구, 하남교구, 안휘강서교

구가 그것이다.

이 11개 교구는 미국 성공회, 영국 성공회, 캐나다 성공회가 설립한 것으로 구별되었다. 섬서 전도 교구가民国 5년(1916)에 설립될 때, 중국 성공회의 결의에 따라서 귀국인들 스스로 일체의 업무를 모두 맡기로 하였다. 경제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든지, 직원의 임용, 사역의 추진을 막론하고 모두 중국인들에 의해서 스스로 처리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어느 사이엔가 이것은 중국 성직자의 능력이 시험을 받는 것으로 여겨졌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정화보가 총간사로 선택되어 실제적인 책임을 맡게 되었으니, 이는 그가 전 성공회 성직자들 가운데 받았던 신임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모두들 그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매우 컸다.

정화보는 전체 성공회, 중국인 목사와 주교의 간절한 기대를 한 몸에 걸고, 전력투구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각 교회의 이 거대한 사역의 흥미와 관심을 고무하고 격려했다. 장기간 열심히 추진함에 따라서 마침내 성과가 있었으니, 民國 23년(1934)에 이 전도 교구의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 중국 최초의 성공회 주교를 지낸 심자고 주교가 선택되어 섬서 전도 교구의 주교로 임명되어 오게

되었다. 이로써 중국인들의 자주적 전도, 자주적 양육, 자주적 독립의 목표가 이루어졌고, 정화보 주교는 공만 이루고 자신은 뒤로 나서지 않았으나, 그의 공적이야말로 가장 큰 것이었다. 정화보 주교는 성공회 전도부 총간사로 있는 동시에 기독교 협진회 총간사로 있던 성정이 목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국적인 '中華歸主(중국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자)'운동의 비서 직책을 맡아서 모든 종파가 이 복음전도운동을 추진하도록 도왔으며, 또한 큰 성과를 거두었다.

民國 12년(1923) 정화보는 멀리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미국 동부에 있는 버어지니아주신학교(Virginia Theological Seminary)에서 1년 간 수학하고 다음해(1924) 다시 비성성공회 신학원(Divinity School of the Protestant Episcopal Church)으로 옮겨 1년 간 유학한 후에 펜실베이니아(Univ. of Pennsylvania)에 들어가 공부하다가 民國 15년(1926) 사회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에 귀국하였다.

정화보는 안휘성의 안경시로 돌아와서 이 지역 성공회의 주교좌당-성구교당의 주임목사를 맡게 되었다. 이때는 바로 중국 내에서 이른바 제 2단계 '비기독교운동'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전국의 수많은 동포들은 공

산당의 유혹에 빠져, 기독교는 제국주의의 중국침략 선봉이라 여기며 격렬하게 기독교를 반대하였다. 특히 民國 16년(1927) 3월 남경에서 뜻밖의 사건이 터진 후에는 반기독교의 풍조가 안경까지 만연되어 폭동으로 이성을 잃어버린 군중들은 정화보의 온 가족까지 위협하였다. 약 1년 동안 안경의 주교좌당의 집회에서 그들 자신의 가옥과 학교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같은 해에 내륙 지역에서 전도를 하던 서양 선교사들은 반기독교적 풍조가 더욱 고조되는 것을 보고 계속 머무를 수가 없어서紛紛히 흩어져 귀국하였고 혹은 해안의 도시로 물러나 난을 피하면서 반기독교운동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다시 내륙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이렇게 일련의 외국인들이紛紛히 피하여 달아나던 때에 정화보는 의연히 교회의 재산관리와 유지 및 교회 감독의 임무를 맡아서 시종 침착한 태도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대처하여 매우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民國 17년(1928) 4월 정화보는 상해에서 성공회의 대표원(House of Delegates)에 의해 주석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성요한대학의 교장인 변방제 박사(Dr. F.L. Hawks Pott)의 뒤를 이어 이 직책을 맡게 되었으니

중국 국적의 성공회 목사 중에서는 이 직책을 맡았던 최초의 사람이었다. 같은 해 9월 그는 또한 안휘주교 관구의 비서가 되었다.

민국 17년 말 정화보는 성공회 하남 교구의 윌리엄 주교(Bishop William C. White)에 의해서 이 교구의 보조주교(Assistant Bishop)로 선택되었다. 그 후 23년(1934)에 윌리엄은 퇴직하고 정화보가 정식으로 하남교구의 회독(Diocesan Bishop of Honan)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는 중국인 중 최초의 회독이 되었다. 정화보는 하남의 개봉에 있는 성삼일당에서 정식으로 추대되어 하남전교구의 성공회 선교직무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민국 19년(1930)에는 영국으로 가서 램베드(Lambeth) 주교 회의에 참석했다. 램베드 주교 회의는 세계 성공회파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회의였다. 정화보 주교는 중국 국적의 주교 중에서 이 회의에 참석한 수석 주교였으니 참으로 큰 의의를 갖는 것이다.

영국에서 돌아온 후에 정화보 주교는 계속해서 윌리엄 주교와 공동으로 그 지역의 성공회 교무를 책임졌다. 민국 26년(1937) 정화보 주교는 일본을 방문하여 중국 성공회의 대표자격으로 일본 성공회 자립 50주

년 기념식을 경축하였다.

민국 27년(1938)에 정화보 주교는 인도의 馬達拉斯에서 거행되었던 세계 선교회의 중국 대표단으로 참석하여 중국 성공회를 대표하였다.

같은 해 6월 이후에 일본 군대가 하남을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조금 뒤에는 일본의 수중에 빠져들고 말았다. 이러한 일본의 점령하에서 정화보 주교는 2년 반동안 캐나다의 성공회와 연락을 취할 수가 없었다. 그는 완전히 고군분투를 하면서 화북 지구에서 어렵게 성공회의 교무 활동을 해냈다. 더욱이 민국 30년(1941) 12월 진주만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일본은 장차 중국 점령구에 있는 미국 영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들을 수용소로 보내어 구금할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성공회 화북 교구의 스코트(Arnold Scott) 주교와 산동 교구의 웰링턴(John Welling-ton) 주교가 관할하던 교무도 모두 정화보 주교가 유지해 나가야 했으니 고생할 것에 대비해야 했다.

민국 33년(1944)에 그는 일찍이 길만(Gilman) 주교에게 편지를 써서 모교회의 재정지원이 없어도 된다고 알렸다. 왜냐하면 그가 관할하고 있는 교회의 현금이 필요한 만큼의 재정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정화보 주교가 점령지구

의 교무행정에서도 좋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항전이 승리로 이어지고 나서 정화보 주교는 교회의 복원 사업에도 힘을 기울였다. 민국 36년(1947) 남경에서 열린 전후 성공회 총의회 전체대회에서 정화보 주교는 교원 주석(Chairman of the House of Bishops)으로 선출되어 전중국 성공회를 이끌었다.

민국 37년(1948) 정화보 주교는 두 차례 영국의 램베드 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후에 미국을 거쳐 귀국하려다 費城에서 불행히 중풍이 걸려 그곳에 머물면서 요양하다가 다시 캐나다로 가서 잠시 요양하고 건강이 회복된 뒤에 상해로 돌아왔다. 민국 38년(1949)에 그는 건강 관계로 성공회 직무를 사임하고 정식으로 은퇴하여 휴양하다가 민국 43년(1954) 6월 6일 안식하였다. 향년 70세 있다.

정화보 회독의 일생을 종합해보면 성공회 일에 몸을 바침에 있어 그는 반교풍조와 항전 점령기간의 역경 가운데에서 뛰어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중국성공회의 발전면에서도 외국의 회의에 파견되어 자립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데서도 뛰어난 역할을 했다. 그는 선대를 계승발전시킨 역할을 한 자다.

(『中國基督教人物小傳』중에서)

번역/서울대 중국어석경반

# 아름다운 발자취

敬 悅

## 사람이 定論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걸어야 하는 험하고 평탄치 못한 몇십 년의 노정을 다 마치고, 마침내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잠든 사랑하는 한 자매가 있다.

이 자매의 성은 위씨이다. 9세 때 주님을 영접하고, 56세 때 천국으로 가기까지의 몇십 년 간, 혹독한 시련을 겪는 중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갔고 삶 역시 더욱 풍성하였다.

그러했기에 최후의 죽는 순간에도 그녀는 부끄럽지 않게 「내가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요, 내가 죽어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었다.

##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심

위 자매가 태어난 때는 마침 항일전쟁이 발발한 시기였다. 그녀의 아버지가 홍콩에서 경영하던 날염공장 역시 치열한 전투 속에서 다 파괴되었고, 이 후 가정도 몰락하였다.

위 자매가 소학교에 다닐 때, 아버지가 실업자가 되었으므로 그는 중도에서 학업을 그만두고, 어린 나이에 노동자가 되어야 했다.

1956년 이후에, 아버지는 직업이 생겼고, 그녀는 비로소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다. 위 자매는 비록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였으나, 어렸을 때는 부모를 따라 매주 예배를 드리는 정도였다. 어느 정도 성장하여서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신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큰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이 솟아나게 되었다. 영성이 성장함에 따라 그녀는 영적 성장과 생명의 풍성함을 주께 봉사하는 교역자뿐만 아니라 주께 속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 후로 즐거우나 괴로우나 그녀는 주님만을 따랐다.



장승원 그림

## 환란 가운데 말씀 위에 건 고히 서서

대륙 해방 후 사상개조의 심화에 따라 기독교 신앙은 제국주의의 독소에 물든 것으로, 낙후, 미신, 반동 등과 같다고 여겨졌다. 한번은 그녀가 다니는 여자중학에서 교내의 기독교인을 모아 학습반을 개설, 그들의 사상을 개조하려 힘썼다. 이 바람에 분위기가 매우 험악해져서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말하지 않거나 문안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만이 여전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머리를 들고 가슴을 당당하게 폈다. 그녀의 반 답임은 그녀에게 책(신앙 비판 서적)을 몇 권 빌려 줄테니 보라고 했다. 그녀가 신앙을 비판하는 책 외에

다른 서적은 다 보겠다고 하니, 주임은 고개만 흔들 뿐이었다.

50년대, 위 자매는 당시 교회에 대해 큰 실망을 했다.

사회에서 서로 속이고 내가 죽고 내가 살자는 정치운동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어떤 목자는 오늘은 주의 군대가 될 것을 신도들에게 권하다가, 내일은 오두미(五斗米: 다섯 말의 쌀)를 얻으려 허리를 구부리고, 주를 팔고 친구를 파는 아침꾼이 되었다. 또 다른 교회를 봐도 역시 같은 상황으로 타락하였다. 그녀는 결과 속이 다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와 몇명의 지체와 함께 집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58년 여름 그녀는 성의 비밀 공장에서 기계조립공으로 배치되었다. 이 곳은 군수창으로

정치사상에 대한 요구가 특히 엄격한 곳이었지만 위 자매는 공장에 들어간 첫날 사람들에게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알렸다. 그래서 일할 때 그녀는 불평없이 전력을 다했고 따라서 아무 실수도 없었다. 그녀가 공장에 들어간 후 몇 차례의 인원 조정이 있었고 공장에서 그녀를 쫓아낼 기회가 있었으나, 책임자는 일 잘하는 그녀가 아까워 마침내는 남겨놓게 되었다.

60~70년대는 정치운동이 많았는데, '대로진(大路進)' '사청(四淸)' '문화대혁명' 등이 잇달았다.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위 자매는 성격이 강직하여 꺾이지언정 휘어지지 않았다. 여러 차례 운동을 거치면서 대자보에 나붙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능률하게 대처했는데, 심지어 대자보에 그런 하등 가치없는 소문에 대한 반박을 신기도 했다. 이는 절대 권력의 통치하에서는 도무지 있기 어려운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좋은 동료가 되었고, 그녀로 인해 손에 땀을 쥐곤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차례 또 한 차례씩 그녀를 평안히 인도하셨다.

##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여기는 혼인

위 자매는 중학을 졸업한 후 홀로 내지에 가서 일을 하였다. 그곳에는 주를 믿는 사람이 없었으며, 또 예배당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인과 접촉할 수 없었다. 이때 나이 이미 20세여서 자연 주를 믿지 않은 사람이 그녀에게 은근히 정을 보낸다거나, 어떤 동료는 그녀에게 사람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주를 믿는 형제가 아니면 차라리 영영 결혼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러다가 1955년 여름 휴가 때, 위 자매는 어린이 성경학교에서 린 형제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결혼은 성공하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두 사람의 배경이 아주 달랐다. 한 사람은 국가의 지배계급 즉, 노동자이고, 한 사람은 사상개조가 안되어 누가 보더라도 피하려는 반혁명 분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결혼은 방해를 받았다. 린 형제가 비밀공장의 노동자와 결혼하려는 것을 공장의 간부가 알게 되자 이는 「도리에 어긋난 대역이며, 무산 계급을 향한 공격」이라 여기고 결혼 동기 소개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절실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편

힘을 다해 결혼 등기처와 농장을 오갔다. 우여곡절 끝에 등기소의 직원은 비록 그들의 정치적 조건의 차이가 현격하지만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마침내 그들의 성의에 감동됐다.

그들에게 “쌍방이 결혼 전에 만일 다른 혼인의 갈등이 있다면, 스스로 책임진다”라는 보증서를 쓰게 한 후 비로소 그들에게 결혼증을 발급해 주었다.

## 주를 의지하여 난관을 극복하다.

결혼 휴가중에 위 자매의 공장 감독이 그녀를 농촌에 내려가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3개월 후에, 공장측에서 명령을 철회하여 그녀에게 계속 출근하라고 통지하였다. 린 형제는 그러나 예전과 같이 농장으로 일하러 돌아갔다. 그래서 위 자매는 매년 여러 차례 농장에 가 보아야 했다. 결혼 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딸을 주셨다. 두번째 분만 때 린 형제의 감독은 그가 휴가를 얻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치 않았다. 위 자매는 출산 후 잘 쉬지도 못하고 출산휴가가 끝났다. 시간에 맞춰 출근을 하고 한편으로는 아기를 키웠다. 그녀의 월급이 너무 적은데다

또 아이를 돌보아야 했으므로 자신이 먹을 것 입을 것을 절약할 수밖에 없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오직 그녀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견뎌 낼 수 있었다.

1982년 9월에 린 형제는 20여 년의 「취업」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집에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5개월 후, 청천벽력같이 린 형제가 갑자기 폐암에 걸리게 된 걸 발견하고 위 자매는 정말 놀라 멍멍해질 지경이었다. 위 자매는 더욱 매일 주 앞에서 눈물로 린 형제를 고쳐주시어 주의 영광이 그의 몸에 나타나기를 간구했다. 주님은 분명히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다. 린 형제가 주사를 맞지 않고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9개월 후에 그의 오른쪽 폐에 있던 종양이 없어졌던 것이다.

## 위암에 걸린 것을 발견하다.

1989년부터 그들 부부는 여전히 농촌에서 주를 위해 일해왔다. 그러나 위 자매의 체력이 늘 딸렸고 무릎이 아파서 걸을 때나 구부릴 때 몹시 힘들었다.

10월 15일에는 위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위 밑에 암이 퍼



장승원 그림

저 있어 저분화선암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위 자매가 이를 알고난 후, 오히려 침착하게 말했다. “아마 얼마 후면 나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버지와 어머니도 만날 수 있구요” 위 자매는 전에 린 형제에게 그녀가 그보다 먼저 가기를 희망한다고 털어 놓은 적이 있었다. 10월 21일 의사는 그녀의 위를 절제하기로 결정했다. 많은 사람이 그녀에게 좋은 의사를 만나도록 뒷돈 쓰기를 권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은 주님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는 막는 것이라며 “죽든 살든 나의 생의 길고 짧음은 주의 명령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내 팔을 내밀어 주의 손을 앞지를 수는 없습니다. 설령 인턴이 수술칼을 내밀더라도 나는 받겠습니다

다. 나의 주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수술 후 첫 두 달은 위 자매의 회복 상태가 호전되어 식욕이 좋아졌다. 그러나 이내 또 악화되었다. 한편 좌수골 아래 작은 임파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녀는 암세포가 일정시기 약화되었다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정신상태가 아직 괜찮을 때를 틈타 외지에 가서 지체들을 만나 보기를 희망했다. 자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괜찮았지만 많은 지체들을 끝까지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그녀는 괴로웠고 서글펐다.

사실상 위 자매가 위암에 걸렸다는 소식은 재빨리 전해져 입원한 첫날부터 즉시 많은 시와 외지의 신도들 그리고 많은 동료들이 그녀를 문안하였

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였다. 이 시기에 그녀를 충분히 쉬게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못내 보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설교의 은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단지 찬송가를 가르치거나 개인교제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아주 잠깐씩만 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한정된 시간을 이용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형제자매들을 권면하였다. 혹 그녀의 말이 모두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을 때에는, 이것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제사를 드렸다.

#### 화학 치료를 거절하다.

암은 일반적으로 수술 후 단기간 휴양하면서 화학 치료를 받게 된다. 위 자매는 약을 복

용하는 화학요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이 방법으로 치료하여 린 형제가 피곤하게 쫓아 다니는 것도 줄이고 주사 맞는 고통도 면할 수 있기를 바랐다.

어느날 그녀가 기도중에 주의 인도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나를 앙망하면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위 자매는 마침내 화학 치료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 여전히 충심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다.

이후, 건강상태가 호전이 되든 악화가 되든 그녀는 늘 하나님께 감사했다. 또한 그녀는 평상시 통증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기에 늘 주께 통증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통증이 심하기 전에 그녀를 데리고 가 주시라고 기도했다. 사후의 일에 대해서 위 자매는 또 일찍부터 처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의 최후의 시각이 왔을 때 그것은 주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당연히 기뻐하며 노래로 나를 환송해야 해요. 울지 말고 말이죠. 내가 만약 노래할 수 있다면 당신들과 함께 노래할 거예요. 내가 떠난 후 곧 유해를 화장터로 보내 화장시키고 유골도 남기지 마세요. 의복도 헌옷으로 입히세

요. 어쨌든 곧 불태워질꺼니까요.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농촌에는 아직도 빈곤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옷은 그들이 입도록 하세요.”라고 말했다.

위 자매는 처음 병원에 들어가서부터 집에 돌아온 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다. 아침 밥을 먹은 후 이어서 병이 나기 전 아직 다 베껴 쓰지 못한 성경을 베껴 썼다. 이후, 5개월 동안에는 오는 사람이 없을 때는 분초를 다투어 멈추지 않고 베껴 썼다. 심지어 점심에도 1분을 쉬려하지 않았다.

### 영원히 다른 사람의 위안이 되다.

세상을 떠나기 보름 전, 위 자매의 몸은 특별히 좋지 않았다. 3월 중순에는 단지 미음만 먹을 수 있었고 더욱 허약해져 침대를 내려올 수조차 없었다. 3월 20일에 이르자 이미 이를 동안 미음마저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녀는 의무소에 들어가 링겔 주사를 맞았다. 의사는 그녀가 링겔 주사를 맞은 후 집에서 이곳까지 수고할 필요없이 의무소에 머물길 권했다. 그러자 그녀는 “내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좋겠네요. 내가 만약 집에서 죽는다면 이웃

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할지도 모르니까요”하고 말했다. 이 최후의 시각에서도 그녀가 생각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이었다.

월말이 되자 위 자매의 병세는 매우 심각했다. 30일 새벽 1시 반, 위 자매의 호흡에 이상이 나타났다. 린 형제와 두 딸, 그녀의 유일한 언니와 사랑 안에서 그녀를 돕고 돌봐준 자매 한 명이 그녀의 침대 앞에 함께 모였으나 모두 울지 않고 단지 기도하고 찬양하였다. 3시 정각 그녀는 호흡을 멈추고 주의 품에 안식했다.

위 자매의 추도회에는 140명의 형제자매 외에도 몇십 명의 절친한 동료들도 있었다. 그녀의 요구에 따라 초상화를 걸지 않았고, 화환과 꽃바구니를 받지 않았다. 또한 그녀의 소원에 따라 추도회에서 린 형제가 말씀을 맡았는데 그녀의 아름다운 간증을 얘기하여 장내의 성도들이 위안을 얻게 하였다.

위 자매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자기를 버리고 주님과 형제자매를 사랑했던 그녀의 생애와 오직 진리의 말씀에 충성을 다했던 등등의 간증들은 그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 혹은 그를 몰랐던 많은 형제자매들까지 격려하고 있다.

(『中國與教會-95기』 중에서)

번역/인하대 중국어성경반

# 濟南부근의 전설

## 1. 수탁성(水托城)

현지인들은 제남성(濟南城)을 '수탁성(水托城)'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수탁성'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아주 오랜 옛날 어느날 밤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가득 퍼지며, 흙먼지가 날리고, 천지가 어두워졌다. 사람들은 너무도 무서워서는 모두 집안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잠시 뒤 홀연 경천동지의 괴성이 들려왔다. 사람들은 천지가 멸망하려는 것이라 생각하고는 벌벌 떨고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 대담한 사람 하나가 문틈으로 밖을 바라다 보고 있었다. 그는 한 선녀가 구름 위에 앉아서 춤을 추듯이 손발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바로 그 때 한 척의 금 배가 하늘로부터 수면으로 내려왔다. 바로 이어서 하나의 거대한 성이 따라서 내려와 이 금 배를 덮어버렸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 선녀의 술법이 그렇게 한 것임을 알고 향을 사르며 경배하였다. 얼마 후에 선녀는 바람을 타고 떠나갔다.

제남성이 바로 물위의 배가 떠받치고 있는 성이다. 그래서 또 '수탁성(水托城)'이라고 한다.

## 2. 제남성(濟南城)과 궐산(擲山)

제남현(濟南縣)성 북방으로 얼마를 가면 궐산(擲山)이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제남성을 떠받친 금 배의 선미의 밧줄이 이곳에 묶여 있다고 한다. 그래서 만일 이 산이 없다고 하면, 제남성은 물결에 휩쓸려 바다로 흘러가 버리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 3. 제남성(濟南城)의 금 배

안광이 예리한 남만자(南蠻子)는 제남성의 금 배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는 여러 가지 방도로 금 배를 얻을 생각을 해 보았다. 그러나 전하는 말에 의하면 금 배를 얻으려면 반드시 특수한 열쇠가 하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만자는 마침내 매일 도처에 이르러 이 열쇠를 찾았다. 후에 그는 한 염색을 하는 집에서 항아리에 재료를 섞는 방망이를 발견하였는데, 그것이 그가 찾던 열쇠와 비슷하였다. 이에 그는 고가의 금액으로 그 열쇠를 팔 것을 요구하였다. 염색집의 주인은 흔연히 동의하였다. 그런데 염색집의 젊은 점원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몰래 남만자의 뒤를 밟았다.

깊은 밤이 되자, 남만자는 성의 북문으로 가더니 방망이

**제남현 성 북방으로 얼마를 가면 궐산이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제남성을 떠받친 금 배의 선미의 밧줄이 이곳에 묶여 있다고 한다.**

를 한 번 흔들었다. 그러자 성문이 즉각 열렸다. 문 밖에는 한 척의 배가 있었고 주위는 모두가 물이었다. 남만자는 매우 민첩하게 배로 뛰어 올랐다. 그는 그 방망이를 샅대로 삼아 배를 움직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만일 이 배가 성을 나가 버린다면 제남성은 바다에 가라앉게 될 것이고, 성안의 사람들은 모두 고깃밥이 될 것이었다. 그래서 그 염색집 짚은 점원은 황급히 큰 소리로 외쳤다. 남만자의 술법은 사람들에게 의해 들켜버렸고 그는 물에 빠져 익사하고 말았다. 배는 다시 즉각 원래의 위치로 돌아왔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귀중한 금 배는 지금까지도 제남성 아래에 보존되고 있다고 한다.

#### 4. 와우산(臥牛山)의 금소

제남현(濟南縣) 동북쪽으로 다시 사오 리를 가면 와우산(臥牛山)이 있다. 이 산은 전에는 '금우산(金牛山)'으로 불리웠다. 옛날 이 부근의 한 농민이 이 산에 이르러 소를 방목하였다. 그런데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소 한 마리가 더 늘었다. 그러다가 황혼녘이 되어 산을 내려왔을 때 보니 소 떼는 또 원래의 숫자로 돌아갔다. 아무도 그 한 마리의 소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가 없



광주, 어느 구멍 가게에 차려져 있는 우상

었다. 뒤에 남만자는 어디선지 이 소문을 듣고는 이곳으로 왔다. 그는 이 산 속에 금 소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남만자는 산기슭에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는 한 농부가 심고 있는 '소과(燒瓜; 오이의 일종인 듯하다)'를 발견하였다. 그는 아주 많은 돈을 주면서 그 소과를 샀다. 그리고는 농부에게 백 일 후에 그가 와서 그 소과를 따게 될 것이니 그것을 잘 돌봐달라 말하고는 그곳을 떠났다. 후에 소과를 수확할 시기가 이미 지났는데도 농부는 먼저문에 남만자와 약속을 하였으므로 아직 소과를 따지 않았다. 그러나 채소를 심을 시기가 이미 지나게 되자 농부는 구십구 일 만에 그 '소과'를 따버렸다.

그 다음날 남만자는 과연 약속대로 돌아왔다. 농부는 그 오이가 당일에 만 것이라고 속여서는 남만자에게 주었다. 남만자는 농부에게 많은 돈을 주고는 대단히 기뻐하면서 그 '소과'를 들고는 금우산으로 향하였다.

금우산에 이르러 그는 한 무리의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남만자는 힘을 다해 '소과'를 소떼를 향하여 던졌다. 그 '소과'가 그 중의 한 마리의 소에 맞았다. 그러자 그 소 머리의 뿔이 끊어져서 땅에 떨어졌다. 남만자가 달려가서 그 뿔을 보니 황금뿔이었다. 만일 그 '소과'가 당일에 만 것이었다고 한다면 남만자는 금 소 한 마리를 통채로 잡았을 것이다. 이 금 소는 그

당시에는 '호랑이와 용이 서로 싸우게 되면 반드시 비가 오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다. 장룡이 오룡담에 뛰어든 후에 하늘에 즉각 검은 구름이 나타났고 이어서 여러 날 동안 호우가 내리서 농민들은 이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었다.

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는 산 속으로 도망하여 숨어버리고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지금도 금우산 중에는 뽕이 하나인 금소가 아직도 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금우산을 와우산으로 고쳐 부른다.

#### 5. 포산(鮑山)의 금 공

역성현(歷城縣) 동남으로 이리를 가면 포산(鮑山)이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춘추시대의 제나라 대부인 포숙아가 이산의 북쪽 기슭에 장사되었다. 그래서 이곳에는 지금껏 포숙아의 묘가 남아 있다. 오래전 이 산 중에는 한 쌍의 금동(金童)과 옥녀(玉女)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항상 금마(金馬)와 은마(銀馬)를 이용해서 많은 금 공을 갖고 있었다.

하루는 남만자가 와서는 이곳에 천하에 다시 없는 보물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산 동굴의 문이 꼭 닫혀 있었으므로 이 보물들을 도둑질해 갈 수가 없었다. 오직 북방의 산에서 나는 대추나무 중에서 동남쪽으로 뻗은 가지로 만든 열쇠가 있어야만 이 동굴의 문을 열 수가 있었다. 남만자는 이 나뭇가지를 발견하고는 이 대추나무 주인에게 많은 돈을 두고는 그 가지를 얻어서 열쇠를

만들었다.

어느날 저녁 남만자는 열쇠를 가지고 동굴 입구에 도달하였다. 그곳의 한 농부도 그와 함께 가서 그를 도왔다. 보물을 얻은 후에 그 농부에게 열마간을 나누어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들은 순조롭게 동굴문을 열었다. 그들이 안에 들어가 살펴보니 그곳에 미려한 동자와 동녀가 공을 갖고 있는 것이 보였다. 농부는 그 공을 집어서는 자신의 주머니 속에 넣었다. 남만자가 미녀와 말을 끌고 동굴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농부는 혼자 그 많은 보물을 차지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이들은 싸우다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동굴 밖으로까지 나왔다. 그러자 이내 동굴의 문이 닫혀버렸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서는 싸움을 멈추었다. 그러나 그 열쇠를 동굴 중에 놓고 온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동굴문은 다시는 열 수 없게 되었고, 남만자는 분에 가득찬 채로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농부가 자기 집으로 돌아온 후에 살펴보니 자신이 주머니 속에 넣어둔 공은 모두가 금 공이었다.

#### 6. 환향점(還鄉店)의 유래

환향점(還鄉店)은 제남현(濟南縣) 성 동북쪽 팔 리 되는

곳에 있는 자그마한 촌락이다. '환향점'이라는 이름에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옛날 이 촌락에는 항상 소를 끌고 와우산 산기슭에서 밭을 가는 농부가 한 명 있었다. 어느날 날씨는 청명한데 농부는 피로를 느껴 잠시 앉아서 쉬고 있었다. 그 때 산 위의 수풀 속에서부터 음성이 들렸다. 그 농부가 가서 살펴보니 두 노인이 그곳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다. 그들은 바둑을 두면서 복숭아를 먹고 있었다. 농부는 그 곁에 서서 그들이 바둑을 두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목이 말라 노인이 먹다 남긴 복숭아를 골라 먹었다. 노인들이 바둑을 한 판 끝내자 그제서야 농부는 자기의 일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산을 내려가 밭으로 갔다. 그런데 주변의 상황이 완전히 변해버렸다. 소와 농기구들도 모두 보이지 않았다. 그는 황망히 마을로 돌아갔다. 그러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농부가 바둑 한 판을 구경한 시간은 실제로는 천 년의 시간이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이 마을은 '환향점'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무한, 어느 관광품 가게(복 받기 위해 우상앞에 돈이 수북히 쌓였다)

### 7. 오룡담(五龍潭)

제남현성의 서쪽 관문에는 '오룡담'이라고 불리는 연못이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곳은 옛부터 용이 사는 곳이라고 한다.

청(淸) 광서(光緒) 연간에 큰 가뭄이 자주 발생하였다. 농작물이 말라 죽어가려고 하는데 장용(張龍)이라고 이름하는, 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남자가 호랑이 뼈를 안고서는 이 못으로 뛰어 들었다. 당시에는 '호랑이와 용이 서로 싸우게 되면 반드시 비가 오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다. 장룡이 오룡담에 뛰어든 후에 하늘에 즉각 검은 구름이 나타났고 이어서 여러 날 동안 호우가 내려서 농민들은 이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때부터

이곳에 가뭄이 나면 호골을 오룡담 안에 던지게 되었다.

### 8. 불대인(佛大人)과 교룡(蛟龍) (1)

전하는 말에 의하면 강희(康熙) 연간에 산둥(山東) 순무(巡撫)를 지낸 불륜(佛倫)은 나한(羅漢)의 환생이라고 한다. 이 사람은 불법을 통달하여 그 부하 왕대담(王大膽)과 함께 두 사람이 일체가 되어 적지 않은 큰 일들을 해냈다고 한다.

당시 제남현(濟南縣) 성 남문 내에 순황묘(順皇廟)라는 절에 한 연못이 있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연못은 황천(黃泉)으로 연결되는데, 그 연못에는 교룡 한 쌍이 살고 있어 항상 나와서는 난리를 피

웠다. 그래서 어느날 불대인은 왕대담을 데리고는 이 순황묘에 이르렀다. 자웅(雌雄) 보검(寶劍)과 세 장의 부적을 왕대담에게 주어 보관하게 하였다. 불대인은 "지금 나는 연못 안으로 들어가 교룡과 싸우려고 한다. 내 손이 처음 수면으로 나오면 너는 자검(雌劍)을 나에게 건네주고, 나를 위하여 부적을 살라라. 연못의 물 색깔이 변하면 다시 두번째 부적을 불살라라. 만일 내 손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 너는 웅검(雄劍)을 나에게 주고 세번째 부적을 불살라라."고 하였다.

말을 마치고 불대인은 연못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얼마 후에 연못 수면 위로 손이 올라왔다. 왕대담은 자검을 그에게 건네 주었다. 그리고는 한 장의 부적을 살랐다. 다시 얼마를 지나자 연못의 물 색이 변하였다. 왕대담은 암교룡이 이미 죽었음을 알고는 다시 두번째 부적을 살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물소리가 나더니 한 줄기 빛이 나타났다. 수면 위로 갑자기 커다란 황금 손 하나가 나타났다. 왕대담은 이 광경을 목도하고는 너무 놀랜 나머지 죽고 말았다.

그래서 불대인은 수교룡을 죽일 수가 없어 다만 쇠사슬로 이 수교룡을 연못 안에 묶어



운남성 용문에 있는 중국인들이 섬기는 우상

두었다.

### 9. 불대인(佛大人) 과 교룡(蛟龍) (2)

당시 수교룡이 불대인에게 쇠사슬로 묶이게 되었을 때, 용은 “나한님, 언제 나를 풀어 주실 건가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불대인은 “쇠나무에 꽃이 필 때이다.”라고 말했다.

후에 한(漢) 순무가 순황묘에 와서 예불을 하는데, 그날은 날씨가 대단히 화창하였다. 그는 머리에 썼던 붉은 모자를 벗어서는 연못가에 있는 쇠로 만든 막대 위에 올려 놓았다. 그러자 바로 이 때, 연못 아래로부터 거대한 소리가 들리더니 연못 물이 끊임없이 용솟음쳤다. 순무와 그 시종들은 이러한 광경을 보고는 모두 놀라서 도망하였다. 그런데 그 시종 중에는 과거에 불대인이 쇠사슬로 교룡을 묶어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물속의 거대한 소리가 붉은 모자와 필시 관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즉각 그 붉은 모자를 그 쇠막대기에서 벗겨버렸다. 그러자 희한하게도 연못 물이 즉시로 고요해졌다.

### 10. 왕령관(王靈官)의 묘

왕령관(王靈官)의 본명은 왕상(王常)이며, 한(漢) 서촉(西蜀) 사람이다. 일찍이 장도릉(張道陵)을 따라서 도를 닦았다. 그의 묘는 역성현(歷城縣) 공서(公署)의 북쪽에 있다. 병든 사람이 그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면 곧 병이 나았다고 한다.

이주 오래 전에 이 일대의 주민들은 혼례와 장례를 행하고자 할 때는 이 왕령관의 묘 앞에서 향을 사르고 예배를 드리며, 왕령관에게 자기네들이 혼례나 장례에 쓸 목기(木器),

자기(磁器) 혹은 기타 용품을 빌려줄 것을 기도한다. 그러면 이튿날 새벽 왕령관의 묘 앞에는 반드시 그들이 요구한 수만큼의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규율을 지켜서 그릇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황혼 전에 왕령관의 묘 앞으로 가져다 두었다. 그런데 후에 어떤 사람들이 그릇을 빌려온 후에 그 본래 자리에 돌려주지 않았다. 이 일이 있던 뒤로부터 사람들이 아무리 기원을 해도 왕령관의 묘 앞에는 다시는 그릇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中國民俗學』 중에서)

번역/김성곤(중국어문선교회 운영위원)

중국어로 찬양을!



# 기뻐하며찬양하리 萬國都要來讚美主

Stephen Hah

기뻐하며찬양하리      민족과열방가운데      온땅위에  
 萬國都要來讚美主      萬民都要來讚美主      敬拜耶和

전하라      주님의도를      열방중에      전하라      주의구원을      을  
 華唱詩      來向祂歡呼      讚美耶和      華萬民      都快樂歡呼

주께경배드리세      영원하신우리하나님      경배하리  
 敬拜讚美耶華和      凡有氣息都要讚美祂      敬拜耶和

라      찬양하리      라      나의생전에      주를      송축하리      라      나의평생  
 華      讚美耶和      華      我們活著      是      爲要      敬拜讚美      祂      我們活著

에      주를      찬양하리      라  
 是      爲要      敬拜讚美      祂

# 最後的命令—大使命

約廿一7-18; 大廿八16-20; 路廿四44-51

# 마지막 명령-대사명

(요21:17~18, 마28:16~20, 눅24:44~51)

門徒整夜在加利利海捕魚，但無所獲。天亮時，他們看見一個人在岸上，叫他們把網撒在船的右舷。他們照着作—突然間，魚網滿是魚，連這些有經驗的漁夫也拉不上來。約翰再查看岸上的人……

彼得，你  
是主啊！  
“베드로야, 봐라.  
“주님이시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그러나 소득이 없었다.

새벽녘에 그들은 해안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했다. 그들이 그렇게 했다.—갑자기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이것을 경험이 있는 어부조차도 끌어 올릴 수 없었다. 요한은 다시 해안에 있는 사람을 보았는데……

彼得太急於要見耶穌，他跳下水中，游到岸上。其他的門徒把船駛靠岸，拋了錨。

魚網拖上岸來，門徒都餓了，耶穌叫他們過來。

베드로가 매우 서두르며 예수를 보기 위해 물 속으로 뛰어 들어 해안을 쳐서 해안으로 왔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해안에 대고 닻을 내렸다.

來吃吧。  
“와서 먹어라”



他們吃完了，耶穌和彼得說話。  
그들이 다 먹고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彼得，你  
愛我嗎？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主啊！  
我愛你，  
你是知道  
的。“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십니다.”



耶穌再問彼得同樣的問題兩次，彼得  
每次都表示他實實在在愛他，忠心於他，  
耶穌於是交給他一個大任務。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같은 문제를 두 번 물었고,  
베드로는 그때마다 진실로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충성하겠다고  
표현했다. 예수님은 그에게 큰 임무를 맡겼다.

彼得，照顧我  
的信徒。“베드로야,  
나의 신도들을 돌보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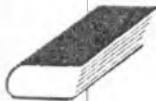
幾天後，耶穌在五百名信徒面前顯現。在耶穌的  
命令下，他們集合在加利利海附近  
的山上。他給了他們一個大使命：

며칠 후, 예수님은 500명의 신도들 앞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들은 갈릴리 해변 부근의  
산상에 모였다.  
그는 그들에게 대사명을 주었다.

所以你們要去，使萬民作我的門  
徒，奉父子聖靈的名，給他們施洗，  
凡我所吩咐你們的，都教訓他們遵  
守；我就常與你們同在，直到世界  
的末了。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 중국, 우리의 이웃

#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막아 서라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제공



## 중국, 우리의 이웃

안성진 목사

기독교문사 (값 3,500원)

이 책은 미국 시애틀에서 한인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안성진 목사가 중국을 다녀온 후 그가 보고 느낀 것을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다. 그는 홍콩, 계림, 상해, 남경, 낙양, 서안, 섬서, 북경 등을 20여 일 둘러보았다.

짧은 기간 동안 중국에 가서 제한된 지역을 보고 중국을 말한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이 글의 저자는 이 글을 쓰면서 단순히 보고 들은 것 외에 중국의 역사와 상식을 곁들여 많이 생각하고 쓴 글임을 알 수 있다.

목사면 으레 선교사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선교 차원에서 여행을 했으리라 짐작하지만 이 책 저자의 중국 여행은 선교 차원이 아니었다.

중국인들의 내면세계를 조심스럽게 살펴 그것을 하나하나 탐문함으로써, 먼저 그들의 세상을 배우기 위함이었다. 그것이 선교를 향한 제일보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의 저자는 책의 맨 끝에 中國의 지리, 역사, 인구, 종교, 교육 등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중국을 이해하기 쉽도록 부록으로 실고 있다.

이 책은 1991년도에 발행한 것이기에 지금의 중국과는 다른 점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 책이 선교를 위한 사명자들이나 아시아의 주역을 꿈꾸는 청년들, 혹은 중국여행을 즐기는 여행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박광희 지음, 도서출판 두레마을  
(값 4,000원)

이 책은 중국 선교사였던 에릭 리들의 전기로 박광희 씨가 독일에서 여러 자료를 수집, 조사하여 쓴 것이다.

이 책의 주인공 에릭 리들은 우리에게 낯선감이 있다. 특히 그가 중국의 선교사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에릭 리들은 1902년 스코트랜드 선교사의 아들로 중국 천진에서 출생. 탁월한 육상 재능을 가졌기에 대학에 입학한 뒤 본격적인 선수 활동을 하였다.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대회에서 그는 영국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100m 금메달 유망주였으나 그 예선경기가 주일에 있다는 이유로 달리를 거부하여 파란을 일으켰다. 결국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400m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따내는 영광을 얻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듬해 모든 영광을 버리고 그의 아버지와 형의 뒤를 이어 24세의 젊은 나이로 중국선교사의 길을 택했다.

중국에서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전파에 힘쓰다가 그의 나이 44세 때인 1945년, 일본군 억류 수용소에서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다.

주일 성수를 철저히 주장한 그의 신앙이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된다. 또한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좁은 길을 택했던 그의 헌신적인 삶이 감동을 준다. 이 책은 세상사람과는 다르게 살아보고자 노력하면서 최선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격려와 도전을 줄 것이다.

## 무너진 성벽을 막아 서라

데이빗 브라이언트 지음  
조이선교회 (값 3,000원)

이 책은 서울에서 '91년 '92년 두 차례 기도함주회 세미나를 인도한 바 있는 데이빗 브라이언트가 쓴 것으로 중국선교와 관련이 있는 책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는 이 책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위해 헌신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믿기에 추천도서로 선정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세상에서 안주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알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라고 비유하고 있다. 알에서 깨어나 껍질을 깨고 껍질 밖으로 나와서 지상명령의 달성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은 1부에서는 선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세계를 품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도록 동기부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어떤 사람은 직접 가는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파송하는 선교사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2부에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등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세계선교의 비전을 그리도록,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세계선교의 비전을 여러 모임을 통해 서로 나누라고 말하고 있다. 부록으로 소그룹을 위한 공부 지침, 개인전략,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성경공부 자료, 선교관련도서와 회보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선교에 대한 성경의 교훈과 실제적인 조언을 제시하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도전하고 있다.

# 알고 갑시다



## 1. 중국 화폐(통화단위: 원)

- 人民幣(런민뻬): 중국 내국인들이 사용하는 화폐
- 外匯券(와이후이췌엔):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화폐

▲ 단 위

┌	지폐 - 100원 50원 10원
	5원 2원 1원
	50각 20각 10각
	5분 2분 1분
└	동전 - 5분 2분 1분

## 2. 환전(환율)

한국인이 중국에 가서 달러를 환전하면 외국인이 사용하는 외화권을 준다. 중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돈을 외화권으로 바꾸는 일인데 중국인 민은행에서 환전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나, 공항·호텔·외국인 전용백화점 등에서 바뀌도 환율은 똑 같으니 꼭 은행을 찾을 필요는 없다.

\* 환율은 중국돈 1원에 한국돈 150원 ('92년 9월 1일 현재) 100달러는 중국돈 525원.

## 3. 전화·편지·FAX

- ▲ 북경에서 서울로 엽서를 띄우면 8일 정도 걸린다.
- ▲ 국제전화 사용(국제통화료: 1분에 12원 10전)  
(중국에서 서울로)  
00 - 82(한국국가번호) 2 (서울지역) - 000 - 0000(수신번호)  
(서울에서 북경으로)  
001 - 86(중국국가번호) 1 (북경지역) - 000 - 0000(수신번호)

### ▲ 중국 지역번호

북경(01) 상해(021) 천진(022) 심양(024) 장춘(0431) 서안(029) 남경(025) 연변(0433) 대련(0411)

### ▲ 국제 FAX 사용

(북경에서 서울로)  
1장당 43원을 지불해야하고 북경에서 FAX를 받을 때도 1장당 6원씩을 지불해야 함.

### ▲ 공중전화는 1통에 20전

## 4. 북경의 택시 요금

- ▲ 버스요금: 1-3 정거장까지 10전
- ▲ 택시요금: 기본요금은 12원 1km당 2원씩 올라감(신모델의 차가 더 비싸다). 하루 북경 시내 택시 대절료(8시간 기준) 250원. 만리장성까지 택시 대절료 250원-300원. 천안문-국제공항 택시요금 80원 정도



## 중국여행 상식

### 5. 중국 여행시 휴대 필수품

▲ 고추장: 부슬부슬한 밥에 기름기 있는 요리들이기에 고추장만 있으면 걱정없다.

▲ 맛 김: 중국에는 김이 없다. 어덜가나 맥주는 흔하므로 맛 김을 준비하면 좋다.

▲ 인스턴트 커피·인삼차: 열차 안에나 호텔의 객실에는 항상 뜨거운 물이 준비되어 있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커피 한 잔, 인삼차 한 잔에 피로를 풀 수 있다.

▲ 운동화: 중국대륙은 만리장성을 비롯 가는 곳마다 걸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두는 좋지 않다. 운동화로 갈아 신고 여행을 즐기도록.

▲ 젖은 티슈: 중국은 건조한 기후에 황사현상이 심하므로 호텔에 돌아오면 양치질과 손 씻기를 열심히 해야 한다. 또한 여행 다니면서 손 씻을 장소를 찾기가 힘들므로 젖은 티슈는 필수적이다.

▲ 선글라스·안약: 황사현상으로 바람이 불면 눈 뜨기가 힘이 든다. 중국인들은 누구나 선글라스를 계절과 관계없이 쓰고 다니는데 몇보다도 황사현상에 대비한 눈 보호용이다.

### 6. 중국의 식수 사정

중국에서는 생수를 마실 수 없다. 여행중 호텔에서 수도물을 그대로 마시는 것은 금물이다. 북경의 경우는 석회석이 많아 주전자나 탕기에 석회가 쌓인다. 상해에서는 호텔에서 물을 틀면 색깔 있는 물이 나와 여행객들이 많이 놀라곤 한다. 물은 꼭 끓인 물을 마시든지 미네랄워터를 사서 마셔야 한다. 조금 냄새가 나긴 하지만 그런대로 인이 박히면 그것도 맛으로 느껴져 먹을 만해진다.

### 7. 중국의 공중목욕탕

중국인의 목욕 횟수는 우리와 비교하면 너무 적다. 기후나 풍토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자주 목욕을 하게 되면 피부가 거칠어진다고 해서 목욕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중국에 가면 공중목욕탕인 욕지(浴池)에 한 번쯤은 가보는 것이 좋다. 단, 심장이 강한 사람만이 목욕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물 색깔이 우리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리포트(심철호)』 중에서)

## 그리스도인의 삶

몇 년 전 제가 약 3주 간의 미주여행을 하면서 어느 분으로부터 들었던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어느 미국 공과대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미국 동부에 있는 어느 공과대 학생인데 그의 아버지는 과거에 한국에서 20여년 간 선교사로 일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한국을 언제나 동경하며 특별히 한국 여성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공과대학에서 2년 간의 공부를 마치고 중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하던 중 한국 여학생을 만나 결혼을 하고 중국 선교에 대한 소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마치고는 다시 전에 다니던 공과대학으로 돌아와서 남은 기간을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는 목사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기술자로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에게 그분에 대해 말씀을 전해준 분은 그와 대학에서 같이 공부하고 그가 결혼한 후에는 그들과 이웃해서 살던 부부인데 그 부인의 말에 의하면 그 미국인 대학생 부부는 여름에는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있고 밤에 잠을 잘 때에도 베개를 베지 않고 그냥 바닥에 누워 자고, 그리고 슈퍼마켓에 식품을 사러 가서도 꼭 날개를 헤아려서 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장차 선교하러 갈 중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쉽고 안일하게 살아가도 되는 그러한 값싼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자기 훈련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는 값비싼 것입니다.

임영수/영락교회 목사, (『삶, 그리고 성령』 중에서)

# 선교중국어 집중코스에 임하면서

한 마태

금년 7월 어느날 석간신문의 조그만 기사광고란에 “중국선교 세미나 개최” 안내를 읽은 후 중국어문선교회를 알게 되었고, 단지 전문강좌에만 관심을 갖고 선교회를 찾은 나에게 친절하고도 설득력있는 장희락 총무의 권면으로 5개월 간의 집중코스 훈련에 임하도록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첫 강의 시작일에 예배 및 개강 분위기는 너무나도 뜨거웠으며 더욱이 우리가 3기생으로 훈련받게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즉 다른 기보다 한국 제일의 강훈련에, VTR 등 좋은 시설에,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커리큘럼 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시작한 지 꼭 일 개월이 지났는데 훈련소감을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종전 나는 중국어로 무엇을 외울 수 있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으나 지금은 주기도문, 사도행전을 줄줄 말하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간단한 전도설교자료인 “上帝不沈黙”의 긴 내용도 별로 막힘이 없이 외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6년 간 굳어졌던 내 입을 서서히 풀게 하셔서 발음, 사성, 단문회화가 잡혀

가면서 방송대 초급중국어 1권 25과를 벌써 마스터 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이보다 내 변화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이는 예비선교사로 알고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또 이에 감사하여 훈련생 모두 함께 뛰어가게 하신 주님의 역사인 것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나는 목회를 담임하면서 또 여러 할 일들이 산재해 있지만 주님은 최우선적으로 이 훈련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아침 8시부터 우리 모두는 열심히 진지하게 공부에 빠져들고 있음을 볼 때마다 이 분위기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향후 12억 이상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선교할 자로 세우시기 위해 중국어와 문화, 역사 등을 준비시키시는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로 알고 감사하며 이 아침도 책들을 챙겨 뛰어 달리고 있습니다.

## 주님의 좋은 군사로

이에스더

상쾌한 아침!  
드디어 두 달 동안이나 손  
뾰아 기다리던 오늘.

개강예배와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날이다. 토요일이라 늦  
지 않게 출발했기 때문에 충  
분히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기도  
해야지.....

“저에게 용기를 주시어서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하셨  
으니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이겨내고 승리하므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하소  
서” 한낮의 더위에 지친 것처럼  
버스는 내 생각과 계획과  
는 상관없이 느릿느릿 기어가  
기 시작했다. 시계는 이미 예  
배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려  
주었고 빨리가야 한다고 내  
귓전에다 대고 바쁘게 똑딱  
똑딱.....

“내일 늦지 않게 오세요.”  
“당연히 늦지 않게 와야죠”  
라고 간사남에게 대답했는  
데..... 덜컥 세차게 문  
을 열고 나를 떨어뜨려 놓고  
는 버스가 쏟아져 가버렸  
다. 붉게 달아오른 내 얼굴,  
헐떡이는 숨소리. 앞으로 5개  
월을 이렇게 다녀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함에 더욱  
힘이 빠져가고 있었다. 그 때  
작은 건물이 떠나가도록 힘차  
게 울리는 찬양 소리에 난 정  
신이 번쩍났다.

Q.T 강의를 통해 다윗의 시  
인 시편 23편 말씀은 5개월  
동안 나를 붙들어 줄 수 있을  
만한 힘이 되었다. 자신있게  
시작한 중국어 공부는 생각보  
다 쉽게 느껴지지 않았다. 첫  
한 주간은 발음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머릿속으로는 알 것  
같고 내 발음이 정확한 것 같  
은데 막상 입으로 내는 발음  
은 엉뚱한 발음이 나오곤 했  
다. 큰소리로 따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셔서 온몸에 힘  
을 주고 외워갔다.

원래 목소리도 작고 편도도  
약했기 때문에 4일째 되는 날  
드디어 내 목은 부어가기 시  
작했고 이른 새벽부터 나오다  
보니 감기까지 심하게 걸려서  
앞으로의 공부를 위해 당장  
병원을 다녀왔다. 초반기는  
중요한 것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파서 결석하면 안되  
었다. 다행히 한 대의 주사와  
약으로 회복이 되었다.

다른 학생들도 조금씩 힘들

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 나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다. 특히 옆자리에 앉으신 짝꿍 목사님은 교회사역을 하시어 바쁘신 중에도 숙제도 잘해오시고 암송하는 것도 누구 못지 않게 잘하셨으며, 발음이 많이 부족하다면서 열심히 참고 하자고 하셨다. 제대로 읽지도 못하였는데 마구 빨리 빨리 진도를 나간다고 불평이 생기기도 했고, 선교중국어 과목은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이긴 했지만 무조건 다 외워야 했기에 따라 가기가 어려웠다.

한 달 정도 부지런히 따라 읽고 외우고 쓰고 난 어느 주일 오후 예배 때의 일이다. 중국 목사님께서 예배 설교를 했는데, 그때 배운 단어와 문장들이 귀에 들렸고 뜻을 잘 알 수 없었지만 성조를 구분하여 발음을 들을 수 있었다. 마지막 목사님께서 주기도문을 할 때 나도 함께 따라 할 수가 있어서 얼마나 신나고 기뻐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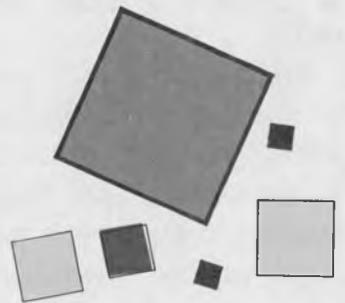
나도 모르게 실력이 늘어가고 있었고 보고 듣고 한 것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조금씩

향상되어 가고 있었다. 꼭 필요하고 좋은 과목들과 늘 기도하시면서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교수님들과 함께 남은 앞으로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성실하게 공부해 가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

선교를 위하여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어도 언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도, 선교지의 사람들과 교체할 수도 없고 그들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할 수도 없다.

때로는 바쁘고 힘드니까 다음에 하지 뭐 하는 연약한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뒤로 미루지 말고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 언어이다. 포기하고 싶고 힘들 때마다 강의실에 걸려 있는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한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딤후2:4)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제공

## 종교

### ● 정광훈 정협위원회 부주석 연임

중국 기독교협회 회장 정광훈 주교는 3월 26일의 정협 8기 1차회의 제6차대회에서 정협위원회 부주석으로 당선연임되었다(도합 25명의 부주석). 그 밖에 정주교는 4월 방한 기간에 서울 연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8기정협의 기독교지도자 중 王神蔭 주교, 羅冠宗과 蔡文浩 목사도 8기정협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심천특구보>1993. 4. 17, <天風>1993. 5)

### ● 山東教會가 海外教會를 배척하다.

최근 내지에서 관광하고 돌아온 한 성도의 말에 의하면 그간 관광기간에 山東 모지방의 교회를 탐방하였는데, 그가 접촉한 교회신도들에게서 강렬한 배외 정신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山東教會는 종래 海外教會와 접촉이 적어 해외신도들과의 교통을 싫어하였고 더욱기 외부의 도움과 지도를 거부하였다. 그 원인은 한 면으로 볼 때 해외교회가 들어오면서 본토교회의 혼란을 조성하였으며, 예로 하남교회가 그러하다. 금년 3,4개월 사이에 현지 교회지도자들은 회의를 소집하여 해외교회와 아무 접촉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밝혔다. (莫忘神州 1993. 7)

### ● 중국정부 기독교인 박해

홍콩의 기독교 단체와 비정부 조직(NGO'S)은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지난 7월 18일 South China Morning Post지는 본토에서 경찰들이 Henan 지방의 1천여 명 기독교인들을 체포 구타, 구금했다는

보도와 한편 Public Security Bureau지 역시 기독교도들에게 터무니없이 막대한 벌금을 물리고 이를 내지 않으면 체포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홍콩 교회의 한 간부는 자신의 집에서 극히 개인적인 일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까지도 경찰들이 쳐들어와 집을 수색했다고 언론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Asia Watch' 역시 이와 비슷한 내용의 보고를 받고 UN에 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촉구했다.

(기독교연합신문 93. 8. 29)

### ● 한·중 신학자 교환협의

전국신학대학협의회(KAATS)임원진이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중국기독교협회(OCC)를 방문, 한·중 신학자 및 학생들의 교환문을 비롯 국내 신학자들의

저술을 중국어로 번역·출판하는 문제를 중국교회측과 집중 논의했다. KAATS 대표단은 방문 기간동안 남경소재 금능신학원을 방문, 중국 신학자들과 중국교회와 신학교육 현황에 대해 간담회를 갖는 한편 요녕성 심양에 있는 동북신학원을 방문, 조선족 목회자 교육프로그램을 시찰했다. KAATS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국교회와의 교류를 공식화하기로 하는 한편 앞으로 조선족 목회자의 배출을 위해 협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크리스찬 신문 93.8.14)

● 동북신학원 재건 추진

중국의 허룽강성, 요녕성, 길림성 등 조선족 동포 200여만 명이 살고 있는 동북 3성에 목회자 양성을 위한 동북신학원 재건을 한국교회가 추진하고 있

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동북신학원 후원사업회』(상임본부장이중표 목사)는 지난 5일 한신교회에서 조선족을 위한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동북신학원 재건을 돕기로 하고 후원사업회 창립예배를 드렸다.  
(들소리 신문 93.9.10)

● 중국은 포교활동 위한 여행 제한

종교인들에 대한 특정국가여행 추천제도가 완화된다. 문화체육부 중무지원과에서는 지난달 31일 “특정국가 여행추천 처리 지침”을 개정 개신교를 포함한 각 종교단체에 전달했다.

그러나 일부 특정국가, 특히 중국같은 경우는 외국인인의 종교활동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선교, 포교활동을 위한 여행 및 관광성 여행은 제한키로 했다.

(기독교연합신문 93.9.24)

● 韓中교회의 선교협정 체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최희섭)와 중국기독교협회(회장: 정광훈)는 지난 6-16일 중국 남경에서 양국 교회간 공식적으로 최초인 한중교회협의회를 열고 양국 교회간 선교협력을 위한 협정문을 체결했다.

「한중교회 선교의 관계와 협력」을 주제로 양국교회 30여 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 양국교회 대표들은 『중국내 선교는 중국교회가 자주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이 중국정부와 중국교회의 원칙임을 확인한다』는 협정문에 조인해 선교협력에 대한 상호이해와 존중의 동반자 관계를 확인했다.

(한국기독교공보 93.9.25)

한중관계

● 韓中항로 독자운항

韓中海운업체는 앞으로 양국항로에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취항할 수 있게 됐다. 해운항만청은 최근 北京에서 열린 韓中海운협의회에서 지금까지 韓中항로에서 합작형태로만 취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독자운항을 허용토록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양국은 당분간은 항로질서 안정을 위해 양국이 동일한 선

복량을 투입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중국측은 그동안 유보해왔던 한국 해운업체의 중국내 지사 설치, 화물 집하활동, 선하증권 발행 등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키로 했다. 양국은 또 부산-上海, 부산-煙臺, 인천-大連 등 3개항로를 가능한 한 올해 안에 개설키로 합의했다.  
(중앙일보 93.8.25)

● 韓·中 올 교역액 百億달러 웃돌듯

올해 한국과 중국간의 직·간접 교역액은 1백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23일 보도했다. 차이나 데일리는 이날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고위 경제전문가인 우싱두 씨의 말을 인용, 작년 8월 韓·中수교 이후 양국간의 간접교역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고 중국은 공업제품을 수입하는 등 양국경제는 상호보완적이고 불가피한 협력관계에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국민일보 93.8.24)

● 한국기업 2백개社 중국天津 잇단 진출

중국 天津에다 한국기업이 몰려들고 있다. 현재 天津시에 공식 등록된 투자업체 수는 60여 개사에 불과 하지만 실제로는 2백여 기업이 활동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한국기업 러시는 홍콩 유력지 明報에서도 특집으로 소개할 정도다. 天津에 한국기업이 몰리는 배경은 서울-天津간 항공기 직항노선의 개설 등 비즈니스로 필요한 기본요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토지 개발 공사가 대형 한국공단 건설작업에 돌입, 투자여건이 호전되고 있다.

(조선일보 93.9.13)

● 延邊 科技大 개교

국내외동포들의 성금으로 설립된 延邊과학기술대학(학장 金鎮慶)이 9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洲都인 延吉市 北山街 30만 평의 대지위에 세워진 이 대학은 특히 중국내 조선족동포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동북지방에 위치한 최초의 「해외민족대학」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조선족동포교육의 요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변과기대는 이와 함께 金학장이 이날 개교식에서 행한 인사말에서도 강조했다듯이 두만강개발계획 등으로 동북아경제권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지역 교육의 중심이자 韓中문화교류의 상징으로 장기적으로는 南北관계 개선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93.9.9)

● 中國여행 10월부터 自由化

정부는 작년8월 수교 이래 中國과의 인적, 물적 왕래가 부쩍 늘어남에 따라 10월께부터 中國에 대한 여행허가제도를 철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中國여행이 자유로워 두 나라간에 여행등 인적왕래가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1993.8.16)



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는 중국사람들  
(사천성 중경에서)

## 정치

### ● 李鵬 집무복귀로 본격화

지난 22일로 89회 생일을 맞은 최고 실권자 鄧小平의 건강상태와 관련, 현재 중국에서는 각종 루머가 난무하고 있으며 鄧小平 후계체제를 둘러싼 내부 권력투쟁도 점차 가열되고 있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紙가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해수욕복 차림의 이봉총리 사진을 게재, 이봉의 존재를 과시했다. 이는 鄧 사후에 대비한 保革간 권력투쟁이 본격화됐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3.8.25)

### ● 2000년 올림픽 유치 실패

오는 2000년의 올림픽 개최지가 北京이 아닌 호주의 시드니로 결정됨에 따라 중국의 좌절은 이만저만하지 않다.

中國은 외관상으로는 결과에 승복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막적으로는 이번 유치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이 인권문제를 트집잡는 미국과 영국의 방해 때문이라고 보며 이들 국가에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일보 93.9.24)

### ● 李鵬 사표제출 鄧이 반러설

李鵬 중국 총리는 지난달 중국 공산당 정치국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최고 지도자 鄧小平이 총리직을 계속 맡도록 지시했다고 홍콩 聯合報가 12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李鵬이 사표를 제출한 후 그의 거취가 불투명했으나 鄧小平이 총리직을 계속 수행토록 지시해 신상 문제가 일단락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93.9.13)

### ● 鄧 사후 中國분열은 허구

汝信 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21일 『중국의 최고 실권자 鄧小平 사후에 유고와 같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최근의 보도는 전혀 근거가 희박한 예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초청으로 訪韓중인 그는 『사회과학원이 내부분견을 통해 鄧小平사후 중국의 분열가능성을 지적했다는 서방언론의 보도는 날조된 것』이라면서 『사회과학원에서는 그같은 내부분서를 만든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93.9.23)

### ● 中, 鄧사망대비 더욱 강화

中國은 덩샤오핑(鄧小平)의 死後에 대비, 장쩌민(江澤民) 당총서기, 주룽지(朱鎔基) 부총리, 차오스(喬石)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江-朱-喬」 3頭마차 체제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日本의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8일 北京發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질병으로 요양중인 리펑(李鵬) 총리가 오는 10월 공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李鵬 총리의 장기 부재 이유가 건강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치적인 배경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93.8.9)

## 경제

### ● 中國, 210개 大型사업추진

中國은 최근 21세기 산업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0년까지 각 분야에서 국가주도 아래 중점적 추진을 위한 2백10개 대형프로젝트를 선정,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국가계획위원회·대외무역경제 합작부가 공동으로 선정한 이 국가중대기술추진과제는 농경지 개발·각종 자원개발과 사회기반시설건설 등이 주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산업별로 분류하면 ▲농·임업▲에너지▲교통▲체신▲환경▲교육▲화공▲건설▲기계▲전자▲금속▲경공업▲방직▲의약▲위생▲기상 등 16개분야로 총투자액이 3백억 달러에 달한다.

(중앙일보 93.8.25)

### ● 中, 건축조지 추가시행

中國은 과열경제를 막기 위해 지난 7월 3년 만에 처음으로 16개항의 건축조치들을 도입한 데 이어 새로 10개항에 걸친 강력한 건축조치들을 전국에 시달했다고 홍콩스탠더드지가 9월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의 정통한 금융계 소식통들을 인용, 이번 조치는 중국의 중앙은행인 中國人民銀行 내부보고서에 실려 전국의 지방정부들과 중국인

민은행 지사들에게 하달했으며 무분별한 자금조달과 투자를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인민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앞으로 모든 자금조달 활동은 중국인민은행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중국인민은행 본사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선일보 93.9.10)

### ● 中國特需 끝나지 않았다.

최근 中國 정부가 취한 건축조치로 中國 特需가 끝났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중국 특수는 충분히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산업연구원은 최근 對中 수출의 위축은 인민폐 하락과 일부 품목의 비정상적 수출에 기인한 단기적 현상이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특수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그 근거로▲ 올해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0%를 넘고 고정자산 투자도 40%까지 늘어날 전망이어서 수입수요가 여전히 크며 ▲최근 중국의 건축조치가 88-91년의 건축정책과는 달리 개혁파인 朱鎔基 부총리가 주도하고 있어 대외개방조치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중앙일보 93.8.25)

### ● 中國 외국인 투자 부쩍 증가

中國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올 상반기에도 지속적인 급증세를 나타냈다고 중국 대외무역경제 합작부의 한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정부는 올 상반기중 5백87억5천6백만 달러에 달하는 4만3천6백32 건의 외국인투자승인, 외국인 투자건수 및 투자 규모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34.3%와 약 300%의 급증세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간중 실제 외국인 투자액수는 93억 9천6백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9.8%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 중국에 대한 주요 투자국 중 특히 캐나다, 獨逸의 對中투자규모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12.5배와 5.2배가 증가한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중앙일보 93.7.28)



## 사회

### ● 중국에 女교사 부족 늘어

중국의 소학교 교사수는 현재 5백52만여 명으로 이중 44%가 여성이다. 중학교의 여교사는 총 3백40여만 명 중 30%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국 평균 수치로 北京 등 대도시에서의 여교사의 비율은 평균치를 훨씬 웃돌고 있다. 북경의 경우 소학교에서 여교사의 비율은 74%나 되고 중학교에서도 과반수를 넘는 57%정도다.

(국민일보 93.8.26)

### ● 毛澤東연설 CD발매-탄생 1백주년 맞아

毛澤東 탄생 1백주년을 맞아 최근 중국에 갖가지 毛기념품이 유행하는 가운데 그의 육성 연설이 2장의 CD에 담겨 발매될 예정이라고.

「거인 모택동의 음성」이라는 타이틀의 이 더블 CD세트에는 지난 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을 선포하는 유명한 「천안문연설」과 기타 6편의 「결작연설」이 수록돼 있으며 해외에도 수출될 예정이라고.

(국민일보 93.8.24)

### ● 中國 “부패와의 戰爭”

중국이 「腐敗와의 전쟁」에 나섰다. 최근 중국 海南省 海口市의 인민법원은 횡령죄로 기소된 5명의 경제범을 사형에 처하는 극약처방을 내림으로써 反부패 투쟁에 나선 중앙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했다. 前 중국工商은행 해구지점 회계인 이들은 직권을 이용해 수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3천3백44만 元(약 50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됐다. 人民日報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黨규율검사위원회는 福建省의 수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조직 사건을 적발, 약 5만 元의 불법 이익을 얻은 발전소국장 등 1백 10명을 적발해 당적박탈, 체포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민일보 93.8.30)

### ● 밀수품소지 이웃 고발하면 압수가격 10% 포상

중국은 늘고있는 밀수를 방지하기 위해 세관과 관세사무소에 밀수고발 직통전화로 설치, 관세법을 위반한 이웃을 고발하는 사람에게 입수된 밀수품 가격의 10%(최고 1천3백만원)에 해당하는 상금을 주기로 했다고 전한다. (중앙일보 93.9.9)

### ● 부패혐의 경찰 사형선고

전국적인 부패척결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국당국은 최근 廣東省 惠州市 경찰 총책임자에게 부패혐의로 사형을 선도했다고 홍콩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언론들은 중국계 통신사인 中國新聞社의 보도를 인용, 중국 경제특구 심천과 접해있는 惠州시의公安책임자가 뇌물을 받고 차량 75대의 불법 수입과 중국인 37명의 홍콩 이주를 묵인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93.9.13)

### ● 백만의 돌팔이 의사가 농촌에 활약하고 있다.

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중국 농촌에 180만 명의 돌팔이 의사가 정신병자를 돌보고 있다고 한다. 그 수는 중국내 직업의사보다도 많다. <<陝西日報>>에 의하면 湖北省의 한 정신병연구소 소장 李勝賢씨가 10년 간의 자료수집을 거쳐서 이 보고서를 썼다고 한다. 그는 중국 농촌 지역에서 정신질환자의 1/4을 치료하는 사람은 직업의사가 아닌 돌팔이 의사들이라고 밝혔다. (<明報> 1993.4.21)

# 중국을 위한 중보기도

1. 하북의 청년 지도자로부터 기독교 교육을 위한 기독교도서관 설립에 필요한 교재와 도서 및 찬양테이프 기증 요청을 받고 있다.

♣ 하북성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이런 도서관이 세워져 청년 지도자들이 교육을 받고 또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시길.

2. 작년 연말 상해의 종교정책이 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미신도 성행하나 예수님을 아는 자도 늘어나고 가정교회의 등록도 요구하지 않아 복음전도의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 이야기식 테이프가 복음전도에 환영받고 있다.

♣ 상해에 찾아온 호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런 테이프 전도도 활성화되어 복음이 상해에 효과적으로 전파되도록 도우시길.

3. 중국의 남방에 수해와 북방의 가뭄으로 재해가 극심하다고 한다. 특히 화동 중남부는 홍수와 태풍으로, 동북, 화북, 서북 및 서남지역이 한해가 심각하다.

♣ 중국 각지의 이재민을 기억하시어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구제하시고, 복음과 함께 그들에게 물질도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시길

4. 중국 정부의 기독교 박해에 관한 소식이 여러 곳으로 부터 입수되고 있다. 심지어 극히 개인적인 일로 모여 이야기하는 장소까지 습격을 당해 수색당하고 벌금을 물리고 체포당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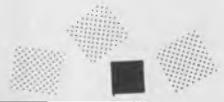
♣ 중국에 하루 속히 종교의 완전 자유가 이루어져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며 들을 수 있는 날이 이르도록.

5. 한중 양국간의 교계 교류가 정식 채널을 통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동북신학원의 지원방안 논의, 한중 신학자 교류, 저술출판, 조선족 목회자 지원 방안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주께서 이런 교류에 함께 해주셔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도록 도우시고, 이런 교류가 진정 중국 복음화에 필요한 일이 되도록.

6. 한중간에는 올 교역량이 백억달러를 웃돌고 건설 및 합작사업 등 지속적인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중 항로 독자 운영 등 날로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의 201개 대형사업이 야심차게 계획된 데 따라 우리 기업인 진출의 가속화가 예상되고 있다.

♣ 크리스천 기업인들의 중국 진출이 더욱 활발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중국의 선교사역이 효과적으로 열매맺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7. 현재 중국은 언제 있을지도 모를 등소평의 죽음이 몰고올 정치적 불안이 내재된 채, 날로 심각해 가는 물질만능 풍토와 관료들의 부패라는 사회적 암초로 흔들거리고 있다.

☞ 중국이 자유화가 신장되고 건전한 정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복음이 중국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도록.

8. 한국교회의 중국 선교에 협력선교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 한국 내에 중국선교를 하는 교회와 교단 그리고 선교단체의 지도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9. 국내에서 중국선교를 위해 헌신하여 훈련을 받는 많은 훈련생들이 있다.

☞ 주님께서 각처에 세우신 중국선교 훈련기관들을 붙들어 주셔서 내실있고 능력있는 훈련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훈련받은 훈련생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명을 더욱 견고히 하며 충실한 훈련을 거쳐 보내심을 받을 수 있도록.

10. 국내외의 각종 중국 선교단체들이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에 고전하고 있다.

☞ 주님께서 먼저 이러한 선교단체에 헌신한 일꾼들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각 사역에 넘치도록 축복하시길.

11. 국내로 들어오는 한족 노동자들을 상대로 선교하느라 땀을 흘리는 선교사들과 중국현지에서 은밀히 사역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다.

☞ 각 교회와 성도들이 이들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기도와 재정적 지원으로 함께 복음 사역에 참여토록 도우시길.

12. 국내에서 훈련받고 있는 많은 조선족, 한족, 중국인들이 있다.

☞ 주께서 이들 심령을 지키시고 보호하시 한국에서 건전하고 능력있는 신앙과 제자양육법을 배우게 하시고 돌아가 주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도우시길.

# 알림

## ▶ 이슬람 선교세미나

“중국무슬렘을 주께로”라는 주제하에 Leo Bruce(AoI 홍콩지역대표) W. Wassermann(AOI 유럽지역 대표)를 주강사로, 중국복음선교회, HOPE, 중국어문선교회가 공동 주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10억 세계 무슬렘 인구 중 23%에 불과한 중국내 무슬렘이지만 선교전략적 차원에서는 이슬람 선교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을 21세기의 미완성과업에 도전할 동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서울: 1993. 11. 8(월) ~ 11. 9(화)  
부산: 1993. 11. 11(금) ~ 11. 12(토)

자세한 사항은 본지의 광고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594-8038)

## ▶ 미전도 종족 선교 세미나

“2000년이 되기 전에 모든 미전도 종족이 있는 곳에 교회 개척을!”이라는 주제하에 지구상의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한 이론과 실재를 소개하게 될 선교 세미나가 한국 미전도 종족입양운동본부 주최로 열립니다.

◦ 주강사: Frank Kaleb Jansen, Jim Morris 선교사

◦ 일 시: 1993. 10. 14(목) ~ 16(토)

◦ 장 소: 사랑의 교회 소망관

자세한 문의는 TEL. 02)402-4967

FAX. 02)402-4968

한국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로.

## ▶ '93년 전문인 선교대회

“전문인 선교(Tentmaker) - 마지막 세기의 마지막 선교”라는 주제하에 George Burch를 주강사로 모시고 전문인 선교대회가 개최됩니다.

◦ 일 시: 1993. 10. 28일(목) ~ 30(토)

◦ 장 소: 광림교회 웨슬리 교육관 성전

◦ 강 사: 손창남 선교사(OMF), 김성용 선교사(바울 선교회), 김난주 선교사(네팔선교사) 외 다수.

◦ 후 원: 선교한국, 극동, 아세아, 기독교방송, 국민일보, 빛과 소금.

◦ 주 최: 한국전문인선교협의회(KAT)

자세한 문의는 TEL. 585-3547

## ▶ 훈련학교 학생모집

사단법인 예수전도단에서 '94 독수리 예수 제자훈련학교(B. E. D. T. S)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주님께 헌신된 직장인들에게 성경에 제시된 원리 원칙들을 실제 생활 속에 적용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행하게 될 이 훈련학교에 많은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의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TEL. 766-5884/5

FAX. 766-5891

## ▶ 철야기도회

93. 10. 19(화) 오후 10:30 ~ 새벽 02:00 까지 중국어문선교회의 정기철야기도회가 방배동 본부에서 있습니다. 기도로 중국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 594-8038

# 선교도서안내

## 선교도서

- |                                    |        |
|------------------------------------|--------|
| 1. 중국교회 얼마나 알고 있나?<br>(전문인협력기구)    | 3,000원 |
| 2. 중국선교 - 교회의 대장정<br>(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3,500원 |
| 3. 중국선교핸드북 (두란노서원)                 | 4,800원 |
| 4.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 1,500원 |
| 5. 중국어성경 번역소사                      | 1,500원 |
| 6. 神愛世人                            | 1,500원 |
| 7. 만 남                             | 2,000원 |
| 8. 전도중국어(漢語傳福音)                    | 1,500원 |

## 교재

- |                                    |                  |
|------------------------------------|------------------|
| 1. 中國語 聖經<br>(신약+시편+잠언: 주음부호)      | 7,000원           |
| 2. 使徒信經, 主禱文 외<br>使徒信經, 主禱文 외 Tape | 1,500원<br>1,000원 |
| 3. 經文背誦<br>經文背誦 Tape               | 1,500원<br>1,000원 |
| 4. 初級中國語 1<br>初級中國語 1 Tape(10개)    | 3,500원<br>6,000원 |
| 5. 初級中國語 2<br>初級中國語 2 Tape(10개)    | 3,500원<br>7,000원 |
| 6. 我的第一本聖經<br>我的第一本聖經 Tape         | 2,500원<br>1,000원 |
| 7. 사복음서 낭독 tape(12개)               | 10,000원          |
| 8. 信仰讀本<br>信仰讀本 Tape               | 5,000원<br>1,600원 |

\* 구입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은 우편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담당: 김성순 간사)

(전화 594-8038, 533-5497)

## 우리는 이렇게 일합니다.

본선교회는 중국선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섬김의 도와 지체의식으로 중국어문(中國語文)과 관련된 선교사역을 초교파적으로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교육사업:** 선교지망자들을 위한 중국어학훈련, 선교 중국어 교재개발 및 각 대학 중국어 성경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연구사업:** 정기적으로 선교세미나 개최, 선교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최근중국동향에 대한 정보 수립 및 자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 **번역 및 출판사업:** 각종 선교책자 번역, 회지 발간 및 각종 관계서적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 ▶ **방한중국교포사업:** 전도집회 및 “사랑의 집”에서 제자화 양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동역자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중국어문선교회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분은

1.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가장 큰 사역입니다.
2. 후원금을 약정하여 매달 혹은 수시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3. 주신 달란트를 드려 손과 발로 펼 수 있습니다.
4.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재능이 아닌 성실한 헌신입니다.  
먼저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할 일을 찾게 될 것입니다.

# 6시 29분 퇴근무렵 고은단 부장의 표정은 밝기만합니다



## 식사후에 입안이 텁텁할때 담배 껌이 생각날때 고려은단

허기도 느끼고 피곤도 쌓이는 퇴근무렵  
소비자 면담이다 해외지사 물품송부하라  
동분서주 바쁜 업무속에 짜증만 늘어갑니다.  
이럴때 멘톨향의 상쾌한 은단한알 ...!

고은단 부장의 퇴근무렵은  
하루중에서도 더욱 밝기만 합니다.  
고려은단이 함께 하거든요! /

10가지 생약재로  
만들어집니다.



■ 권장소비자가격 : 고려은단 8g : 2200 원

## 상쾌한 멘톨향과 놀라운 해독력의 99.99% 순은으로 싸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저은 순은의 놀라운 해독작용과  
10가지 생약재가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체내에 쌓여진 불순물 및 독성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거하여 줍니다.

- 입안의 냄새나 세균들을 없애줍니다.
- 차 멀미나 배멀미를 예방해줍니다.

# 고려은단

# 중국을 주께로

1993. 9/10. 통권 24호  
중국선교 전문지

발행·편집인/박성주  
편집장/한영혜  
편집주간/석은혜  
편집디자인/정광숙  
컴퓨터/민하은

## 중국을 주께로

1993. 9/10월호 통권24호  
발행일: 1993년 9월 30일  
발행처: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594-8038, 533-5497  
팩스/ 599-2786

지부: 인천시 남구 용현4동 89 9/1  
(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308호)  
전화/ 032-872-0742

사랑의 집: 관악구 신림10동 306-67  
전화/ 873-2570

송금 온라인 번호  
지로번호: 7602362

## 섬기는 사람들

고문/방지일목사·김지일장로  
대표/박성주장로  
총무/이요한  
행정실/장희락  
사무·재정간사/임화명  
기획간사/전하리  
홍보협력간사/김정하  
교육부운영위원/김성곤  
간사/김성순  
협력간사/안거안  
연구부운영위원/석은혜  
협력간사/배다니엘  
출판부운영위원/한영혜  
편집디자인/정광숙  
컴퓨터/민하은  
훈련원운영위원/장희락  
간사/김바울  
전임간사/방주·우신하  
선교부운영위원/정선영  
간사/기드온  
협력간사/이모세

인천지부간사/주미애  
협력간사/김성수  
사랑의집운영위원/박애린  
간사/이순덕·서세은  
파송연구원/주안도  
파견간사/김광석·윤승일  
파송선교사/박애린(국내)  
예보람(해외)  
정선영(본부)  
강성광(홍콩)  
협력선교사/주성지·고대위

### 퍼지후기 나 밤

은혜의 햇빛 찬란한 가을.  
우리 마음도 저 가을빛처럼 넘쳐나게 하소서. - 惠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듯.  
그러나 그래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니까. - 石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도.  
힘든 만큼 보람이 있기를... - 鄭

막내는 힘들다.  
토끼 눈과 내 눈은 사촌 - 컴퓨터 덕분에  
- 하은

# 정기구독 신청안내

● <중국을 주께로>의 구독은 중국선교의 첫걸음입니다.

중국선교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대하를 이루듯, 구체적 헌신의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 전 중국을 주께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구체적 헌신의 하나가 바로 <중국을 주께로>를 성실히 읽는 것입니다.

● <중국을 주께로>를 받아보시려면.

▷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회원에게는 회원 1인에 한하여 1부씩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구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구독이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먼저 본회 (TEL. 533-5497, 594-8038)로 연락을 주시어 정확한 주소와 성함을 알려 주시면 지로용지와 함께 우송해 드립니다.

▷ 대금은 1부당 2,000원이며(1년 구독은 10,000원), 보내 드린 지로용지의 '기타'란에 '회지 대금'이라고 쓰신 후, 은행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 세계속의 카타딘 정수기

## 그 명성과 품질을 보증합니다.

“위스까지 가서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을 흥 주



### 1. 품질보증

- 세균 처리 아메바, 살모넬라, 콜레라, 이질, 위장염균, 비브리오, 바이러스 완전 100% 제거되며 방사능까지도 제거됨
- 염소, 비소, 카드뮴, 납, 수은등 인체에 해를 끼치는 중금속은 완벽히 제거하며
- 인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등의 미네랄 성분은 그대로 통과시켜 줍니다.
- 미 허버드대학, 미 육군연구소, 미 환경보호청, 미시간대학, 스위스 바젤대학, 스위스 중앙연구소, 미 예인대학, 독일 하이덴베르크 대학, 서울의대, 서울시 종합기술연구소등 세계 유명 시험기관에서 입증.

### 3. 경제성

- 필터의 수명이 10년 이상으로 반 일구척 (타입제 1년 정도)
- 필터의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 (타입제 1만 리터)
- 5인 가족 년간 유지비 4만원선 (타입제 40만원 이상)
- 생산 이용시 보다 경제적이며 사용자 세균에 대한 불안이 전혀 없음.

### 2. 세계적인 명성

- 카타딘 정수 시스템을 사용하고있는 세계적인 고객은; Coca-Cola, Pepsi-Cola, Heineken, McDonald's, Red-Cross, Lotte Hotel, Swissair, Esso, Shell, Dole, Mobil, Philips Petroleum, Unionoil, Statoil, Amoco Norway, Jepsen Drilling, Texaco, USSR Shipping lines, India shipping, Mitsui, Nedlloyd, Hapag-Lloyd, Ben Line, British Petroleum,의 1,500여개의 정수장
- 3,000여개의 세계 유명 유류업체
- 국내: 한라중공업(주), 삼성중공업(주), 제주생수, 현대상선(주), 한국해운(주) 등

### 4. 사업성

- 카타딘 정수 시스템의 제품 종류는;
  - 가정용 • 등산용 • 생수회사용 • 유류회사용
  - 대형호텔용 • 수도국 정수장용 • 제약회사
  - 시설용 • 종합병원용 • 가구나 양식장용
  - 선박용 • 주유회사용 • 비행기시설용
  - Tablets • Spray • Powder 등 다양하며 정수 시스템의 결성재라고 볼 수 있음.
- 대회사 제품의 추종은 불허하며
- 필설과 패키지가 있는 대리점 사업주는 카타딘 정수 시스템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 됨.

### “요주의” 허위 선전 업체 고발

모 정수기 업체에서는 전기분해기나 TDS 가지고 다니며 허위선전으로 판매를 하고 있음으로 보시부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실 수요자에게 눈속임으로 사기를 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에 속지 마시고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번없이 121번)

속임수에 의하여 정수기를 선택하신다면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02)582-4505



나라가 다르고, 회사가 달라도 모두가 「카타딘」 정수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카콜라

●펩시콜라

●맥도날드사

●국제적십자사

●롯데호텔

●스위스항공

●하이네켄

KATADYN KOREA CO., LTD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6-9 (신원동) (P.02)582-4505